

제2부



마을 속으로 들어가다

여 백

안양, 근현대사를 걷다

일제 수탈기와 이데올로기의 상처들

한반도 침탈을 위한 경부철도 쇄석 공급처:채석장

안양지역은 일제가 경부선 철도 안양역을 개설하고 안양천의 수량을 이용한 방직공장 등을 세우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 근대화의 거점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그만큼 안양은 곳곳에 친일 수탈의 아픔과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 수리산 시민공원이 들어선 안양9동 채석장 역시 일제가 경부선 철도(명학~평택) 구간을 부설하며 쇄석용 자갈 채취를 위해 1901년경부터 바위산을 온통 파헤치는 현장이었다.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구 화단극장에서 수암천을 따라 병목안에 이르는 구 철길 역시 여기서 캐낸 쇄석을 경부선 철도 공사 현장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것이다.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흔적

최근 공개된 기록에 의하면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 인사와 단체의 명단이 일부 공개된 가운데 일제 침략의 수단인 전투기를 제작해 제공하던 비행기 제작 공장이 안양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비행기가 친일파들에 의해 일제 군국주의자들에게 헌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출처 :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화신백화점을 운영한 박흥식은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하기 한 해 전인 1944년에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흥식은 유통업체 화신백화점의 총수로서 1942년 일왕 히로히토를 만나 “대동아전쟁 완수에 전력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등 뚜렷한 친일 행적을 남긴 인물로 1938년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일제의 패색이 짙던 1944년 안양에 조선 비행기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비행기 주식회사는 총독부 힘을 빌려 인근 토지를 몰수하고 그 부지에 건설하였으며 생산시설은 조선군사령부 병참부의 중개로 관동군의 지원을 받았으며 공장 노무 인력은 당시 시흥군 일대에서 차출된 징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박흥식은 자신이 운영하던 광신상업학교를 조선비행기공업학교로 개편하여 비행기 제조 기술공을 양성하려 했던 사실도 새로 밝혀져 실제로 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에서 비행기 양산체제를 갖추려던 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선비행기주식회사가 자리했던 위치는 현재의 안

양시 안양2동 일대로 추측할 수 있으며 이 부지는 해방 후 1948년 10월 금성방직이 인수하여, 1967년 대한농산(대농)에 매도하였으며, 1977년에는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비행기 현납자 명단과 생산 공장이 기록되어 있다. 그 자료에서 보면 경성, 경성제일, 조선경북, 경주시흥 등 행정구역의 이름이 새겨진 비행기들을 확인할 수 있어 안양에서도 비행기를 생산, 현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금성방직과 태평방직

한편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일제 패망 이후 과거사 청산을 하지 못한 채 무죄판결을 받은 박흥식이 조선군사령부로부터 조선비행기에 투자한 금액과 격려금까지 받으면서 운영되다가 이후 금성방직을 설립한 김성곤에 의해 방직회사로 변모하게 된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정부는 연합군의 일본 폭격을 피하고자 일본 내 주요 산업시설을 한국으로 피신시켰다. 이에 해방 직후 안양역전에는 일본방직 소유의 방직기 2천 추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출처 : 한국재벌형성사, 이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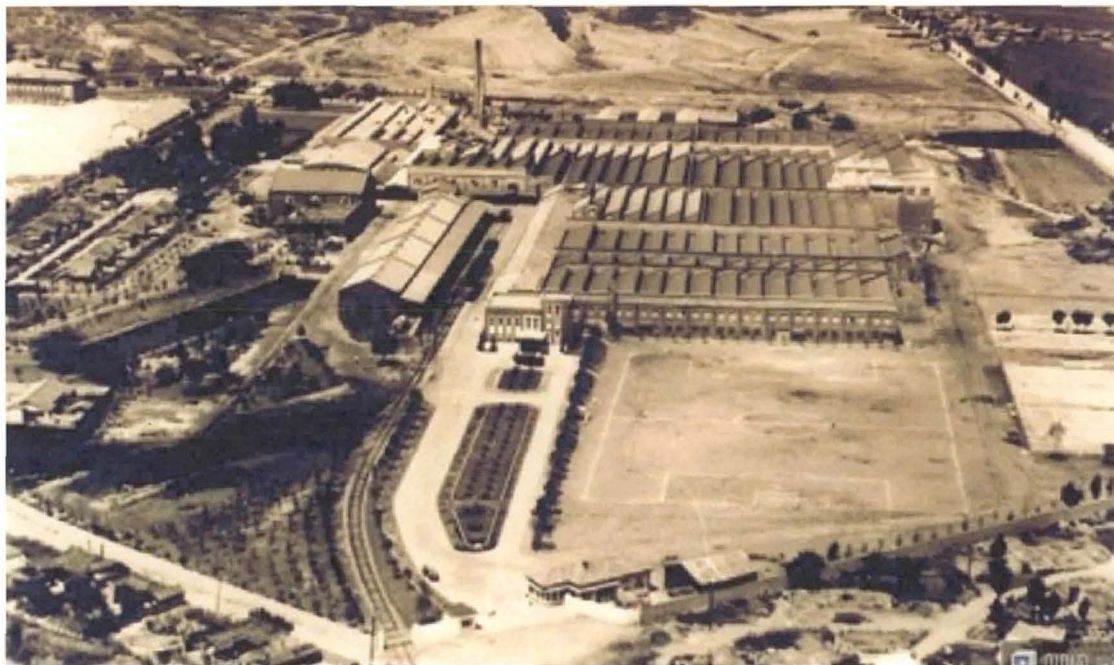
금성방직을 설립한 김성곤은 방치된 방직시설을 이용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할관서인 미 군정청과 교섭하여 안양에 소재한 조선직물주식회사(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일부인 3천 평을 임차해 인조견사 생산에 나서게 된다(출처 : 쌍용그룹 전사편).

김성곤은 기술자를 대동, 안양역전에 나뒹굴고 있는 기계부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미 군정청 관재처에 제출하여 사용 가능한 431대를 확보해 불하받은 후 공장 귀퉁이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금성방직의 시초이다. 매각금액은 당시 화폐 단위로 2천만 원 정도였다.

6.25전쟁으로 금성방직이 전소되자 김성곤은 UNKRA 원조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성방직 공장 재건에 나섬으로써 재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1956년 5월 15일에는 현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던 태평방직을 인수하고 공장 확대에 나섰다.

태평방직은 1953년에 자본금 1억 환으로 안양읍 안양리 97번지 일대에 설립된 삼흥방직의 후신으로 방기 1만 추, 직기 50대를 구비하고 1954년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금성방직에 인수되었다가, 1967년 10월 금성방직과 함께 대농에 매각됐다.

사진은 1960년대 당시 전국에 3개밖에 없던 잔디 구장의 하나였던 금성방직 축구장(현 안양대농단지)이다. 이 시기에 금성방직 잔디 구장에서 열린 축구경기를 자주 보면서 자



금성방직

연스럽게 안양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싹트게 되었다. 이것이 축구도시 안양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양잠, 포도 그리고 팔도노동자

안양의 산업화는 1929년, 일본인 농장주에 의해서 설립된 ‘고뢰영농법인(高瀨榮農法人)’을 주축으로 하여 양잠, 포도와 같은 과수를 위주로 고부가가치 근교농업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32년에 일본인 자본에 의해 현 대농단지와 석수동에 각각 ‘조선직물주식회사’와 ‘조선견직주식회사’라는 근대적 방직공장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양의 산업은 1961년 5·16 이후 공업화 정책에 편승하여 1971년에는 제조업체 수 64개를 기록한 후 ‘75년 143개, ‘80년 374개, ‘91년 743개, 그리고 ‘98년 말에는 1,111개 31,509명의 종업원이라는 기록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년대 당시 안양의 대표적인 공장은 ‘금성방직’으로, 전성기에는 종업원 수가 약 3,000명에 달했고, 금성방직 월급날만 되면 안양 경제가 봉급특수를 누릴 정도로 지역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기업이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금성방직’의 영향이었다. 금성방직 공장이 자리를 잡

고 여공들이 이주해 오면서, 한 명의 여공은 여동생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오게 되었고, 이것이 가족 전체가 이주해 오는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안양에는 제지공장이 많아서 남자들의 유입도 많았다. 현재 안양에서 8도향우회 활동이 활발한 데에는 그런 배경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금성방직은 1967년 대한농산(이하 대농)에 매각되었고, 대농은 1977년 청주공단으로 이주하였다. 대농이 이주하면서 공장용지는 한국토지금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한다. 그 자리가 바로 국민은행 안양지점 뒤편. 오늘날 국민은행 뒤편 안양3동 지역을 ‘대농단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러한 사연이 담겨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섬유공장의 이전이 있었던 데 반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안양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입주한 것을 주요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70, 80년대에 안양이 공업지역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과의 인접성, 교통의 편리함, 양질의 노동력 그리고 하천 폭을 가득 메울 정도(수심 1미터 이상)의 풍부한 안양천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공업용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양명고교 앞에는 드럼통으로 만든 ‘줄배’가 운행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으며, 당시 논이던 평촌지역은 안양천의 저수조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안양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농’을 비롯해 31개의 대기업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도권 공업입지 억제정책과 국토균형발전법등의 영향으로 안양시 관내에 입주해 있던 만도기계, 한국제지, 삼덕제지, 동아제약, 동일방직, 금성통신, 삼화왕관 등 상당수의 대기업이 외지로 이전하면서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소 잃어가는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의 태동과 근로자회관

일제에 의한 방직공장 설립 등 수탈경제시대를 거치면서 이후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에서 이주해 오는 10대, 20대 여성노동자들이 많아졌지만, 그들의 주거환경은 여의치가 않았다.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처음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 정원진 루가 주임신부였다. 근로자회관은 어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주거환경을 염려한 한 신부의 소박한 꿈이 불씨가 돼 만들어졌다.

정원진 루가 주임신부는 어린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독일 수녀 말가리다 관장에게 얘기하였고 당시 수원교구장의 결정으로 독일/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에 도움을 요청하

였으며, 독일/오스트리아 가톨릭교회는 여자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설립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후 근로자회관은 여성근로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69년 여자기숙사에 이어 1976년에는 남자기숙사까지 증축하였는데, 이후에도 근로자회관은 ‘광주항쟁 이후 수배자 보호’ ‘노동법 강좌(서강대 김어상 교수)’ ‘안양에서 유일하게 노동절 행사 개최’ ‘근로자 의식화 교육’ ‘1986년 미술교실’ 등 87년 이전의 암울했던 시기에 안양에서 이루어졌던 노조설립(당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던 시절)은 물론 미술학교, 우리 그림/우리 민요 연구회, 독서회 등을 주도하며, 지역문화운동의 지원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

1969년 9월 10일, ‘근로자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국제가톨릭형제회(AFI)가 운영해 온 안양 전·진·상 복지관은 안양에 산재한 공장의 지방이전 등 산업구조의 개편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천주교 수원교구의 결정으로 2007년 12월 31일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된다.

한국전쟁의 흔적들

한국전쟁 당시 수리산 전투는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이 1951년 1월 25일부터 재반격 작전을 전개하여 한강 남안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미 제25사단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이 수원 서북방의 수리산을 공격하여 중공 제50군 예하의 제149사단을 격퇴하고 수리산으로 진출한 공격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미 제35연대와 터키여단은 미 제999포병대대와 미 제89전차대대의 지원으로 수리산을 양의 포위하여 중공 제149사단의 거점을 공격한 끝에 완강히 저항하는 증강된 연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목표를 탈취하였으며, 목표 탈취 직후 개시된 중공군의 역습도 물리쳤다. 이 전투의 결과로, 중공군은 수원 지역에서 물러나 안양 북방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유엔군은 한강선으로의 진격을 계속하게 되었다.

미 제25사단은 수리산을 탈취한 후 2개의 기갑부대로써 국도와 소사도로를 따라 공격하여 중요지역을 확보하면서 한강선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도를 따라 공격하는 돌핀특수임무부대는 제89전차대대장 돌핀 중령과 제27연대 1대대장 길버트 책 중령이 지휘하였다. 돌핀부대는 산본동 99고지에서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여 수리산이 점령되기를 기다리다가 안양 동북쪽에 솟아 있는 무명 303고지를 점령하고, 바래트 특수임무부대는 소사도로를 따라 신촌-부노리지역으로 이동하여 운흥산-무명150고지를 점령하도록 계획을 하였다.

2월 4일 공격대기지점을 점령한 이들 특수부대는 공중과 지상으로 공격지역을 정찰

한 결과 안양천의 얼어붙은 습지를 통과하여 정면에서 303고지를 강습하고 나서 안양시가지를 통과하여 무명175고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2월 5일 아침 7시에 돌핀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다. 75밀리 무반동총과 4.2인치 박격포의 지원으로 일제히 공격을 하였다. 9시에는 보병부대가 전차 사격의 엄호를 받으며 무명 303고지를 공격을 시행하였다. 적의 저항은 강하지 않았다. 13시가 되었을 때 돌핀부대는 무명303고지를 한 명의 피해도 없이 탈취하였다. 이때 산 위에는 56구의 적군의 시체가 있었다. 돌핀부대가 수리산의 후방에 있는 무명 303고지를 탈취하자 슬기봉지역에서 저항하던 중공군도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6일간의 수리산전투는 막을 내리게 된다(중령 임종득(모락산대대장, 안양시민신문 03/07/11일자 발췌).

국방부가 정보사를 이전할 예정인 안양시 박달동에는 현재 정보사 예하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육군 1113공병단과 155공병대 사이에 정보사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9만 3천여㎡ 규모의 군용지가 있다. 또한, 인근에는 서울시 예비군훈련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로 건설된 곳으로 산악분지형으로 보안 및 방호에 유리하고 시설 배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 등 영구 주둔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1950-60년대에는 처음으로 미 군사기지가 들어섰고, 이후에도 우리 군 시설이 자리해 왔다. 변원신 선생의 구술증언으로는 어렸을 적 미군들이 대형 트레일러에 미사일을 싣고 흙길을 가던 기억이 있으며, 안양과 서울 경계 야산에는 탄약고 즐비했다고 한다.

현재 석수동 대림아파트 자리는 6.25 당시 83보급대대 미군부대(83rd Ordnance Battalion)가 주둔했던 곳이다. 83보급대대 미군부대는 60년대 말까지 주둔했는데, 여기에서 근무한 닐 미샬로프(Neil Mishalov) 씨는 1968년 3월부터 1969년 4월까지 근무하며 다양한 사진을 찍었다. 그 중 많은 분량이 그의 Homepage인 Mishalov.com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서울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그의 사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안양이다.

닐 미샬로프씨는 2003년 10월 34년 만에 안양시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 안양 시민축제에서 ‘닐 미샬로프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미샬로프는 안양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안양의 교육, 영화 그리고 시장의 출발

안양교육의 효시

안양 유아교육의 효시는 ‘장내동성당 안양유치원’이다. 장내동성당은 서울교구가 1937년 밤나무밭을 교회부지로 매입한 후 목조 함석지붕을 건축하여 설립되었는데, 1956년에는 성당 안에 유치원을 개설하였다. 이것이 안양시 유아교육사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926년에는 안양공설시장이 현재의 구시장 자리에 들어섰고, 과천공립보통학교(1912), 군포공립보통학교(1926)에 이어 안양공립보통학교(1927)가 개교하게 된다.

당시 안양공립보통학교 개설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때의 사연을 이렇게 적고 있다.

“公普期成困難, 경찰간섭으로.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은 군의 중앙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여 戶數도 상당하므로 장차 발전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보통학교 일개소가 없으므로 수백의 아동들은 멀리 군포장, 시흥, 영등포 등지의 公普에 기차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이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던 지역 유지 여럿이 전 군수 神尾에게 수차 탄원을 한 결과 學校費豫算에 계상한 後圖 知事의 인가를 얻었으므로 서이면 유지들이 3월초 안양공보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건축비 만삼천여원의 의연금 모금에 착수하여 호당 戶稅等級에 비례하여 신청을 받은 게 팔천여 원에 이르러 일의 진행이 속도가 붙었으나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의연모집을 돌연 중지시킨 후 기부모집허가액을 제출한다 함으로써 동회는 할 수 없이 허가원을 제출하였던바 3월 30일부로 허가되어 다시 일을 진행하였으나 다시 경찰서가 허가증을 가져가고 연락이 없는 등 경찰의 간섭으로 일의 진행이 방해를 받게 되었다. 서의 보안계주임은 허가장을 다시 가져온 것은 정정할 것이 있어서이니 달라면 주겠다고 하였다.

안양기성회장 嚴基承씨는 군수의 양해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학교비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의연금을 모집하고자 한 것인데 도지사 밑에 있는 경찰서에서 또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수차 말함으로 또 허가수속을 해서 나온 허가장을 또 가져간 후 말이 없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동아일보 1927. 6. 13).”

“安養公普基地 4千餘坪 寄附

- 李容汶氏 特志.

시흥군 서이면 안양에는 반드시 보통학교 일개소는 없지 못할 지점임에도 지금까지 보통학교는 물론 서당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어서 많은 아동이 멀리 군포장(軍浦場), 과천, 시흥, 영등포 등지를 기차로 통학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에게 기차의 위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발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여겨 서이면 유지 여러 사람이 분기하여 去春에 안양공립보통학교 期成會를 조직하고 邇來不斷의 노력을 거듭하여 온 결과로 약 萬圓의 거액의 의연금인 각 방면으로부터 답지하였으나 교사건축기지가 없음을 본 京城忠信洞 李容汶氏는 안양역전 하단에 있는 시가 二千圓의 四千坪을 기부하였으므로 안양공보의 출현도 불원한 장래에 있을 줄로 일반의 기대가 많다더라(始興, 동아일보 1927. 10. 21).”

현재 안양3동에 유난히 교육기관이 많은데, 그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의 안양3동 지역에 학교가 있었던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아사히 학교’가 설립되었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안양중학교’와 ‘안양공고’가 세워졌다. 이후에도 ‘안양여상’ ‘안양예고’ ‘안양전문대학’ ‘안양서초등학교’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안양3동은 명실상부한 안양 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지난 66년 파란곡절의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국내 최초로 현재 관악역이 있던 곳에 세운 영화전문교육기관 안양예술학교가 이 학교의 전신으로 지난 82년 재단이 바뀌면서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가 됐다.

우리나라 연예계에는 이른바 「안양예고 사단」이 있다. 31년의 역사를 가진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 출신들을 일컫는다. 그룹 불라 출신의 김지현, 신세대 탤런트 신은경 김민종 이상아 오현수, 개그맨 조정현 김보현 남희석, 슈퍼모델 김소연 씨 등 일일이 꼽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용구 씨는 유년시절 학교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어려서는 이지(理智)가 부실하고 시야가 좁아 활동 범위의 무대가 좁은 어린 마음에 그저 멀리서 못 가고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만 맴돌았다. 봄에는 노적봉(露積峰)에 올라가 진달래 꽃떡 만들고 여름에는 냇가에서 물장구 치며 고기 잡고 가을에는 알밤 줍고 겨울에는 팽이치고 연 날리고 썰매 타는 등 평범하게 지냈다.

어릴 때 살던 곳은 안양3동이다. 특히 여름에는 안양 3동과 9동 사이 개울가에는 산팔기(복분자)가 많았다. 미역 감다가 알몸으로 가시에 찢려가며 따 먹었으며 그 앞 울창한 밤

나무 숲에는 황버섯, 피꼬리버섯, 밀버섯 등이 많았다. 더 들어가 수리산(修理山) 숲 속에는 찌리버섯이 풍부했는데 이 근자에는 거의 건물로 도시화가 되어 그런지 그 흔적이 없으니 자못 아쉽기만 하고 그저 추억만 있을 뿐이다.

또한, 여름철 가끔 집에서 서북쪽에 있는 박달리(현 박달동)를 지나 안양천 하류로 물놀이 겸 천렵(川獵)(투망 또는 보쌈으로 고기 잡어 매운탕 끓이기)이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하나다. 그때 개울 건너 좀 더 가면 지금의 충훈부 마을(현 석수2동)이 있었는데 어려서는 참 먼 거리였었다. 집이 그리 많지 않은 동네였다. 우리는 이 마을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이 부르는 발음대로 “춘부”라 불렀으며 이것으로 통했었다. 그 후 성장해 알고 보니 춘부가 아니라 충훈부(忠勳府)(나라에 공이 있는 장소)로 역사적인 고장의 이름이었다. 이곳 학생(이경래, 이부래 외 여러 명)들은 이곳에서 안양학교와 시흥학교에 구간 거리가 비슷해 각기 희망대로 양쪽으로 통학했다.

또한, 당시 나는 내가 다니는 안양보통학교 (당시 4년제)뿐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는 경기도 시흥군에는 당시 내가 사는 서이면(西二面) 말고 동면, 서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과천면, 신동면 등 각 8개 면 단위로 4년제 또는 6년제 보통학교가 있었다. 북쪽으로 시흥학교(6년제) 서면학교(4년제) 군자학교(4년제) 안산학교(6년제) 남쪽으로 군포학교(6년제) 동쪽으로 과천학교(6년제)와 신동학교(4년제) 현 서울 강동구 잠실동)가 있었다.

그중 한 예를 들면 당시 서이면(안양)은 아직 학교가 없어 군포학교(6년제)와 시흥학교(6년제)로 안양에서 군포역과 시흥역으로 기차통학을 했고 안양에 학교가 생긴 후부터는 호계리(현 호계1~3동)에서는 사는 집과 학교와의 거리상 군포학교에도 가고 안양학교로도 다녔다.

또한, 충훈부(석수2동)와 삼막골(현 석수3동)에 사는 학생(하상호 외)은 안양 서이면에 속한 동네이지만 거리가 조금 멀어도 6년제라 안양학교보다 먼 시흥학교로 다녔다. 당시에는 이렇게 취학 연령(年齡)과 학구(學區)가 없었다.

당시 안양에서 군포와 시흥은 기차통학 말고는 모두가 걸어서 다녔다. (도보통학) 먼 거리는 새벽에 집을 나서야 하고 산을 넘고 내를 건너 논두렁 길이었으며 하교(下校)길은 저녁 늦어서나 집에 돌아왔다. 그래서 맨 끝 수업인 농업시간 먼 거리 학생은 일찍 귀가시켰다.

그런고로 특히 몸이 허약한 자는 학교 출석률이 떨어졌다. 또한, 장마철에는 홍수로 안양천이 범람하면 충훈부 비산동 호계동 학생은 물이 빠질 때 까지 학교를 쉬어야 했다.

또한, 옛 속담에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말과 같이 농번기 (보리베기, 모내기)에는 집안 일손 돕기(동생 돌보기 등)로 결석하는 사례가 많은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학교생활이었었다.

이제까지 살아남은 우리 또래 동창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참 고생도 많았고 추억과 시련도 많은 유년시절의 학창시절 이라며 당시와 지금을 비교 한다면 하늘과 땅(天地) 차이라며 현재의 학생들은 지상 천국이라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 또한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았던 옛 이야기를 다 글로 써서 남겨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과 의도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출처: 이용구, <http://www.baekak.or.kr/board>).”

아시아의 할리우드, 한국 영화의 시발지 안양

안양은 과거 한국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안양시 석수동에 동양최대 규모의 영화촬영소가 자리했으며, 1960~1970년대 수많은 영화가 제작된 한국영화의 산실이자 메카였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사를 살펴보면 지금의 석수2동인 신촌(新村)은 명실상부한 한국영화의 메카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동양의 할리우드를 꿈꾸며 (주)수도영화 흥 찬 대표가 현재의 안양 석수2동군부대~석수전철역 일대에 동양 최대 규모(2만여 평으로 추정)의 영화제작소를 세워 한국 근대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기공식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까지 참석해 테이프를 끊고 축하했다.

안양영화촬영소는 대지 3만 평에 500평과 350평의 스튜디오 2개 동과 수중촬영장, 현상소 및 영사실 등을 비롯하여 촬영, 편집, 녹음 등 영화작업을 일괄 처리하는 동양최대의 시설로 한국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이강천 감독의 ‘생명’을 첫 작품으로 제작했다.

이는 한국영화의 부흥과 196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시대를 여는 중심이 되기도 했으나 초기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흥행감독이었던 신상옥 감독이 1963년 인수한다.

신상옥 감독은 명칭을 ‘신필림’으로 바꾸고 1966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 최대의 영화사로 운영했다. 당시 이곳에서는 ‘성춘향’(196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빨간마후라’(1964), 성웅 이순신 등 불후의 명작을 비롯하여 150여 편의 영화들이 제작됐다.

하지만 1975년 ‘장미와 들개’의 검열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시작하며 신필림은 재정난을 겪고, 1978년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북에 납치되고 신 감독도 북으로 가면서 주인 잃은 영화사는 1981년 문을 닫으며 안양영화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

아쉽게도 현재 안양시 석수동의 옛 안양영화촬영소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신필림로’ 거리 명으로 흔적만을 기억시키고 한다. 또 최은희 씨가 1966년 현 관악역 인근에 세워 운영했던 영화전문교육기관인 안양영화예술전문학교는 현재의 안양예술고등학교가 별도 재단을 설립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안

양영화예술고등학교의 교장 이름도 동명이인인 최은희라는 것도 흥미롭다.

서민의 삶과 애환이 서린 시장과 상권의 형성

촌락에 불과했던 안양리가 오늘날 안양의 중심지로 크게 변창하기는 일제 강점기인 1902년에 경부선이 부설공사로 안양역(安養驛)이 건설되고 1905년 안양역사가 개통돼 안양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부선 1구간 역 중 하서면 안양리에 개설된 안양역의 개통은 호계리에 개설돼 있던 군포장을 쇠퇴하게 하고 안양역 일대는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1912년 3천412명이던 인구수는 1925년 6천165명, 1935년 8천957명, 1940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안양시사, 시흥군지, 안양상공회의소 등의 기록을 보면 일제 강점기인 1917년 7월에 호계2동 방죽말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옆(안양1동 674-271)자리로 이전하고, 1924년에는 만안로에 안양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 안양역 앞에는 안양우체국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설립되면서 안양역 일대가 관공서들이 속속 들어섰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시흥군청사가 안양 일번가 삼원플라자 호텔 자리로 이전하고 곧이어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의용소방대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안양 일번가는 70년까지 시흥군 행정 관가의 거리로 행정구역상 중앙동(中央洞)으로 불렸다.

하지만 1970년대 시흥군의 해체와 안양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의 변화 속에 공공기관들이 안양6동으로 이전하면서 안양 1번가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해 1980년대에는 먹거리, 옷가게, 유흥주점이 주류를 이루며 금융, 교통, 상권을 아우르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1926년 1월 28일에는 철길 건너 인근 시대동에 안양시장(구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의 기틀이 다져졌다. 당시 안양의 중심부인데다가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이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의 최적지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이곳을 통과해 지나갔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농산물을 위시하여 축산물, 포목, 일용잡화까지 다양했다. 개시(開市)한 1년 후(1927)의 연간 매출액을 보면 농산물이 15만 6천원, 잡화가 21만 2천원, 그밖에 직물, 축산물, 수산물 등 모두 50여만 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개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27년 6월 4일 단오절을 기해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거행기로 했는데, <동아일보> 1927년 6월 1일 자에 안양시장 일주기념(安養市場一週

〔紀念〕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은 군의 중앙일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따라서 산물도 상당함으로 동면에서는 작년 중에 안양시장을 설치한 후 유래 성적이 비상히 양호하던바 더욱이 안양번영의 일책으로 오는 6월 4일(단오일)을 기하여 전시장(全市場) 일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 하며 여흥으로 예기의 가무와 오산청년(烏山靑年)의 소인극(素人劇) 외 안양소년척후대 주최의 축구대회 및 동화동요회 등이 있어서 많은 흥미가 있으리라더라”

안양시장은 1933년 8월 25일, 8월30일, 9월 4일 등 장날을 기해 안양역 광장에서 안양 씨름대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장날부터 추석날까지 장날마다 씨름대회를 개최해 1등에 황소1두, 2등에 광목 1필이 상품으로 수여하는 등 매우 큰 규모였다. 특히 1929년 안양 최초로 전기가 송전(送電)된 곳이 안양시장이 자리했던 시대동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저지대로 홍수가 나면 안양천의 범람으로 침수되기 일췌였고,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유입하며 판잣집들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더욱이 1961년 11월 6일 안양 4동에 시장(현 중앙시장)이 개설되면서 상권이 이전하자 60년 중반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안양역과 시대동 주변이 근대 안양 발전의 시금석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안양 주민은 시대동 시장을 구시장(舊市場)이라 부르고 중앙시장을 새시장이라 불렀다.

안양권은 예로부터 넓은 평야를 가진 지역으로 조선 시대에는 농산물의 주산지였으며, 서울 인근에 있어 농산물과 축산물을 거래하는 교역의 장소로도 발달하여왔다. 조선 시대에는 현재 안양권인 시흥군 내에 방축시장(防築場市)(시흥시 광석동) 산대시장(山袋場市)(안산시 선부동), 수암시장(秀岩場市)(시흥시 수암동, ‘안산시장’으로 개칭됨) 등 3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후 일본강점기인 1924년에 삼거리시(三巨里市)(시흥군 수암면 능곡리), 군포장시(軍浦場市)(안양시 호계3동), 사천시(蛇川市)(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등 3개의 오일장이 형성되었다.

조선 시대 말기에 처음 생긴 ‘방축장시’는 1920년대에 ‘삼거리시’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는 3/8일, 뒤에는 5/10일마다 열렸는데 1930년대 말기에 ‘삼거리장’, 1956년 12월 28일에는 ‘능곡시장’으로 개명하며 명맥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폐시되었다.

1925년 12월 23일에 개설된 ‘군포장시’는 처음엔 5/10일에 열리다가, 1920년대 후기에는 2/7일에 열리는 ‘군포시’로 바뀌었고, 1940년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군포장’이라 하였으며, 1970년대 전기에는 ‘군포시장’이라 불리다가 1980년대 후기부터는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

1926년 1월 현재의 안양1동 지역에는 5/10일 정기시장으로 ‘안양시장(구시장)’이 개

설되어, 1940년대 후반에는 ‘안양장’으로 개칭되었고, 1960년 ‘안양우시장’으로 바뀌었다가, 1960년 9월에 화재로 시장이 전소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안양4동에 ‘안양공설시장’이 개설되어 1970년대부터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50년 전 안양시장(市場)은 그야말로 궁벽한 산골 촌놈을 어리둥절케 한 별유천지였었다. 당시 수푸르지(지금 비산동)에서 안양천 다리(지금 임곡교)를 건너서 철길을 넘어 경수국도까지의 오른편 넓은 터에 안양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마도 당시 안양의 유일한 시장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상전벽해 시장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거나 머슴의 지게꼬리를 잡고 힘겹게 걷고 걸어서 그곳엘 갔었다. 구리고개 언덕에 올라서서 한숨을 내쉬면 멀리 신세계 안양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었다.

구리고개 밑에 운곡 마을을 오른쪽에 두고 산모퉁이를 돌면 제법 곧아진 한길이 뻗어 있었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안양 쪽을 보면 기차가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태평방직 공장의 옆모양이 거대한 톱날처럼 보였었다. 풍차를 거인의 팔로 보고 놀랐던 돈키호테가 그것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왼쪽으로 밤나무가 띄엄띄엄 서 있고, 오른쪽으로는 야산에 큰 바위가 있었던 길 끝에서 산자락을 돌아서면 수푸르지 동네였다. 안양의 문간 동네처럼 가게들도 있고 민가도 여러 채 있었던 마을이었다.

수푸르지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안양시장이 된다. 다리를 건너면서 왼편으로 태평방직 공장, 오른쪽 작은 둔덕 아래는 소시장터였다. 소시장은 장날에만 열리고 여느 날에는 쇠말뚝만 댕그러니 군데군데 박혀있고 쇠똥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다. 소시장 앞길에는 겨울철이면 마차에 뿔나무를 잔뜩 싣고 와서는 구매자들을 기다리는 황소의 워낭소리에 하얀 콧김이 섞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철길 쪽으로 나가면서 닭집이 있었는데, 먼 곳 시골까지 와서 닭을 사다가는 그곳 작은 닭장에 넣고 파는 집이었다. 그 닭집 아저씨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별의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길가에 즐비했었다. ‘아이스케이크’는 작은 통에다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었는데, 그 시장 중간 길가에는 테이블을 몇 개 놓고 그것을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서, 그것을 사 먹으려고 이십 리 밤길을 마다치 않고 걸어갔었던 생각이 난다. 철길과 경수국도(京水國道) 사이에는 간, 천엽, 순대 등을 파는 좌판이 있었고, 철길에 거의 붙어서는 만년필 가게가 있었다. 지금의 볼펜류가 나오기 전 만년필은 당시로써는 문방의 보배처럼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가게 주인은 만년필 진열대 크기만큼의 작은 키의 아저씨였다.

종로의 육의전(六美店)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안양시장이 안양 근동의 육의전이며 시전이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명, 본견과 인견, 모시, 베 등을 파는 피륙전이 있었

고, 그곳에서 한복을 지어 팔기도 했었다. 냉장시설이 요즘 같지 않은 때여서 생선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었고, 염장한 고등어나 아지, 콩치를 파는 가게와 건어물 가게들이 많았다. 과일전이라야 배, 사과와 고장 토산인 감, 밤, 대추 등을 파는 정도였다. 채소류 및 양념류를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사카린’인가를 사서 우물물에 풀어서 마시곤 했었다. 각종 술, 양은 냄비 등 주방 기구 등을 밑에서부터 크기순으로 쌓아놓고 팔기도 했었다. 주로 창호지와 도배지를 파는 지전도 있었다. 여러 모양의 장독을 파는 가게는 시장 뒤편에 있었다.

시장 뒤편으로 들어가면 돼지 내장탕, 순대국 등을 파는 곳, 설렁탕집이 있었다. 뒷골목으로는 막걸리집 몇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가 오면 시장 전체가 검은 흙으로 질퍽거렸는데, 그런 날이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보다 막걸리집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았다. 저녁 무렵 그 막걸리집들이 있는 시장 뒷골목에는 난전(亂田)이 서서 난장판이 되곤 했었다. 당시 막걸리집에는 몇 명씩 작부를 두고 있었는데, 이른 봄 땅에 묻어두었던 배추나 무를 파내서 머슴 지게에 얹어 안양장에 팔러 보내곤 했었다. 머슴은 그때 그 막걸리집에서 낮 술에 취했고, 눈에 들어온 작부의 견인에 포로가 되어서 일 년 새경을 며칠 밤에 작부에게 헌납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시지포스의 바위’를 굴렸었다(출처 :안양광역신문 2010.11.12.자. 정진원, 문학박사, 수필가).

안양 근현대사의 주요 장소와 기억들

안양 풀 - 안양유원지

1920년대부터 ‘안양 풀’은 풍부한 수량과 숲으로 서울시민의 여름철 피서지였다. 1933년 바윗돌과 콘크리트로 둑을 쌓아 성인용과 어린이용 2조의 천연수영장을 만들고 계곡 양쪽에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수영할 수 있는 공짜 천연풀장이 생겼다. 둑에는 청소 등을 위해 물을 빼낼 수 있는 일종의 수문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안양시사에 따르면 ‘안양 풀’은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 안양역장이던 혼다 사고로(本田貞五郎)가 철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면장과 야마다(山田)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당시 1,500원의 예산으로 안양유원지 삼성천 계곡을 막아, 1933년에 개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도 안양유원지 초입 바위에는 일본어로 안양 풀과 공사 책임자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당시 일본인 공무원들과 지역유지들은 이 계곡에 ‘안양 풀’을 조성한 후 일종의 명패처럼 안양 풀 준공 일자와 공사 책임자 이름을 바위에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인다.

안양예술공원 입구 주차장을 나와서 하천 오른쪽 도로를 따라 약 100여 미터 즈음 올라가면 목재 기둥이 끝나는 곳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나온다. 여기서 하천으로 내려가면 바로 정면의 바닥 암반(바위) 옆면에 일본어 표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연석 암반 위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 한자와 일본어를 섞어 ‘安養プール(안양 풀 pool)’이라고 기록하고, ‘소화 7년 8월 준공(昭和七年八月竣工)’이라는 명문과 ‘마쓰모도(松本)’라는 공사 책임자의 이름이 뚜렷하다.

관보를 보면 1966년 여름 피서철인 8월 6일~28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경부선 안양 풀 임시 승강장(시흥~안양역, 안양 풀 입구)이 운영됐으며, 1967년에는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객을 받는 등 안양 풀 임시 승강장은 1969년에도 운영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변원신 씨의 구술로는 “당시 일제가 서울에서 안양 풀 행 철도를 운영했다”고 하니 안양 풀의 유명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주민의 피서지로 이어져 1967년 7월 29일 字 <매일경제>를 보면 ‘안양유원지에는 하루 평균 4만여 명(일요일 10만)의 피서객이 몰리고 서울에서 당일 코스로 40원이면 왕복할 수 있고, 기차도 매 시간 입구에 정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1963년 7월 17일 字 <동아일보>에는 ‘국립도서관이 피서객을 위해 안양유원지 풀

장에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임간문고를 설치해 운영'했으며, 1968년 6월 8일 자 <동아일보>에는 '체신부가 6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양우체국 임시 출장소를 운영'한 기록도 있다.

1976년 3월 25일 자 <경향신문>에는 '안양유원지에 해마다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자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는 기록도 있다.

'안양 풀'의 쇠락의 계기는 1960년대 말 상류에 대형 풀장, 맘모스 풀장, 만안각 풀장 등 인공 풀장이 들어서고, 또 행락객이 버린 오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연하천인 삼성천이 오염되어 자연풀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다.

또 19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입구에 아치 모양의 철 구조물로 '안양유원지'라는 간판이 나붙자, '안양 풀' 대신 '안양유원지'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경기도 관광협회 안양유원지지부가 결성되어 입장 수입으로 유원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여름철이 되면 안양 풀장(現 안양예술공원)으로 놀러 오는 피서객들이 늘어나 안양역에서 하차하는 인파가 많았으나 역에서 안양유원지까지 운행하는 당시 몇 대 없는 미니합승버스의 한계로 줄서기에 지친 피서객들이 걸어서 안양 풀장까지 오가곤 했다.

철도청은 당시 안양유원지 입구(現 전철 전력 분배함 설치 자리)에 임시역을 개설하였으며 열차에서 내린 수많은 인파가 유원지 입구인 1번 국도부터 안양유원지까지 걸어가 는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1960년대 도로가 전국으로 뚫리지 않았을 때 안양 인근 영등포 일대와 수원 등지에서 주말이면 안양유원지에 놀러 오는 관광객이 정말 많았으며 안양유원지 임시기차역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현재 철로변 변전소 자리이며 그 당시에는 거짓말 보태서 임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으며 차로 서울 시흥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주말이면 유원지로 오는 차들로 막혀서 안양유원지에서 여름장사 한철하여 몇 년을 먹고사는 세월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산업도로가 없었을 때이고(1960년 후반에 사업도로가 생김) 1번 국도 현 석수주유소로 해서 영화아파트 사거리에서 유원지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없었고 기차가 지나가면 차단기가 내리는 땡땡이가 설치되어 기차가 지나가면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직원이 24시간 근무한 때가 있었다(출처: I LOVE 안양 사람들 <http://cafe.naver.com/ilovesuksu.cafe>).

그러나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으로, 1973년에는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 및 재건축이 억제되는 특별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발길이 끊긴다.

더욱이 1977년의 유례없는 안양 대홍수는 기존 안양유원지 계곡의 경관을 참혹하게 파괴하고 지나갔다. 이 때문에 안양 풀은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와 자갈, 대형 바윗돌로 메워지고 휩쓸리며 완전히 자취를 감춰서 결국 잊혀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잃어버린 안양유원지는 이후 계곡을 넘칠 정도로 풍부하던

수량마저 줄어들면서 인적이 끊긴 유원지로 전락하였으나 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에 따라 ‘안양예술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문화재와 예술품의 보물창고 유유산업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에 자리한 (주)유유는 1941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제약회사로 1953년부터 의약품 제조 업무를 시작, 1957년 10월 유유산업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1959년 5월 현재의 중초사지 절터 부지에 안양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2년 5월 (주)유유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제천으로 이전하였다.

(주)유유 안에 자리한 건물들은 한국의 손꼽히는 건축가 김중업(金重業)(1922~1988)의 초기작품이자 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건축물로 1957년에 설계되어 1959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사무동 지붕은 역보로 되어 있고 생산동은 캔트리버로 형성된 코너가 삼성천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다.

이와 함께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성년대(造成年代) 명문이 새겨진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와 고려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유형 문화재 제164호 지정된 중초사지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당간지주 옆에는 하단이 4각형이고 상단이 원형으로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으로 조성된 우물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유유산업 뒤편 길목의 큰 바위 위에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각으로 스님이 종루에서 종 치는 모습을 새겨 넣은 경기도 유형 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바위벽 마애종이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삼막골사지와 호암사지 및 장석광사지, 고려 시대의 도요지로서 청자와 더불어 고려백자가 출토되는 것으로 유명한 도요지 등이 산재해 있다.

특히 유유산업 건설 당시 유적조사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청동용두와 사자향로 발 등 유물들이 발굴된 바 있어 추가 발굴에 따른 유물 출토뿐 아니라 문헌상의 안양사 존재 여부 가능성도 점치게 하고 있어 숨겨진 안양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중요성과 안양유원지 주변을 재조명함은 물론 안양문화 발달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7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주)유유 문화재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주)유유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만안구 석수1동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유유산업 이전부지에는 현재 신라 시대 유물인 중초사지당간지주(보물4호)와 고려 시대 유물인 삼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122호)

이 복원돼 있으며, 예전부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려 태조 왕건이 창건했다는 안양사(寺) 터일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었다.

지난 1960년 유유산업이 안양공장을 신축할 당시 시흥군 청년학생단체협의회 회장이었던 그는 현재 공장용지에 이전복원 돼 있는 고려 시대 유물인 삼층석탑을 해체한 회사 측을 상대로 원상복구와 건축허가 취소를 진정했었다. 이에 따라 유유 측은 삼층석탑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했으나 주민 사이에서는 ‘예전의 모습보다 축소됐다, 탑이 하나 더 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었다는 것이다. 정씨가 유유부지에 안양사 7층 전탑이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 유유산업 안양공장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있었고 복원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탑이 하나 더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동국여지승람」의 금천불우조(衿川佛宇條)에 ‘안양사(安養寺)가 있어 그 절 남쪽에 고려태조가 세운 7층 전탑이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때 최영장군이 안양사 7층 전탑을 세우고 왕이 내시를 시켜 향을 보냈으며 승려 천명이 불사를 올렸다’는 기록 등이 옛 안양사의 규모까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고려 시대에 조성된 팔각원당의 부도와 귀부(경기도 유형문화재 93호)가 있으며, 귀부는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글을 짓고 명필 이원부가 쓴 비문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존하지는 않는다.

노적봉과 밤나무

지금의 안양예고 산봉우리는 ‘노적봉’이라고 불렸는데, 1932년에 발행된 조선일보를 보면 ‘전국 부녀자 밤 줍기 대회’가 열렸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안양4동 일대의 대부분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 동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지금의 벽산쇼핑 일대는 ‘좌백울원’이라는 대단위 울원이 조성되어 밤을 주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울목지구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이다.

50-60년대 안양지역경제의 중심 구시장

50년 전 구시장은 그야말로 별유천지(別有天地)였다. 당시 수푸르지(現 비산동)에서 안

양천다리(現 임곡교)를 건너면 철길 너머 경수국도까지 오른편 넓은 터에 구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안양의 유일한 시장이다. 상전벽해, 현재는 시장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구시장에 살아서 중앙통이 내 세상이던 이은섭 씨에게는 아직도 철도길(땡땡땡 차단막), 못으로 칼 만들던 대장간, 석탄 찌꺼기, 태평방직, 쌀 창고, 넓은 마당 등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시장에서 다리를 건너면 오른편으로는 태평방직 공장이 보였고, 왼쪽 작은 둔덕 아래에는 소시장이 있었다. 소시장은 장날에만 열렸다. 따라서 여느 날엔 쇠말뚝만 덩그러니 군데군데 박혀있는, 쇠똥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다. 겨울철이면 소시장 앞길에 마차에 빨나무를 잔뜩 싣고 와서 구매자들을 기다리던 황소의 위낭소리에 하얀 콧김이 섞여 퍼져 나가고 있었다.

철길 쪽에는 닭집이 있었다. 먼 시골까지 가서 닭을 사다가 그곳 작은 닭장에 넣고 파는 집이었다. 이은섭 씨에겐 지금도 닭집 아저씨 얼굴이 선하게 남아있다. 철길 쪽으로는 닭집 외에도 별의별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길가에 즐비했었다. ‘아이스케키’를 작은 통에다 넣어서 짙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었는데, 시장 중간 길가에는 테이블을 몇 개 놓고 그것을 공장도 가격으로 파는 가게가 있어 ‘아이스케키’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다. 호떡을 파는 중국집은 그저 선망의 대상이었다.

철길 너머 안양역으로 가는 경수국도 중간쯤엔 간, 천엽, 순대 등을 파는 좌판이 있었고, 철길에 거의 붙어있는 만년필 가게도 있었다. 지금의 불펜이 나오기 전이었던 당시, 만년필은 문방의 보배처럼 대단한 것이었다. 구시장 안쪽에는 무명, 본견과 인견, 모시, 베 등을 파는 피륙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한복을 지어 팔기도 했다. 냉동시설이 요즘 같지 않은 때여서 살아있는 생선을 파는 가게는 거의 없었고, 염장한 고등어나 아지, 콩치를 파는 가게와 전어물 가게들이 많았다.

또한, 배, 사과 그리고 토산품인 감, 밤, 대추가 고작인 과일전이 있었다. 채소 및 양념류를 파는 가게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는 ‘사카린’을 사서 우물물에 풀어놓고 마시곤 했었다. 그 외에도 각종 술, 양은 냄비 등 주방 기구를 팔던 가게에서는 그것들을 밑에서부터 크기순으로 쌓아놓고 팔았고, 주로 창호지와 도배지를 파는 지전도 있었다. 다양한 모양의 장독을 모아놓고 팔던 가게는 시장 뒤편에 있었다. 시장 뒤편에는 돼지 내장탕, 순댓국을 파는 곳이 있었고, 설렁탕집도 있었다. 뒷골목에는 막걸리집 몇 채가 있었는데 큰 비라도 내리면 시장 전체가 검은 흙으로 질퍽거리곤 했었다.

아픔과 재기: 1977년 7월 대홍수

안양시민에게는 아직도 1977년 대홍수의 기억이 생생하다. 1977년 7월 8일에 경기도 안양·시흥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순식간에 인가가 폐허로 변하고 수백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7월 8일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미처 시민이 대피하기도 전에 주택가를 덮쳐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안양3동 일대는 산사태로 큰 피해를 당하였고, 안양 시내 전역은 온통 물바다였다. 안양대교가 두 동강 나서 주저앉았고 하천이 범람 시내 중앙로가 물에 잠기고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두절되고 도로가 유실되었다.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던 안양유원지마저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1977년 대홍수 때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안양시청을 찾아 피해 상황을 브리핑(77. 7. 10)받기도 했다. 안양은 77수해를 계기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석수, 비산주공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도시 면모를 일신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77년 안양3동 수해지역 현장



77년 7월 대홍수로 무너진 안양대교

일제와 한국전쟁, 미륵의 기억이 교차하는 안양역

안양역이 처음 생긴 것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후 역사의 흐름과 함께 노후화하여 1938년 8월에 공사비 4만 원(당시 금액)으로 건평 88평의 목조 콘크리트 슬레이트 식으로 착공하여 2개월여 만인 10월 21일 정오에 신축 낙성식을 가졌다. 안양역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1월 26일 1.4후퇴 때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 뒤 1956년 6월 17일, 공사비 1천3백여만 원(당시 금액)으로 건평 95평의 역사를 준공하였고, 1974년 8월 15일에는 전철 개통과 함께 역사를 증설하게 되었다.

안양을 대표하는 독립투사인 원태우 지사(1873년생)는 23세 되던 해(1905)인 11월 22일 이토히로부미가 열차를 타고 안양을 지나가게 되자 현재의 관악 전철역 인근에서 돌맹

이를 던져 유리창이 박살 나면서 파편이 이토히로부미의 얼굴 여덟 군데에 박혔다.

이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2일 후인 11월 24일 대한매일신보에 의해서였고, 일본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신문에 보도되는 등 일본열도를 한바탕 흔들어 놓았으며 원 지사는 감금되어 징역 2개월에 곤장 1백 대를 맞고 이듬해 1월 24일에 석방되었다.

원 지사의 유품으로는 생존 시 만든 돌절구 2개와 맷돌 1개가 있는데, 그중 맷돌 한 개는 1990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으며 의거 결행 85주년이자 원 지사 서거 40년 만인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안양역 계단에는 조형물이 부착돼 있으며 안양 자유공원에 흉상이 건립되어 있다.

당시 안양역은 보육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同苦同甲巡禮(1)天涯의 고아 기르기 二十星霜”이란 제목으로 京城保育院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다.

“경성보육원은 대정 9년에 창립되어 동아일보와 동감으로 달로 따지면 손위이다. 기독교회 김병찬 씨가 주도하여 孤兒救濟事業으로 京城孤兒救濟會를 조직하고 이십 명을 수용하고 재단법인 경성보육원이라고 하였다.

소화 11년에는 경부선 안양역전에 안양분원을 설치하여 농사와 목축을 하는 등 사회 생활을 체득게 하였다. 당시 안양분원에는 50명이 있는데 농업실습아동 15명, 보통과 8명, 우치부에 29명이 다녔다(동아일보 1940. 4.1).”

한편, 안양역사는 미륵불이 서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안양 미륵의 기록은 문헌적 기록은 거의 없고 다만 구전으로 전해 오는 설에 의지하고 있다. 안양미륵당 이란 말은 정조가



안양역사(1968년)

아버지능이 있는 화성(수원)을 가기 위해 기획한 園幸乙卯整理儀軌에 궁에서 수원(화성)까지 거동의 안전을 위해 척후소로 24곳의 塘馬를 설치하는 중에 제13 당마소가 安養彌勒堂站이란 말이 있고 口傳에는 정조가 안양을 지날 때 번번이 말이 발길을 떼지 못하자 그 연유가 미륵부처에게 불공을 드리지 않는 탓이라 하여 불공을 드리니 비로소 말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현재의 안양역사 자리는 원래 미나리밭이었는데 역사를 건설하면서 이곳에서 미륵이 발견되어 안양역 앞으로 옮겨놓았다가 광복 직전에 다시 용화사(현재의 본 백화점 자리)경내로 옮겨졌으며 그래서 용화사를 일명 미륵당으로 부르기도 했다.

당시의 미륵불은 1934년 2월 20일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가 안양역 앞에 있던 미륵당을 카메라에 담았으며 최근 민속박물관이 ‘처음으로 민속을 찍다’라는 제목의 전자책(DVD)으로 펴냄에 따라 75년 만에 실체를 드러냈다. 전자책에는 3컷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60~70년대 안양의 다운타운

현재의 안양 1번가에 안양읍사무소가 있었다.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이 당시 안양의 다운타운(down town)으로 ‘안양읍사무소’, 그 옆에 ‘시흥군청’, 군청에서 작은 길을 건너면 맞은쪽에 ‘안양경찰서’가 서로 가깝게 위치한 노른자위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었다. 지금의 ‘안양역 - CGV안양 - 벽산사거리 - 임곡교(수푸르지 다리)’ 사각형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읍사무소 조금 뒤쪽으로는 ‘이형래 의원’이 있었고, ‘제일의원’도 있었다. 또 국도변에는 비교적 큰 양조장이 들어서 있어 거기에서 찢 술밥 냄새가 근처에까지 흘러나오곤 했었다. 국도변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늘어서 있었고 다운타운을 나와서 왼쪽으로 100m쯤 가면 앞에 광장을 가진 안양역이 나왔다. 천안에서부터 통근열차가 다니던 때라 아침마다 일정한 시각이면 서울로 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통근자들이 떼로 몰려들고, 저녁이면 같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수도로를 건너자마자 아주 오래된 중국집 ‘신흥관’이 있었고, 그곳에는 전족(纏足)한 안주인이 있었다. 당시 안양읍 규모로 따지면 이 정도를 안양의 다운타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운타운 서쪽으로는 안양여중, 조금 더 나아가면 안양중·공고가 있었다. 당시 안양에는 방직공장이 많았다. 산학연계의 필요성이 있어서였을까? 안양공고에는 ‘염색과’가

있었다. 군청의 동쪽으로는 안양국민학교가 당시에 큰 규모의 학교로 읍사무소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안양공고 근처에는 금성방직공장, 안양시장 동편으로는 태평방직공장이 있었다. 두 공장은 아주 큰 규모의 공장이어서 여공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되어서 당시 안양에 가면 열은 썩색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여공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안양 최초의 영화관 ‘음민관(현 외환은행 자리)’과 ‘화단극장’에는 당시 현병들이 임검하는 길목이었다. 안양역 앞 중국음식점 ‘순흥관’에 대한 추억도 새록새록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드나들던 ‘폭포수다방’, ‘금강다방’은 단지 차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소통의 장소였다.

박달동 군용지(軍用地)의 슬픈 사연

박달동 군용지에는 이 땅의 식민역사를 포함하여 농민의 아픈 눈물이 배어있는 땅이다. 즉, 안양시 박달동 및 안양동 일원의 23만 677평에 달하는 지역은 귀속농지에 대하여 276명의 경작인들이 300여 년간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 세전농토(世傳農土)였다.

8·15해방 직전 간악한 일본군은 이 조상 전래의 농토에다 군용시설을 한다는 핑계로 강제로 빼앗아 버렸지만, 그들은 등기부에만 육군성(陸軍省)이라 해놓았을 뿐 경작은 그대로 해오다가 조국 광복이 되자 그 땅을 되찾은 우리 농민들은 기뻐하였다. 그러나 일본식민지화의 착취의 앞잡이 동양척식(東洋척식)이 탈바꿈한 신한공사(新韓公司)가 경작료를 강제로 징수하여 갔으며 그 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이 우리의 농토가 일본인 적산(敵産)이라 하여 귀속농지관리국(歸屬農地管理局)에서 경작료를 받아 갔다가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던 것이다. 즉, 1941년 일본 육군성에 의해 군용지로 강제 수용당했지만 경작을 계속해왔고,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

이렇게 분배농지상환곡(分配農地償還穀)을 4개년 분납부(分納付)하고 영농을 하여오던 중 농민에게 분배된 이 농지들을 1960년 5·16 쿠데타 후 불법적으로 그 명의만을 국유로 등기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에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받아 지가상환료(地價償還料)를 4개년분이나 납부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자기들의 유일한 농토재산을 일부 농민들은 부득이 땅값의 몇 배의 돈을 드려 법에 따른 심판을 구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을 제기하였던바, 천만다행 사필귀정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였다(문원식, 성결대 안양학연구소 소장 2006. 6. 23 안양시민신문).

기억과 사진 속 '추억의 맛집'

안양지역에 음식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도 한양 가는 길목인 인덕원 사거리 일대 자리했던 주막에서 당시 오가던 길손에게 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기록은 없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시민축제 당시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양의 대표 음식으로 설령탕을 선정해 과거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다.

자료를 조사한 안양문화원 최태술 위원은 “지금 동안구 평촌에 귀인동이 있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宮中에서 宮人으로 생활하다 퇴역하신 귀인(貴人)들이 살든 곳이어서 귀인동이다. 또 수촌마을에는 내시촌이 있어 두 곳 다 퇴역한 궁인들이 궁중에서 하던 선농제 행사에서 끓이던 설령탕 기술을 알았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설령탕이 일반에게 전해졌으리라 추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설령탕보다 안양 설령탕이 진짜 중 진짜가 아닐까.

1926년생으로 안양3동에서 태어난 이용구 옹은 어린 시절의 풍경을 눈썰미 있게 기록한 [양지마을의 까치소리]에서 1930년 당시 안양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곳에만 겨우 전깃불이 있을 뿐, 그 외에는 밤이면 희미한 석유 등잔불만이 가물거리는 고장으로 하루에 기차가 수회 지나며(단선) 서울~수원 간 경수(京水)버스가 몇 대 지나던 촌락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안양역 건물은 까만 기와지붕에 몇 평 안 되는 성냥갑만한 역사(驛舍)에 대합실과 개찰구와 집찰구뿐이었으며, 역 앞 국도 건너에는 미륵당(彌勒堂)이 있고, 그 주위에 수백 년 된 노향목(老香木) 두 그루가 안양의 내력(來歷)을 다 아는 듯 우뚝 서 있었다. 바로 그 밑에 두 개의 목로주점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이 옹이 말하는 목로주점은 한 장 사진 기록을 통해 시간을 넘어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943년 2월 20일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가 안양역을 지나가다 촬영했던 사진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촬영하고자 했던 안양역 광장이 존재했던 미륵당이었다. 그가 남긴 3장의 흑백사진 중 1장의 사진에는 한자로 적힌 안양음식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 기억으로는 안양역 주변과 구시장, 새 상권이 형성된 새시장(중앙시장) 일대에 본격적으로 다방, 양화점, 병원, 양복점들과 함께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일제 강점기부터 피서지로 유명했던 안양유원지에도 음식점들이 성업했었다.

안양을 느끼다

길과 하천

만안의 길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一大路 의주로, 二大路 경흥로, 三大路 평해로, 四大路 동래로, 五大路 봉화로, 六大路 강화로, 七大路 수원別로, 八大路 해남로, 九大路 충청수영로, 十大路 통영別로 불리는 옛길의 지명이 붙어있다.

특히 옛길은 신경준의 도로고에는 전국 6대로, 김정호의 대동지지로에는 9대라고 적고 있지만, 대동지지에서는 정조의 능행로를 ‘수원별 7대로’라 별도로 적고 있어 정조에 의해 안양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길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만안의 주된 길은 누가 뭐래도 중앙로이다. 그러나 조선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 능을 참배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만안로가 안양의 역사나 그 이후 안양의 근현대 과정에서 중요한 동맥의 역할을 한 주된 도로이다. 원래 조선 시대 국도는 과천-인덕원-호계동 길이었는데 정조대왕이 화성에 가면서 현 만안로가 만들어진다.

일제의 의해 건설되긴 했지만 1902 경부철도의 개설과 안양역사가 설치되면서 만안에 인구 집중경 안양의 인구와 산업을 통한 성장을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안양역-시대동-임곡동을 잇는 길은 조선 시대에도 있던 길로 만안을 동서로 소통하는 길이였다. 박달로는 조선 시대 때 인천과 교류하는 길이였으며 시대동을 거쳐 임곡-비산-관양-과천가는 길이다. 현재의 중앙로는 1953년 안양읍 당시 개설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안양 1번가가 조성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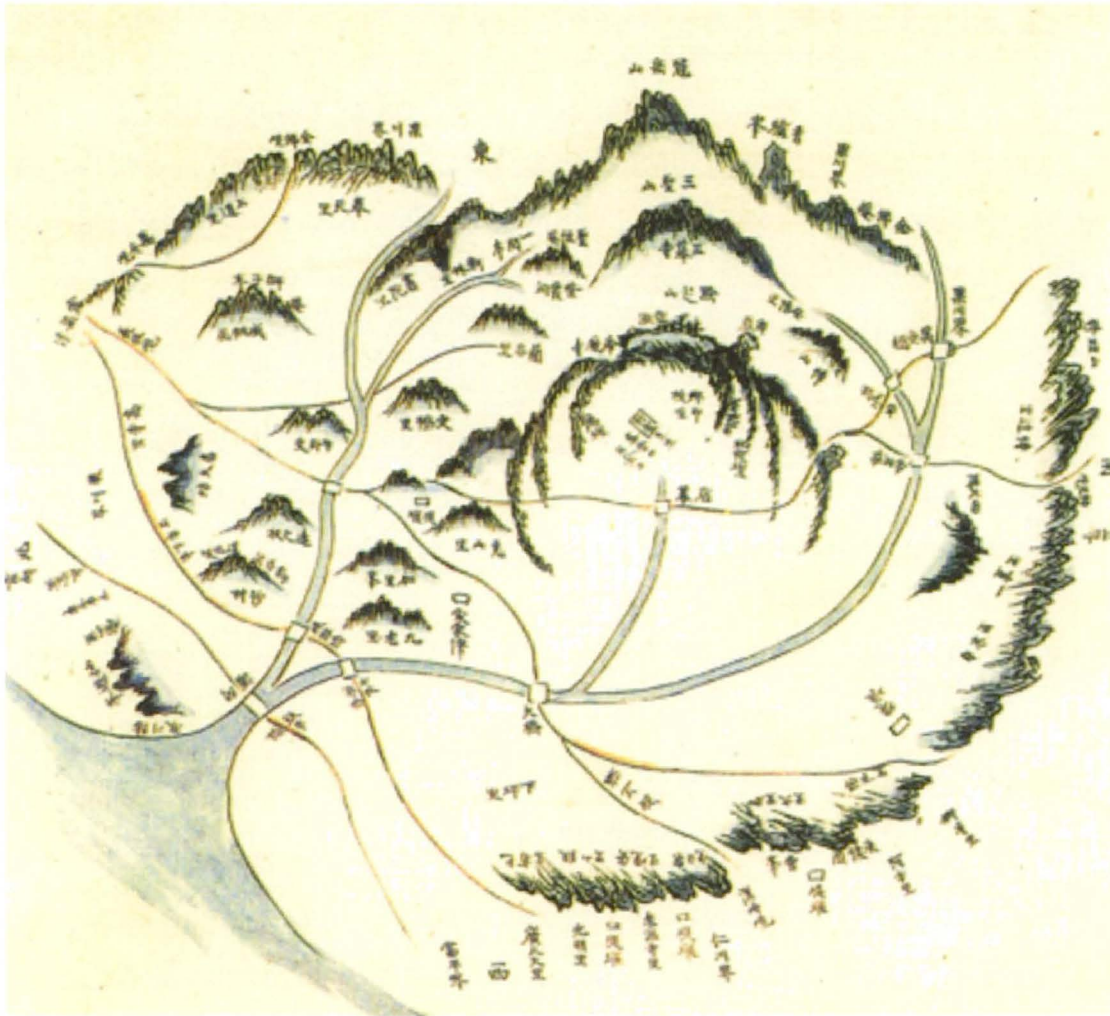
호행의 길

정조의 능행로인 七大路 수원別로는 창덕궁을 출발 수원까지 100리 길이며 송례문(崇禮門)(남대문)-노량진(露梁津)-문성동(文星洞)-시흥(始興)-안양행궁(安養行宮)-사근평행궁(肆觀坪行宮)-지지대고개-노송지대-수원행궁(水原行宮)-건릉(健陵)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특히 정조의 능행로에 나오는 옛 안양지역의 지명을 살펴보면 염불다리-만안교(萬安橋)-안양참발소(安養站發所)-장산모퉁이-군포천-서원넛다리-청천평-서면천교-원동내-사근평행궁(肆觀坪行宮) 등이 나온다.

또한, 七大路 수원別로에 나오는 지명중 안양행궁(安養行宮)과 안양참발소(安養站發所)는 현재의 안양시 안양1동 674-29(안양 1번가) 아카데미극장 일대이며, 사근평행궁(肆觀坪行宮)은 현재의 의왕시 고촌동사무소, 원동내는 과천시 광주현 경계를 말한다.

삼막천 만안교는 효성이 지극했던 조선 제22대 정조(1776~1800 재위)가 억울하게 참화를 당한 생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갈 때 참배 행렬이 편히 건너도록 축조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홍예석교이다. 정조는 양주에 있었던 사도세자의 묘소를 정조 13년(1789)에 화산(화성시 소재)으로 이장한 후 1800년 사망할 때까지 12차례에 걸쳐 참배하였다. 정조가 만안교를 지난 것은 1차 능행부터이다.



경기 읍지 시흥현도 (1872, 고종 9년)

이 지도는 전국지도 편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사용하는 지명이 많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정조대왕의 능행길에 만안교가 있으며 아치형으로 그려있어 흥미로움을 주고 있다.

이 다리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 왕의 행렬이 지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기관찰사 서용보가 돌로 대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조 19년(1795)에 당시 경기관찰사 서유방이 왕명을 받들어 3개월간의 공역 끝에 길이 35.5m, 너비 8m에 7개의 갑문을 설치

하고, 그 위에 화강암 판석과 장대석을 깔아 축조하였다. 원래 만안교는 현재 위치의 남쪽 460m 만안로와 석수로 교차지점에 있었으나, 국도 확장 사업으로 1980년 8월에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다리 앞에는 서유방이 글을 짓고, 조운형이 쓴 만안교비가 있어 그 내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정조는 길 위의 군주라고….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깨우치듯 정조는 길에서 백성을 만나고 조선을 생각했다. 정조에게 길이란 단순히 걷기 위한 도로가 아닌 억조창생의 시작이었다. 정조의 길 떠남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길 위에서 만난 여리고 슬픈 질곡의 백성을 보듬기 위함이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정조는 능행차를 통해 국왕의 지위를 강화하고 백성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조선 대부분의 국왕이 연중 1회 정도의 능행차를 추진함과 달리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66회의 능행차를 단행하였고, 행차 중 상언(上言)과 격쟁(擊諍) 3천355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정조는 선대왕의 능을 참배하고 도성으로 돌아오는 도중 자신을 호위한 군사들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훈련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국왕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조선을 그 어느 사람도 침범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백성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자신의 국왕 정조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능행의 절정이 바로 혜경궁의 회갑연을 치르기 위한 8일간의 화성행차였다.

1795년 윤이월 9일. 드디어 새벽의 정적을 깨는 종소리와 더불어 창덕궁 돈화문(보물 제383호) 앞은 융복을 차려입은 정조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긴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유수부로 행차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행차를 1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었다. 그 길 이 지금의 1번 국도이다. 원래 길은 지금의 남태령을 넘어 과천과 인덕원을 거쳐 가는 ‘과천길’이었으나 노량진에서 시흥을 지나 군포와 의왕 등을 거쳐 지지대고개로 통하는 시흥길을 새로 만들었다.

정조는 돈화문을 나와 종루 앞의 큰길로 향했다. 지금의 보신각 종 앞으로 행차한 것이다. 그리고 대광통교와 소광통교를 지나 승례문(국보 제1호)을 지나갔다. 승례문을 지나 현재의 서울역 앞을 거쳐 노량진으로 향한 행차는 정약용이 설치한 그 유명한 배다리를 건너 노량행궁에 도착하게 된다.

정조는 배다리를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 주교사(舟橋司)라고 하는 특별 관청을 설치하였는데 그 자리가 바로 노량본동의 동사무소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면 아직도 노량행궁의 중심 건물인 용양봉저정(시도유형문화재 제6호)이 초라한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과거 정조시대 노량행궁은 단순히 정조의 수원 행차 시에 점심 수라를 들기 위한 주정소만이 아닌 노량 일대의 조운선을 관장하고 상인들을 통제하던 막강한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의 변화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건물은 모두 사라지고 용양봉저정 하나만 남아 정조의 옛 자취를 느끼게 할 뿐이다.

첫날 점심 수라를 이곳에서 마친 정조는 6천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풍도 당당하게 시흥행궁에 도착하였다. 현재 시흥행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흔적도 희미하다.

정조의 행차길은 시흥행궁을 뒤로하고 현재의 1번 국도를 그대로 따라 수원으로 내려가다 관악 전철역 옆의 만안교(萬安橋)(시도유형문화재 제38호)를 만나게 된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해 새로운 시흥대로를 만들면서 안양천을 건너기 위해 만든 만안교는 원래 관악전철역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전철역을 만들면서 안양천의 원래 위치에서 약 200여미터 아래로 이동하여 다시 축조되었다.

만안교의 글씨는 일반적인 글씨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무엇인가 튀어 올라가는 이 글씨체는 정조시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유한지(兪漢芝)의 글씨로 만안교 아래로 흐르는 장쾌한 물의 역동성을 표현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통해 무수히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것은 정조시대 문화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정조의 배려가 아닌가 한다.

만안교에서 안양전철역 앞의 안양 1번지를 지나 군포사거리로 그리고 다시 1번 국도를 지나게 되면 정조가 둘째 날 점심을 먹었던 사근행궁에 도착한다. 물론 사근행궁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출처: 백성을 위한 화성행차 그 길을 찾아서, 김준혁, 수원시 학예연구사)

시흥길이 열린 것은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正祖)의 원행(園幸) 결과다. 정조는 과천과 시흥에 각각 행궁을 설치하고 사근평(肆覲坪)에는 창사(倉舍)를, 안양참(安養站)에는 발사(撥舍, 즉驛舍)를, 노량(鰲梁)에는 진정(鎭亭)을 두어 원침 배알 때 연로(驛路)가 머물 곳을 마련하였다. 현재 의왕시 고천동(古川洞) 동사무소는 사근행궁(肆覲行宮)이 있던 자리인데 1989년에 의왕시로 독립할 때 시청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안양역 앞 안양행궁지는 일본 강점기에 서이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안양옥이라는 음식점으로 개조되었고 이제는 폐가가 되었다. 안양참, 또는 안양미륵당참(安養彌勒堂站)의 위치도 지금의 안양역 앞인데 1940년대에 그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섰다. 만안교(萬安橋)와 표석 또한 홍수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약 200m 위로 이동하였다.

이처럼 이제는 복원이 힘들어진 시흥길을 1795년에 있었던 원행 당시 정조임금의 거동을 통해 느껴보자. “비가 올 것을 우려하여 오전 6시에 시흥 행궁을 일찌감치 출발하였는

데 임금의 군복을 갖추고 말을 타고 자궁, 즉 혜경궁 홍씨는 가교를 탔다. 대박산(大博山) 별판을 지나 안양참(安養站) 앞길에 이르러 잠시 머물러 미음 다반을 든 다음 장산(長山) 모퉁이를 지나 청천(淸川) 들에 이르러 임금이 하마하여 자궁의 어가 앞에 나아가 문후하였다. 이어 원동천(院洞川)을 지나서는 사근참(肆覲站) 행궁에 나아가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1사(舍), 즉 50리가 못되니 때에 맞추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출처: 정승모, 다시 보는 경기 산하, 경기문화재단)

정조의 화산능행은 춘행(春幸)과 추행(秋幸)으로 나누어져 이장 이듬해(1790)부터 정조가 사망한 1800년까지 12차례에 걸쳐 행해졌다. 보통 춘행은 사도세자의 탄생일이 있는 1월 21일을 전후하여 행해졌는데, 농번기를 피하여 농민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정조의 배려 때문이기도 하였다. 추행은 8월 삭망 사이에 거행되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춘행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조의 능행로는 제 1 차(1790)부터 제 5 차(1794)까지는 노량진에서 남태령을 넘어 과천행궁에서 1박을 한 후, 인덕원, 호계동을 거쳐 고천의 사근창주필소에서 점심을 먹고,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을 통과하여 현릉원에 이르는 노정을 택했다.

그러나 이상의 노정이 다리가 많고, 남태령과 같은 험준한 고개가 있어 길을 닦고 쓰는 백성의 고초가 심한 것을 정조가 근심하여 민폐를 줄일 방도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자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노량진에서 시흥을 거쳐 안양동과 호계동을 거쳐 고천으로 넘어가는 금천로정(衿川路程)이 길이 넓고 평탄하여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자 정조가 윤허하여 도로의 정비에 착수하여 당년(1794)에 공사를 끝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능행을 했던 8차(1797)의 추행에서 김포 쪽을 택해서 간 것을 빼고는 6차례에 걸쳐서 금천로를 이용했다. 금천로정을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부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 김 상로의 형 김 약로의 무덤이 과천시 찬우물에 있는 관계로 이 무덤을 피하고자 개척한 것이 바로 금천로정이라는 설도 설득력이 있다.

이리하여 금천현의 치소에는 임금의 숙박을 위하여 행궁(行宮)이 설치되었고, 안양에는 쉬어갈 것에 대비하여 안양주필소가 마련되었으며 물살이 센 안양천(현 삼성천)에는 만안교(萬安橋)가 가설되었다. 이듬해에는 금천현감을 현령으로 승격시키고, 읍호를 시흥(始興)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부터는 금천현을 시흥현으로 금천로를 시흥로로 부르게 되었다(출처: 정조의 화산능행과 안양(1), 문원식, 안양학연구소 소장).

수리산 병목안과 담배촌길 : 종교 - 일제수탈 - 군사의 길

영성의 길

병목안을 거쳐 담배촌에 이르는 길은 안양지역 천주교 역사의 아픔이 배어 있는 순교와 박해의 길이다. 안양지역에 천주교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뿌리 내려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830년대 초 최경환 일가가 처음으로 안양 수리산으로 들어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수리산에 들어와 살던 최경환 일가와 교우촌을 이루며 살던 천주교 신도들은 공소를 세우고 기해박해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옮겨 살다 난 이후에 다시 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공소는 지금의 수리산 '최경환 성 프란체스카 성지'가 되었다.

수리산성지는 최경환(프란치스코, 1805~1839)성인께서 기해박해 중이던 1839년 9월 12일 옥사 순교하신 후에 묻히신 유서 깊은 곳이다. 2000년 은총의 대희년과 2001년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의 해를 지내며 전대사의 은혜를 받는 순례지정성지이기도 하다. 성인께서는 장남인 최양업(토마스) 신부님을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제로 하느님께 바치셨다.

1970년대까지도 수리산 자락의 뒤편이 마을과 좁은 입구로 가려진 병목안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변이 개발되어 흔적이 많이 사라졌다. 수리산 교우촌의 중심지인 뒤편이는 본래 아무도 살지 않던 곳인데 신자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새말이라고 불리었



수리산 성지 길

고 담배촌이란 지명이 탄생한 것도 이때 이즈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경환 일가와 교우들이 수리산 기슭의 땅을 일구어 담배농사로 생활터전을 닦으면서 붙여진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배촌은 모방 신부가 방문한 적도 있으며 최경환의 장남인 최양업 신부가 신학생으로 간택 받은 성소로 최경환 성인을 탄생시킨 곳이다.

최경환 성인의 아들 최양업은 김대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신부가 된 최양업(토마스)의 아버지이다. 최양업 신부의 흔적은 충북 진천 백곡의 배티성지에서 찾을 수 있다. 안양 수리산에서 진천 백곡까지의 길은 고난과 박해를 뚫고 천주교의 교리를 전차하기 위한 순교의 길인 셈이다.

진천 배티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중요한 성지로 박해를 피해 숨어 들은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1830년대에 교우촌이 형성되었으며, 1850년에는 프랑스 선교사 다블뤼 성인 주교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인 조선교구신학교가 자리를 잡았던 곳이다. 1866년의 병인박해 때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배티와 인근 지역에서 탄생하여 순교자 묘에 안장되었고 1997년 최양업 신부 기념 성당이 건립되었다.

일제 수탈의 길

병목안은 현재의 안양9동(안양3리) 프라자아파트 끝부터 창박골로 갈라지는 삼거리(병목안 삼거리라)까지를 말한다. 병목안은 문자 그대로 병모가지 안쪽 같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양지 초등학교 입구 다리부터 시작되어 통통한 병 모양으로 뻗어 오르다가 좌로는 채석장에서 우로는 창박골 입구 삼거리슈퍼까지의 동네를 병목안이라 했다.

삼거리슈퍼를 지나 담배촌 가는 길로 접어들면 창박골에서 흐르는 작은 개울을 건넌다. 수리산 한증막 지나서 옛 ‘문둥바위’부터는 담배촌길이다. 물론, 담배촌도 안골, 굴뚝골, 햇골, 송챙이골, 담배촌, 작은골, 큰골, 웃말 등으로 마을이 또 나뉜다.

안양9동 마을금고 건너편 외환은행 간이점포가 있는 건물까지 예전에는 산자락이 드리워져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는 다리가 두 개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병목안의 병모가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당초에는 사람이 다니던 나무다리였다가 나중에 우마차와 트럭이 다니던 시멘트다리로 발전했는데 그 방향이 지금의 외환은행 간이점포 방향이었고, 다른 하나는 철교(철길)로써 현재의 도로자리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차가 다닌 다리 위로 차와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병목안 다리를 건너 안양 내려가는 길은 지금의 새동산약국과 찬

스 게임장 사이로 난 길이었다. 대성목욕탕 지나 지금의 프라자아파트에서 담을 따라 좌로 굽으면 기찻길과 만나게 되고 이 길은 기찻길과 나란히 안양역까지 내려갔다.

두 개의 다리가 있던 곳부터 시작되는 병목안길의 철도는 경부선 철도공사에 사용할 쇄석을 깨낼 목적으로 눈독을 들인 일제에 의해 개설되었다. 철도공사에는 수많은 자갈이 쓰이는데 경부선 철길에 깔 자갈을 생산 공급하던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전국각지의 슬프고 고단한 사람들이 부평초처럼 떠돌다 모여들면서 이루어진 동네가 바로 병목안이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장비(크락샤, 함마드릴, 덤프트럭 등)가 없었으므로 망치 하나로 바위를 깨고 또 깨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서린 장소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난리가 났다. 이상하게 길이 넓어져 있었고, 넓어진 길은 딱딱하게 다져져 있었고, 다져져서 이상하게 넓어진 길바닥에는 주먹만 한 자갈들이 깔려있었다. 못 보던 차(군덤프, 군불도저, 군포크레인, 군페이로다, 지프 등이)가 마냥 신기했다.

위문편지에도 썼던 씩씩한 국군 장병 아저씨도 있었고, 새까만 미군도, 하얀 미군도 있었다. 미군을 보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다. 키가 무지 크다는 것, 뚱뚱한 것, 팔에 누런 털이 많이 났다는 것,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골라 한다는 것이 그때 받은 첫인상이었다(출처 : 임부성, <http://cafe.daum.net/susasa>)”



병목안 채석장으로 가는 철길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담배촌 다니던 길은 마차가 겨우 지날 정도의 좁은 오솔길 정도였다. 이 땅을 강점한 일인들이 대륙침탈을 위한 교두보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유린한 후 대량운송수단인 철도가 필요해서 경부선을 개설하면서 이곳 채석장의 자갈들을 경부선에 깔리게 된다. 말하자면 수리산의 정기가 경부선에 깔렸다는 이야기가 된다.

군사의 길

일제로부터 독립 후 수리산 꼭대기에 석수동 미군부대에서 파견 나온 작은 통신부대가 지금의 공군부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군 통신대가 들어오면서 트럭 한 대가 다닐 정도의 길을 지금의 2차선으로 넓힌 건 이때였다. 미군 통신대가 떠나자 한국 공군 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6.25 한국전쟁 1,4후퇴 때는 중공군 일개 사단이 이 길을 통해 수리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수원 비행장 부근에서 미군이 때린 곡사포에 중공군 사단 병력이 거의 전멸하고 후퇴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다(출처 : 임부성, <http://cafe.daum.net/susasa>).

안양유원지 길: 문화와 위락의 길

지금의 석수1동과 안양2동으로 구분하는 삼성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유산업에서부터 안양사 주변 거북골에 이르기까지 5000년 한국문화가 누적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고대 신앙생활의 유적으로서 그 문화적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만안교(거북다리)에서 시작하여 거북바위(광석바위) - 안양사 귀부(거북형상) - 거북골 -삼귀자바위로 이어지는 길은 거북이의 행렬이다. 염불암에서 삼막사까지 이르는 길에는 장수바위, 미륵장군 등 거석문화의 흔적들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

바위유적은 염불암에서 정점을 이루고 다시 삼막사의 남근바위, 여근바위, 삼귀자바위, 마애삼존불로 이어진다.

(주)유유 안에 자리한 건물들은 한국의 손꼽히는 건축가 김중업(金重業, 1922~1988)의 초기작품이자 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건축물로 1957년에 설계되어 1959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사무동 지붕은 역보로 되어 있고 생산동은 캔트리버로 형성된 코너가 삼성천의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건축학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다.

일제 시대인 1920년대부터 이 계곡의 ‘안양 풀’은 경성 거주 일인들을 위한 여름철 피서지였다. ‘안양 풀’은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 안양역장이던 혼다 사고로(本田貞五郎)가 철도수입 증대와 안양리 개발을 위하여 조한구 서이면장과 야마다(山田) 시흥 군수

및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당시 1,500원의 예산으로 안양유원지 삼성천 계곡을 막아, 1933년에 개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여름철이 되면 안양풀장(현 안양예술공원)으로 놀러 오는 피서객들이 늘어나 안양역에서 하차하는 인파가 많았으나 역에서 안양유원지까지 운행하는 당시 몇 대 없는 미니합승버스의 한계로 줄 서있기에 지친 피서객들이 걸어서 안양풀장까지 오가곤 했다.

이런 불편이 계속되자 1966년 당시 철도청은 당시 안양유원지 입구(현 전철 전력분배함 설치자리)에 경부선 안양 풀 임시 승강장을 개설하였으며 당시 열차에서 내린 수많은 인파가 유원지입구 1번국도에서부터 안양유원지까지 걸어가는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산업화의 길

사진 가운데 공사 중인 현재의 중앙로가 보인다. 사진 하단좌측의 건물이 만안초등학교인데 그 앞으로 수암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 도로개설 전이다. 사진 좌측의 길은 구 안양대교에서 - 안양역 - 명학역으로 이어지는 구도로인 만안로이다. 이 길로 정조대왕이 부친인 사도세장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왕래하였다. 이 길을 따라 주점동과 같은 지명이 탄생하게 된다. 좌측 연기가 나는 곳은 한국제지 공장이다. 이곳은 현재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1968년 안양중앙로(1)

아래 사진은 1968년 당시 현재 안양여고 사거리의 모습이다. 북서쪽으로 난 도로는 박달로이고 사진 가운데를 좌우로 가르는 도로가 현재의 중앙로 공사현장이다. 사진 중앙부 좌측의 큰 공장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장 터로 당시 금성방직자리로 현재는 대농주택단지이다.

아래 사진은 중앙로 현재 벽산사거리 부근이다. 석수동 구근에 비해 이쪽은 중앙로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정리된 상태이다.



1968년 안양중앙로(2)_현재의 안양여고 사거리



1968년 안양중앙로(3)_현 벽산사거리

모임과 나눔의 길: 안양역과 버스정류장

안양역, 기차통학 길의 추억

세월이 녹아있는 흑백사진 속에는 2층 건물로 보이는 한 건물 앞에서 엮갈려 세운 깃대에 매달린 두 장의 일장기를 배경으로, 당시 교복차림을 한 29명의 단체사진이다.

사진 하단에는 ‘16년 2월 11일 안양통학생 일동’이란 쓴 글씨가 새겨져 당시 이들 통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한 시기를 알 수 있다. 소화 16년은 서기 1941년으로 당시 2월 11일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1941년 12월 8일)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반발한 직후로 일제의 침략이 중국과 동남아를 뒤흔들고, 일제 군부의 세력과 기세가 극에 달해 한반도 곳곳에서 수탈이 극심하게 자행되던 시기이다.

문학박사이며 수필가인 정진원 선생은 기차통학의 추억을 이렇게 적고 있다.

“천안역에서 출발해서 안양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통근(학)차’가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처음에는 증기기관차가 머리였었고, 나중에는 디젤기관차가 되었으며, 지금은 그마저

도 볼 수 없게 된 전철의 시대이다. 정해진 시각이 되면 육중한 증기기관차가 수증기 물방울 뿌리며 기적을 올리면서 안양역으로 들어왔다. 서울 학생들의 등교와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안양역 아침 통근차의 출발 시각은 오전 7시경이 아니었나 싶다. 통근차를 놓치게 되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므로 통근차가 안양역에 들어올라치면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역으로 달려가곤 했었다. 저녁때가 되면 두 번인가 천안행 통근차가 있어서 아침 역의 그 사람들을 토해내듯이 내려놓고는 미끄러지듯이 떠나가곤 했었다.

천안에서 출발한 통근차는 성환, 평택, 오산, 병점, 수원, 부곡, 군포, 안양, 시흥 등 역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차례차례 싣고 서울역으로 달렸었다. 영등포, 노량진, 용산에서 내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노량진에서 내려 한 20분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었다. 달리는 기차 안은 언제나 악동들의 전국시대였다. 자기 동네 역의 명예를 걸고 싸움을 벌여 길어야 두 시간여 치외법권 지역 안의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전사들이 있었다. 어떤 때는 평택파가, 그다음은 부곡파가, 그러다가는 시흥파가 패권을 잡았었다. 돌맹이를 날리며, 유리창을 부수며 적군을 대하듯이 전의가 충천했었다. 기차 안에는 이른바 잡상인들이 들끓었다. 바늘장수, 오징어와 땅콩장수, 각종 약장수 등의 장광설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출처 : 안양광역신문 2010.11.5.자. 정진원, 문학박사, 수필가)."

한편, 유한공고 8회 졸업생인 고상호 씨도 기차통학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형님 한 분이 안양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어 당분간 같이 기거해야 할 형편이 돼서 나는 형님의 집에서 통학을 하게 되었다. 형님이 살던 곳은 안양3동 일명 병목안 이라고 불리는 수리산 밑의 새마을주택단지라고 하는 국민주택단지였다. 그곳은 안양역에서 20분 정도 걸어 나와야 한다. 지금은 모두 이전하여 없어졌지만, 중소형 공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안양천 변에는 판자촌이 딱딱딱 두꺼비집처럼 붙여지어져 있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 많던 판자촌은 1977년 안양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수해로 인하여 모두 철거되었다는 이야기를 훗날 듣게 되었다. 어둠이 채 걷혀지지 않은 안양역사의 플랫폼에는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를 이루며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장관을 이루었다.

안양에서는 나와 기계과 정달영군 그리고 7회 기계과 강세현 선배, 박상엽 선배 그리고 이미 천안에서 통학했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6회 선배 한 분 그리고 성환인지 병점인지에서 다니던 전기과 황성하군, 평택에서 전기과 구재정군, 수원에서는 기계과 하연수군, 전기과 김영호(방영호)군, 군포역에서는 건축과 천준영군, 시흥역에서는 자동차과 김유인군, 7회 기계과 유선호 선배가 탔다(출처 : <http://cafe.daum.net/youhans/>, 유한8회 고상호).”

안양이 배출한 김대규 시인은 안양역을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나의 고향은
급행열차가
서지 않는 곳.

친구야,

놀러 오려거든
삼등객차를
타고 오렴.

출처 : 엽서 (김대규)

이 시에 대해 이시영 시인은 안양의 추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시의 제목처럼 경쾌하며 어떤 점에선 젊음의 치기까지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러나 ‘

급행열차' '삼등객차' 같은 복고 풍물이 등장해서인지 낭만적 열기 또한 확 끼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스텔지어도.... 이 시의 행간 어딘가에 선 채 사라져 가는 급행열차의 뒤통무니를 아쉬운 듯 바라보고 있을 소년의 모습이 떠오른다. 결핍과 서지 않는 기적소리는 뒷날 소년을 시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뜻밖에도 시인의 고향은 안양. 그는 그곳이 어리숙한 포도밭이었던 때부터 요란한 위성도시로 변한 오늘까지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안양역전 버스정류장

1968년 당시 안양역전 버스정류장은 경향 각지에서 모이고 또 흩어지는 모임과 나눔의 장소였다. 이것은 안양역의 개설과 맞물린다. 안양역사 앞 좌측에는 안산, 고잔 행 버스들이 주차했던 정류장이 있었다.

한쪽에는 여름철이면 안양역과 안양유원지를 오가는 임시버스도 운행되고 또 다른 옆에는 합승용 시발택시가 몇 대 서있기도 했다. 이 자리는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또 지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들이 주차하는 사실상의 버스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다.



1968년 안양역전 버스정류장

안양천의 역사 : 오염과 훼손, 복구와 복원

들임과 합침

안양천의 지명은 안양 시가지 앞을 지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양을 중심으로 그 뒤로는 수암천이 지나고 앞으로는 안양천이 흐르기 때문에 안양천을 앞개울 이라 하고, 수암천을 뒷개울 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갈천(葛川)이라고도 불렀다.

조선 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 금천현 편에는 대천이 현의 4리에 있으며, 과천현의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양천현의 철곶포로 흘러들어 간다고 하여 대천이라 기록하고 있고, 과천현 편에는 현의 남쪽 14리에 인덕원천이 있고, 현의 서쪽 19리에 학고개천이 있다고 하여 안양천의 상류를 인덕원천, 중류지역을 학고개천 으로 각각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영조 때 편찬된 여지도서 과천현 편에는 안양천(安陽川)이 현의 서쪽 20리에 있는데 사근천과 인덕원천이 금천에서 합류하여 흘러간다고 기록하고 있어 오늘날 쓰는 안양천(安養川)의 한자와 다른 글자로도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에는 기탄으로 표기하고 있다. 결국, 안양천이 대천 인덕원천 학고개천 안양천 기탄 등 다양하게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안양천은 원래 큰 하천이란 뜻에서 ‘대천(大川)’이라 불리다가, 고려 태조가 건립한 ‘안양사’라는 사찰의 이름을 딴 ‘안양천’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안양이라는 말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가다듬어 기른다는 뜻으로, 불가에서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청정한 ‘극락정토’, ‘극락세계’를 말한다. 안양은 이처럼 극락같은 세상을 바라는 선조들의 기원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흐르는 안양천은 태조가 염원하는 극락세계의 풍경을 그려내듯이 물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근세에 이르기까지 천렵장소로, 빨래와 목욕터로, 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모든 생명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안양천 하류인 목동 일대는 말 방목장으로 유명할 만큼 갈대와 목초가 잘 자라는 곳이었으며, 한강과 만나는 하구는 경기 이남지역, 인천과 수원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였다(출처: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길이 34.8km. 삼성산(三聖山)에서 발원하는 하천과 백운산(白雲山)에서 흘러나온 학의천(鶴儀川) 및 군포시를 흐르는 산본천(山本川) 등의 지류가 안양시 석수동(石水洞)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흐른다. 서울을 지나 목감천과 도림천이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른다. 안양시와 서울시의 경계에서부터 한강 합류점까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다.

물길은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를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삼성산의 안양사에서 발원하였다 하여 안양천이라 부르며, 조선 시대에는 대천(大川)·기탄(岐灘)이라고도 하였다.

하천의 유역면적은 286km², 하천연장이 32.5km의 하천으로 학의천, 삼성천, 수암천, 삼막천, 왕곡천, 오전천, 산본천, 시흥천, 목감천, 도림천 등 대소 지천이 있다. 안양천 상류 지역에 고도가 높은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등 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안양천유역에는 경기도의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와 서울의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유역 내의 인구는 약 329만 명이다.



안양천의 수계도

안양천의 변화 과정

1910년경의 안양천의 모습은 상당히 굴곡이 있는 사행하천이었으나 토지이용증대,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정비로 현재의 하천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1977년 7월 8일 발생한 안양천 대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1978년 안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함에 따라 현재의 하천모습을 이루었다.



1960년대 안양천 풍경



70년대 안양천 석수3동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시대에 유린당한 안양천

안양 시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흘러가는 안양천은 뱀이 기어가는 모양으로 굴곡이 심한 사행하천이었다. 이렇게 유유자적 흐르던 안양천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다. 철도가 들어서면서 근대적 산업시설을 갖춘 공장이 들어섰고, 안양은 점차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1930년 조선직물이 들어선 이후 조선견직, 제일방직, 금성방직, 삼덕제지 등이 설립되면서, 안양은 섬유와 제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자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기계, 전기전자산업, 화학 등의 공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섰고, 군포공단, 안양공단, 구로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공장이 속속 지어지고 노동자가 모여들면서 천변 일대 지역은 빠르게 변화했고, 이와 함께 안양천도 달라졌다. 수많은 공장들은 안양천의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했고, 공장들은 용수를 공급한 발원지로 다시금 공장의 폐수를 흘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안양천은 사람들과 멀어지며 물과 강이 지닌 상징과 이야기, 신성성의 지위를 잃고 단지 삶을 위한 기능적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1959년 5월 31일 자 조선일보에는 “삼덕제지공장 주변 일대 우물에 유독 폐수”라는 기사가 실렸다.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3만여 주민이 음료수로 삼고 있는 우물물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성 폐수에 오염되었다”는 기사였다. 또한, “하루 수십만석의 물을 써 버리는 공장들 때문에 우물을 깊이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기사는 산업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안양천이 이미 오염되고 말라가는 사실, 그리고 물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을 떠나, 특정 산업에서의 생산력을 올려 주는 주된 도구가 되어 가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록 산업화를 위해 자연의 파괴를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자연과 사람은 시대와 환경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60년대 안양천 뚝에는 누르스름한 종잇조각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주변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에 종이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인근 주민이 물을 막고 폐지 찌꺼기를 걸러내어 김처럼 체에 떠 놓은 것이었다. 뚝에 펼쳐진 이 누런 마분지 풍경은 물이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잃었을지라도 인근 주민의 생계를 이어주던 자연의 힘이었으리라.

공장의 난립과 폐수 방출은 더욱 극심해져 인근 마을까지 폐수가 유입되어 못자리가 썩는 등 하천과 마을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졌다. 1968년 최초로 하천 오염도 조사가 실시된 이후 70년 측정한 오염치에서 안양천(672ppm), 청계천(700ppm), 우이천(946ppm) 세 곳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75년 8월 26일 자 경인일보는 “각종 폐수가 섞여 악취를 풍기며 이에 주민이 불안해할 뿐 아니라, 버스나 열차를 타고 이 지점을 지나는 승객

들마저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마치 공해와 방역의 무방비 지대를 방불케 한다”고 쓰고 있다. 안양천은 산업화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년 사이 더럽고 시름한 공단의 냄새를 품은 꺼려지는 곳, 오염하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

1977년 안양천은 300여 명 인명 피해와 수백억의 재산 피해를 가져온 대홍수를 겪으며 일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시가지의 모든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로 덮였고, 큰비가 오면 그 물이 하천으로 모여 홍수가 빈번해졌다. 이미 60년대 중 후반부터 마을마다 흐르던 소하천은 홍수 예방을 위해 석축을 쌓는 정도에서 정비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홍수를 계기로 홍수 관리, 호안공사, 고수부지 정비, 하수처리장의 건설 등 하천의 이수와 치수 기능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8세기 실학자 이종환의 <택리지>를 보면, “강거(江居)는 계거(溪居)만 못하고, 계거는 산거(山居)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홍수 위험에 따른 주거의 불안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네 선조가 은유적으로 지적한 이러한 홍수의 위험을 고려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애초부터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출처 :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77 수해와 복구기의 안양천

77 수해를 계기로 안양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콘크리트로 독을 쌓아 사행하천을 곧게 펼쳤고, 축조된 제방이 안전하게 홍수에 버틸 수 있도록 비탈면에는 시멘트로 된 호안블럭과 잔디를 심었다. 동물구멍 등 제방을 붕괴시키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풀을 정기적으로 제거하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해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것을 직강화(直江化)라고 하는데, 홍수가 발생할 때 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 방식은 홍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파괴 문제를 야기했다. 하도가 직선으로 단순화되면 흐르는 물속의 생태계도 단순화되기 때문이다.

하천 단면을 콘크리트 안벽으로 수직화시키면서 생겨난 반듯한 땅은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었다.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 이에 따른 도로의 확장 대책으로 하천 연안은 적격이었다. 원래 하천의 양안에는 자연스러운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 간선도로나 고속도로로 확대하면서, 하천폭이 넓은 곳을 제외하고 웬만한 개울은 뚜껑을 덮어 비좁은 도시의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도로로 만들거나 일부 구간에서는 비교적 넓은 하천도 복개하여 건물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넓게 또는 좁게 도시를 싹틔울처럼 잇고 있는 하천은 철저하게 도시의 성장과 생활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산업화 이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의 하천은 더러웠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물의 오염과 인위적인 정비작업은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전과는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폐수가 섞인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폐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수돗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등 강의 오염은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1992년부터 하수처리장을 가동하고, 강 양편에 하수관로를 묻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하수관을 통해 강 하류로 보내 한강 수질을 보전하는 작업이 실시됨으로써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출처 :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1977수해 안양대교와 안양천

다시 삶 속으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안양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둔치에는 농구장, 롤러스케이트 등의 체육공원, 자연학습장과 야외무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이 꾸며지면서 강가는 다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돌아왔다. 일종의 하천 공원화 사업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시설물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즐길 수 있는 강이 아니었으며, 모든 생명이 함께 반기는 곳은 아직 아니었다.

안양천을 모든 생명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기 위한 실천은 2001년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조직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9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강하천과 시멘트로 황량해진 강변, 하천 복개와 고수부지 활용 등 그간의 하천 이용에 대한 반성과 보존을 주장하며 일어났던 산발적인 운동들이 하나의 조직체로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이 단체는 이후 생태 하천으로의 복원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었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기존의 큰 뚝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물줄기를 자연형태로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로와 주차장, 무분별하게 들어선 체육시설도 정비하고, 하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출처 : <http://magazine.jungle.co.kr>, 이옥분).

안양천의 추억

어떤 이가 기억하는 안양천은 낚시할 정도로 깨끗한 곳이었다.

“우리 동네 안양천 옆으로 조그만 못이 하나 있었다. 이곳에선 낚시꾼들이며 잠자리 잡으려는 아이들, 철길에서 동전 찌그러트리며 노는 아이들 등등 심지어 제비도 잠자리채로 잡는 시끌벅적 동네 놀이터다.

어려서부터 봐오던 곳이고 나에겐 큰 재미가 돼주던 곳도 아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쯤인가 같은 반 친구들과 이곳으로 낚시를 오게 되었다. 그전까지 낚싯대라곤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나. 친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찌를 달고 바늘에 지렁이를 꿰어 그래도 큰놈을 잡겠다고 긴 낚싯대를 휘둘러 던지고선 속으로 이 정도면 잘 던진 거야. 맞아. 마치 진짜 낚시꾼이라도 된 양 똥똥을 잡는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찌를 바라보는데 찌가 없다. 앵 뭐지? 이런, 입질인가? 낚싯대를 세우는데 저항이 느껴진다. 쿡쿡. 두 손으로 그대로 낚싯대를 세우니 고기가 뒤로 날아간다. 그런데 잡은 고기가 이상하다. 태어나서 처음 잡은 고기인데 생긴 게 괴상하다. 친구들도 황당한 표정이다. 뭘까? 정말 궁금했다. 길이는 30 정도 돼 보였고 빵이 없고 언뜻 보면 미꾸라지 같기도 했고 메기 같기도 했다.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30년 묵은 미꾸라지 같다고 하신다. 지금도 궁금하다. 미꾸라지가 30년 사는 게 가능할까? 그 뒤로 붓어도 여러 마리 잡았다(출처 : <http://blog.naver.com/cnspe/150032220409>)

사진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1968년 당시까지만 해도 만안초등학교 앞으로 수암천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만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주도로인 중앙로 공사를 하면서 뒤쪽 경부선 철로 옆으로 물길을 돌리고 지금의 안양천 철교 방향으로 빠지게 했다.

이용구 씨는 수암천과 안양천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당시 나는 안양리(현 안양3동)에 살았는데 집 앞에 안양9동 수리산에서 발원하여 안

양천으로 합류하는 짧은 내인 수암천(秀岩川)이 있었다. 이 내는 장마철에나 물이 흐르다가 겨울에는 거의 건천(乾川)으로 여름 장마가 지면 하천이 범람해 학교로 가는 직선거리에는 돌다리가 물에 잠겨 시멘트 다리가 있는 안양역 앞에 있는 국도(國道)를 건너 학교에 가느라 먼 길로 돌아 가야 했다.

또한, 우리 집 앞 수암천은 장마가 끝나면 돌이 솟아 나와 기차선로 보수용(補修用) 자갈 채취가 시작되어 한때는 자갈차 길이 우리 마을까지 들어 왔었다가 나중에 병목안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당시 알던 냇가가 해마다 패이고 패어 지금은 사람 키보다 더 깊게 패었으며 일부는 복개(覆蓋) 되었으니 약 70여 년이란 세월의 흐름과 변화를 알 수가 있었다.

이것뿐 아니라 안양천 상류인 군포와 모락산 청계산 관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되는 안양천에 비산리(현 비산동)로 통하는 얇은 시멘트 다리(속칭 수프르지 다리)도 물에 잠기면 비산리(현 비산동), 호계리(호계동) 등지의 학우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에서 쉬어야 했다.

또한, 그 후 이 안양천은 한때 수질 오염이 심했으나 하천(河川水) 정화사업으로 이제는 말끔하게 정화되어 물고기가 예전과 같이 서식하게 되었으며 이젠 아무리 억수의 장마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건너갈 다리가 얼마든지 있게 되었다.

장마가 그치면 맑고 풍부한 냇물에서 물장구치며 한여름을 나뉜 그 시절의 추억이 마냥 그리기만 하다 이 냇물은 묵묵히 지금도 안양 시내 한복판을 지나 충훈부(忠勳府)를 돌아 시흥, 구로, 김포를 지나 한강으로 합류(合流)되어 유유히 서해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출처: <http://www.srkr.or.kr/bbs>, 이용구)."

실제로 1970년대까지는 안양천 맑은 물에서 뱃놀이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1968년 만안초등학교 앞 수암천



안양천에서 가족이 뱃놀이를 하고 있다

마을

안양읍내

조선조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의 능행을 남태령 노선을 버리고 현 시흥대로 길로 바꾼다. 이때 현재의 안양철교 부근인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 하천에 만안교를 가설했으며 한 해 전인 1974년에는 안양리에 임금의 능행 도중에 쉬어가면서 백성을 보살피기 위한 안양주필소-안양행궁(安養行宮)이 건립되었고 이때부터 현 만안지역이 발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도 별로 살지 않던 촌락에 불과했던 안양리가 오늘날 안양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는 일제 강점기인 1905년에 경부선 안양역(安養驛)이 개통돼 안양리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부선 1구간 역 중 하서면 안양리에 개설된 안양역의 개통은 호계리에 개설돼 있던 군포장을 쇠퇴하게 만들고 안양역 일대는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1912년 3천412명이던 인구수는 1925년 6천165명, 1935년 8천957명, 1940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흥군지 등의 기록을 보면 일제 강점기인 1917년 7월에 호계2동 방죽말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구 안양1동사무소 옆(안양1동 674-271)자리로 이전하고, 1924년에는 만안로에 안양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 안양역 앞에는 안양우체국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설립되면서 안양역 일대가 관공서들이 속속 들어섰다.

광복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시흥군청사가 안양 일번가 삼원플라자 호텔 자리로 이전하고 곧이어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의용소방대 등이 추가로 들어서면서 안양 일번가는 70년까지 시흥군 행정 관가의 거리로 행정구역상 중앙동(中央洞)으로 불리웠다.

하지만 1970년대 시흥군의 해체와 안양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의 변화 속에 공공기관들이 안양6동으로 이전하면서 안양 1번가는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해 1980년대에는 먹거리, 옷가게, 유흥주점이 주류를 이루며 금융, 교통, 상권을 아우르는 상업중심지로 변모하게 된다.



73년 안양읍사무소

이 당시를 한 안양인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도시가 농촌을 먹어버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데 잠식(蠶食)이라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누에가 야금야금 뿔실을 먹어가듯이 도시화(urbanization)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도시화의 파도에 잠겨버렸다. 시골에서 유소년기를 자란 나로서는 도시라는 괴물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을 늘 가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어디 변화되지 않은 곳이 있으랴마는 지금 가보면 그야말로 알 수 없게 변화된 곳이 안양과 덕장골 사이이다. 안양은 하루에 몇 번씩 기차가 지나다니고,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로 차들이 왕래하던 지방의 소읍이었다. 삼막사 아래로 안양풀장이라는 유원지가 있었고, 근처에는 포도밭이 많았다. 안양을 산자수명한 곳으로 예찬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나, 그렇게 빼어난 경관은 아니었다. 지금의 안양-덕장골 사이를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이다.(중략)

사십여 년 전 안양에는 안양역, 안양읍사무소, 안양경찰서, 시흥군청, 금성방직공장, 태평방직공장, 몇 개의 교회, 약방, 의원 등이 있었다. 당시 안양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읍사무소, 경찰서, 군청이 있었던 곳이었다. 지금 무슨 관광호텔인가가 들어선 자리인 듯하다. 당시에는 정오가 되면 읍사무소에서 사이렌이 울렸고, 전기는 저녁때가 되어서야 들어왔기 때문에 전등도 그 때나 켤 수 있었다.

고모님 댁이 그곳에 있어서 얼마 동안 거기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근처에 치과, 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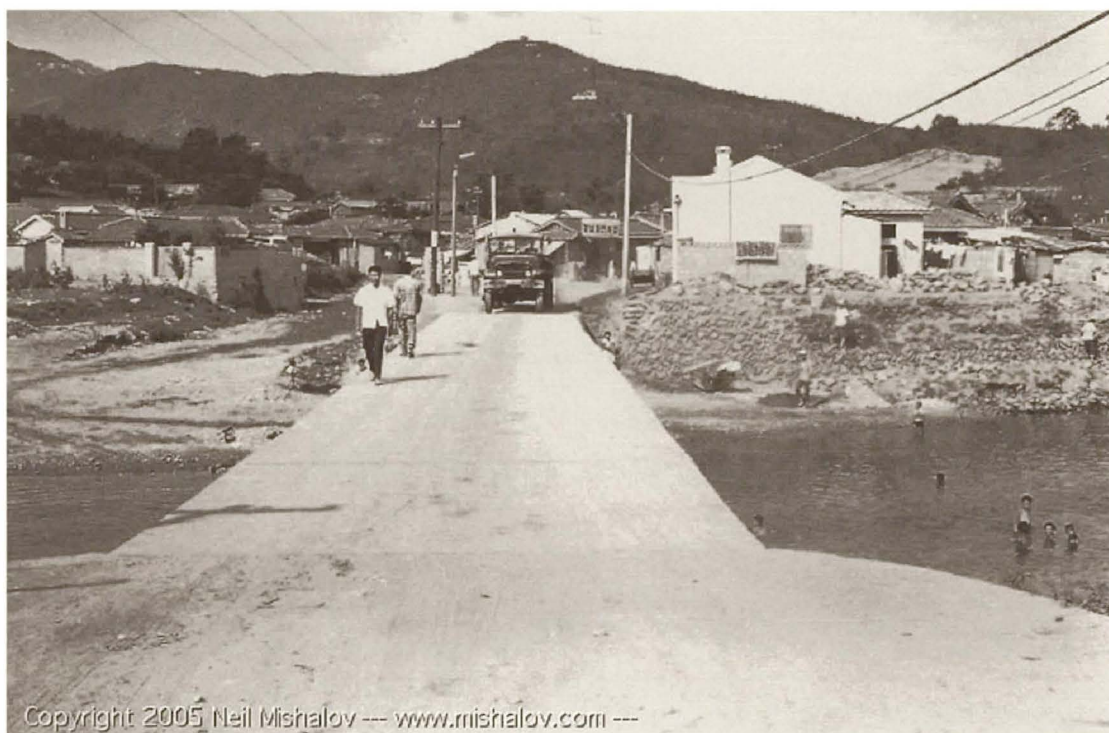
1970년대 안양역 앞

래의원, 만춘관인가 중국집 등이 있었다. 안양역을 지나서 조금 서울 방향으로 가면 화단극장이 있었다. 당시 안양은 소읍이었다. 아침저녁으로 통근열차가 지나가면서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을 흡입했다가, 토해냈다가 하는 동네였다. 정기적으로 안양장이 열리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장은 아니었으며, 당시 그곳은 이미 상설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경수 구도로에서 철도 건널목을 건너 수프르지 개천 건너기 전까지가 시장이었다. 시장 끝 부근에는 소시장이 열리곤 하였는데, 시장이 서지 않는 때에는 소 말뚝만이 남아 있어서, 버려진 공동묘지처럼 보였었다. 우시장 뒷골목으로는 장국밥집, 막걸리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출처 : 네이버블로그. 귀천/귀향/귀인)

찬우물

주점동 북쪽으로 충혼탑 아래에 찬 샘우물이 있어 그 인근을 찬우물이라 칭했다. 이 우물은 일제 강점기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약수로 이용되고 있다.

안양5동이 찬우물이 있다 하여 찰冷자, 샘泉자를 써서 ‘냉천동’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이다.



구시장 지나 수프르지 가는 다리



70년대 안양5동 뒷골목

안양5동 찬우물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새로운 전설이 있다. 옛날, 찬우물 아래에 오막살이집 한 채가 있었고, 거기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지금말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겠다. 먹을거리와 입을 것, 덮을 것은 변변치 않았으나, 어느 날 이 가난한 집에 아기가 태어난다.

너무 생활이 궁핍한 산모. 출산 후 삼 일째 되는 날인가 하도 배가 고파 물이라도 먹어야 사니까 함박눈이 엄청 쏟아져 내리는 날에 비틀거리며 찬우물을 찾았다 한다.

내리는 눈을 손바닥으로 받아먹으면서도 수리산에 나무하러 간 낭군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면서 너댓 번 함박눈을 입속에 넣었을 즈음, 이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산모의 겨드랑이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산모는 닭을 잡기에는 너무도 쇠진한 기력 때문에 결국 닭은 야속하게 수리산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 주저앉은 산모, 하염없이 눈물은 흘렸다 한다(출처 : <http://cafe.daum.net/susasa/임부성>).

전통마을제

전통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내려오던 산신제, 도당제, 나무제, 우물제 등 대다수 고유제가 도시의 개발로 마을의 정서는 물론 사람도 바뀌면서 이미 없어지고 일

부 명맥을 잇는 것들조차 행정기관과 주민의 무관심 속에 점차 잊혀지고 있다.

안양지역의 마을제사는 산(또는 산신령), 우물, 비석, 나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제는 의식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마을단위로 기원하고, 도시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일체감 형성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또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민 상호 간의 화합과 연대의식 및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전통마을제는 음력 7월에는 열리는 호계1동 덕현정제를 비롯 음력 10월에 열리는 석수1동 삼막골 쌍신제, 비산동 매봉산 산신제, 관양1동 수촌마을 도당제, 관양2동 현감 이태응 영세 불망비제 등 5개만이 남아있다.

수령 5~600년 향나무와 느티나무가 있는 삼막골 나무제

삼막골 느티나무제는 석수1동 1통에 있는 수령 600년이 넘는 할머니 향나무(아랫말 서낭할머니)와 2통에 있는 수령 500년이 느티나무(웃말 서낭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주민은 제를 지내고 농악대 풍물 속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할아버지산과 할머니산에서 제를 지내는 석수동 쌍신제

석수동 지역에서는 안양예술공원 삼성천(구, 유유산업 앞)을 경계 삼아 두 개 마을로 나뉘어 같은 날 동 시간대에 두 분의 산신령(할아버지산 산신, 할머니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특이한 풍습을 일컬어 일명 ‘석수동 쌍산신제’라고도 칭한다. 산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애착과 정성이 산을 신성시하고 산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에서 예로부터 산신제를 치러 왔다고 한다.

산신께 축문낭독과 함께 소원을 빌며 마을과 개인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석수동 쌍산신제는 매년 가을에 산신께 평안과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산고사는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석수동 지역에서 약 300여 년간 이어진 고유 전통문화다.

통복어, 시루떡, 돼지머리, 대추, 밤, 사과, 배 등 조출한 제사음식을 산신께 공양하고

삼배, 헌주 등으로 제를 올리며 축문낭독과 함께 소원을 비는 소지(燒紙)행사 등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할머니산 대동산신제가 같은 날, 동일시간대 (경수산업도로변) 별장가든 뒤편 약수터 위 제단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행사 2~3일 전 행사일정 및 시간을 사전 조율하여 약속을 잡아 같은 시간에 산신제를 올리기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햇불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이-하고 외치고 신호하며 산 중턱의 산신제단으로 이동했고, 오늘날에는 손전등과 핸드폰으로 통신하며 산고사 시간을 맞춘다.

마을제는 풍요와 무병장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제사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민간 무속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제는 의식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마을단위로 기원하고, 도시화 물결 속에 사라져가는 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 및 일체감 형성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또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민 상호 간의 화합과 연대의식 및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주민참여 및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수백 년간 우리 안양에서 지켜온 선조들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유 마을제가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안양지역에서 수백 년 맥을 이어 전승되어온 일부 마을제는 일부 자취를 감춰 사라졌고 일부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축원하는 마을제(洞祭)를 특정 종교 의식 행사, 미신이라고 폄하하기보다는 마을의 화합과 결속을 꾀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새로이 인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마을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의원 등 지역인사 및 마을주민의 절대적 참여와 협조, 문화단체 및 사회단체와 연대한 행사추진, 동주민센터 및 안양시의 홍보 및 지원, 특히 청소년, 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단위의 전통문화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출처 : 안양광역신문 2011.3.23, 조성현).

안양의 입향조 이야기

옛 안양지역을 본관으로 한 성씨

7개 성씨로 시작된 과천현

오늘날 안양지역은 과천현의 일부와 금천현(衿川縣)(지금의 시흥)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오늘날 비산동 일원은 과천현 상서면에 속했고, 호계동과 안양동, 석수동 일원은 과천현 하서면에 속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안양동 일부와 박달동 인근은 금천현 현내면과 서면에 속해 있었는데, 조선 말기에 이르러 시흥군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 중기 이후 면리제가 확립되어 가던 과정에서 생긴 안양리는 과천현 하서면에 속한 조그마한 리에 불과했고, 일제 강점기에 시흥군의 안양리에서 안양면으로 승격되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안양읍으로 승격되었으니, 안양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없다. 오늘날 안양지역을 아우르고 있던 과천현과 금천현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보면 과천현은 토성이 손(孫), 이(李), 전(全), 변(邊)이요, 망성이 3개로 신(愼), 안(安), 최(崔)씨 등이다.

여기서 토성이란 고려 시대부터 전래해온 고적(古籍)과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각 도에서 올린 문서인 관(關)에 기재되어 있던 성씨를 지칭했던 것으로 토성은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이미 없어진 망성과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 온 래성(來姓), 속성(續姓) 등과는 달리 그 지방의 구획 당초부터 15세기까지 그 지방에 토착하면서 그곳 지명을 본관으로 하는 지배적인 성씨집단을 지칭하였다. 망성은 고려이래 전해오던 고적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인 15세기 초에는 이미 없어진 토성을 지칭해 망성은 결국 망토성(亡土姓)이란 의미로서 토성이 확립된 이래 그 성씨의 성쇠소장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망성이 많은 지역은 고려 시대 경기권이었다. 과천의 토성·망성은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구분 없이 7개의 성씨를 그대로 기록했고 그 후에 발간된 읍지에도 변동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안양의 관적성씨(貫籍姓氏)

안양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천현의 하서면(下西面)과 상서면(上西面)에 속했다가, 1914년 3월부터 시흥군 서이면(西二面)으로 불리 우다가 1941년에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1949년에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이어 1973년에 시제실시로 안양시로 승격된 신흥도시인 관계로 안양을 본관으로 한 성씨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본관이란 본래 현(縣) 이상의 고을 이

름이나 그 고을의 별호(別號)를 따서 본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안양에 고아원(보육원)이 생기고, 안양이 독립행정구획으로 시가 되자 관내 고아원에 수용되고 있는 고아출신 난민에게 성과 본을 창설해 줌으로써 안양을 본관으로 하는 새로운 성씨가 창출된 것이다. 안양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안양상의보 1978년 8월 1일 자에 ‘안양 김(金), 이(李), 박(朴), 최(崔) 탄생’이란 기사가 실려 있다.

대를 이어 살아온 성씨 이야기

전주 이씨 영응대군의 후손, 안양1동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안양리(安養里) 발사리(撥舍里) 지역이었다가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41년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1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1동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안양 5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조선 시대에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안양행궁을 짓고 능행 시 잠시 쉬어가게 하였으며 그 후 만안로가 만들어지고 1905년에는 미나리 밭이었던 자리에 안양역이 생겼다. 1924년에는 안양지역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역 앞에 안양우체국이 설립되었다. 1929년 시대동 일대에 안양지방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었다.

안양 1동에 성주 이씨가 정착하게 된 것은 중시조 이장경의 12세손 이군미(李君美)가 1600년경 세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자세한 정착 연원은 알려지지 않으나 병자호란 등의 난리를 겪으면서 은둔할 장소를 물색하다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군미는 음직으로 종사랑을 지냈고, 안양 3세 이하보는 평택 현감을 지냈으며, 안양 6세손 이효원은 무과에 합격하여 오위장을 역임했다. 이군미의 11세, 12세손에 해당하는 후손들이 현재 안양과 그 인근에 살며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곳에는 인동 장씨(張氏)들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180년 전 청주에서 안양1동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장현봉(張鉉峰)의 후손들이다. 장현봉은 인동 장씨 15세손이며, 그 후손들은 지금도 안양 1번가 중심가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다.

안양 1번가에는 전주 이씨 영응대군 후손들도 몇 대에 걸쳐 세거해왔다. 정착 시기는 1909년경으로 보인다. 안양1동은 안양 중심부로 안양역 만안로, 중앙로, 관악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금융, 상가가 운집해 ‘안양 1번가’로 통한다. 전통시장으로 남부시장이 있으며 학교는 안일초등학교가 있다. 중앙동(中央洞)은 북부동과 시대동(또는 남부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 안양시가지 중앙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앙동(中央洞)’이라 칭하며, 이 마을을 기점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 남부동(南部洞), 북쪽에 있는 마을이 북부동(北部洞)⁰¹이다. 중앙동이 오늘날처럼 안양의 중심지로 크게 번창 되기는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가 1795년에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지점에 만안교를 가설한 후 화산능행의 로정(路程)을 과천-인덕원-수원에서 시흥(현 금천구 시흥동)-안양-수원의로 바꾸면서 유래된 뒤(안양1동 674-67)에 안양행궁(安養行宮)을 짓자 주변에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고, 1905년에 정부선 부설로 안양역이 건설되자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여 1917년 7월에 호계2동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 옆 안양옥(安養屋)(안양1동 674-271) 자리로 이전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이곳에 세워졌고, 광복 후에는 시흥군청을 비롯하여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자 관가의 거리로 되었다가, 이들 기관이 1970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뉴코리아호텔, 안양백화점, 그 밖에 유흥음식점이 붐벼 안양의 1번가로 자리를 굳혔다. 한편, 안양1동에 속하고 중앙동 쪽으로 구한국제지와 진흥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이 시대동이다. 市垆洞이란 이름은 과거 이곳에 안양시장이 있었던 사실에 기인하며, 일명 구시장이라고도 한다. 예전 안양의 중심지역이며, 안양 1번가와 연결해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이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의 최적지였다. 1926년 1월 28일에 처음 안양시장이 들어서고, 농축산물, 포목, 일상잡화 등 다양한 품목들이 거래되었다. 개장 첫해인 1927년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5만 6,000원, 잡화가 21만 2,000원, 그 밖에 직물, 축산물, 수산물 등 모두 50여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은 지대가 낮아 홍수 때문에 안양천이 범람하면 침수되기 일췌여서 1961년 11월 6일, 안양 4동으로 시장을 이전(현 중앙시장)하였다. 이곳은 1929년 안양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옛 장터는 현재 남부시장이 있다.

포도가 먼저 자리한, 안양2동

조선 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석수동이었다가 1914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

⁰¹ 참고로 남부동은 중앙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안양시가지 남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남부동이며, 북부동과 짝을 이룬다. 이곳은 수리산 줄기를 따라 찬우물에서 흘러내리는 샘물로 농사를 짓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8·15 광복 직후까지 지금의 ‘2001 아울렛’ 앞에 민가 몇 호가 드문드문 있었다. 1960년대부터 원예·청과물 시장이 개설되고, 이어 숙박업소가 번성하면서 급성장하였다. 현재 남부시장이 중심에 있고, 안양 1번가와 연계되어 있다.

다. 1941년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고 1949년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1964년 안양읍 안양2리로 되었다. 1992년 만안구에 편제되었으며 1996년 일부가 안양3동에 편입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이 삼성산 밑 안양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로 기독교보육원이 오궁선에 의해 설립되었다. 최초의 극장인 화단극장이 있었다.

교통현황은 안양로, 만안로, 경수대로, 박달로가 있으며 학교는 만안초교, 안양여중·고, 양명고, 여고 5개가 있다. 안양 2동에는 북부동(北部洞) 1이 자리 잡고 있다. 안양시가지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북부동이다. 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야생조류의 서식처였으나, 일제 강점기 초에 ‘오키’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곳이다. 화단극장 앞 연미예식장(안양상공회의소) 자리에는 일본인 다카세 세타로가 ‘다카세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무역과 농업, 농장 업무를 봤다고 한다.

정종의 7남 증손 이공, 안양3동

조선 시대는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後頭尾洞)이었고 1914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64년 안양읍 안양3리로 되고 1973년 시제가 시행되면서 안양3동으로 되었다. 1994년 안양9동으로 분동되었고 1996년 시 조례 1392호에 의거 안양2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오래된 자연부락으로는 양지말(陽地洞)이 있다. 양지바른 마을의 지세를 반영한 이름이다. 한자 표기는 양지동(陽地洞) 외에 陽智洞, 陽支洞, 陽知洞 등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현재는 양지동(陽地洞)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조선 2대 임금인 정종의 7남(守道君)의 증손 이공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래, 원주 원씨 등이 살았다고 한다. 양지동은 문인들의 요람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채만식은 고향이 전북 옥구 출신이지만, 1940년부터 약 1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매일신보에 안양복거기(安養卜居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주거밀집 지역이며 학교는 안양과학대학(전신 안양공전), 안양공고, 안양예술고, 안양외국어고, 안양여자상업고, 안양서초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아사이학교가 있었으며 1928년 엄기승이 안양 최초의 회사인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를 설립하고 또 1932년 조선직물(朝鮮織物)이 설립되고 광복 후 그 자리에 금성방직(金星紡織)이 설립되어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진주 강씨·원주 이씨, 안양4동

조선 시대 과천군 하서면 장내동(塲內洞)이었고 1964년 안양읍 안양4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4동이 되었다. 1989년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다가 1992년 만안구로 편제 1996년 안양5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현재 안양 4동에 속하는 장내동은 장내리(塲內理)라고 했다. 진주 강씨, 원주 이씨 등이 세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담안(澹安)은 ‘을 안에 있는 마을’을 뜻한다. 예전에 이곳에는 밤나무가 많았으므로 밤나무 울타리 안에 있는 마을을 뜻하며, 이를 한자화하면서 장내동 또는 담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자 담안(澹安)은 순우리말을 한자로 음차한 현상이다. 한편, 뜰안→들안→담안의 변천형태라는 설도 있다. 이곳이 너른 들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된 듯하다. 안양4동은 일제 강점기에는 대부분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동산(栗園)이었다. 벽산쇼핑 일대는 좌백울원(左白栗園)이라는 대단위 울원이 조성되어 해마다 유료로 밤줍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안양 변전소가 설치된 후 1961년 삼덕제지와 삼길양산 등의 공장이 건립되었다. 삼덕제지는 그 후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여 삼덕공원이 되었다. 1954년 천주교 장내동 성당이 건립되었고 1956년 성당 내에 안양 최초의 유치원이 개설되었다. 1961년 안양1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중앙동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中央市場)으로 명명하였다. 안양 4동은 중앙시장이 번성하고, 안양의 명동 안양 1번가와 주간선 중앙로 사이에 있어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80년대부터 평촌신도시의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중앙동과 함께 안양 최대의 변화가였으며, 현재에도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 과거 급제, 안양5동

안양5동은 교하동(校下洞, 校化洞)으로 불리었다. 1927년 안양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아래 마을이 생겨 학교 밑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애초 교화동(敎化洞)에서 교하동(校下洞)으로 바뀌었다. 교화동이란 마을 이름은 조선조 중엽 가난한 부부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마을에 향교를 지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임금께 간청, 이에 감탄한 임금이 커다란 집을 지어주고 교화당이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 어느 농부의 지성으로 샘물이 솟았다는 찬우물(冷泉)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였다.

찬우물은 주접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안양5동 15통에 속한다. 충혼탑 아래(안양5동 590-5) 찬 샘우물이 있어 그 인근을 찬우물(冷泉洞)이라 칭하였다. 이 우물은 일제 강점기

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약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난민들이 찬우물 위쪽에 정착하고, 우물 아래의 농경지가 택지로 변모되면서부터인데, 현재는 안양5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장미아파트, 건흥연립, 원불교, 현충탑, 장안 등이 있다.

교하동은 남부동과 주점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구한말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이 소나무가 무성했던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의 군사훈련장으로 쓰이다가, 1927년에 안양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학교 주변에 민가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1964년 안양읍 안양6리가 된 후 1973년 시제 실시로 안양5동이 되었다. 1996년 시조례 제1392호에 따라 동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되었다. 1997년 11월 5일에 신청사를 준공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나주 정씨의 정착, 안양6동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가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시행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이어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로 안양6동을 안양6동·안양7동(安養七洞)으로 분동하였고, 1985년 11월 5일 안양6동을 안양6동·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하였다.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자연마을로 소골안과 주점동이 있다. 한국전쟁 후 수락산 골짜기에 난민을 소골안(小谷安)에 집단이주하여 형성되었고 주점동은 정조가 능행을 위해 안양경찰서 뒤에 정각을 짓고 잠시 쉬게 했다 하여 주점동이 되었다. 이곳에 나주 정씨가 정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고함공파 16세손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인물이 주점동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정조대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점동에 세거해 왔던 나주 정씨가 비옥한 토지를 찾아 방죽말로 이거 하였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1900년대 초반이었다. 방죽말로 이주해 간 나주 정씨들은 그곳에서 5대째 살고 있다. 전주 이씨 후손들도 주점동에 정착하여 세거해 왔는데, 이 시기는 역시 정조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골안은 소곡동(小谷洞; 昭谷洞)이라고도 한다. 안양 6동 안양세무서에서 서쪽으로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명칭 유래는 수리산 작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小谷洞)이라는 설과 골짜기 안이 소(牛)를 많이 기르던 곳이라 하여 '소골안(牛谷洞)'이라는 설이 있다. 예전에 이곳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한적한 곳으로, 주점동에서 3가구가 이주해 와서 살았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강원도 철원 등지에서 난민들이 들어와 지금의 안양1동 소재 진흥아파트(옛 태평방직) 자리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시흥군 안양읍장 조한구가 난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소골이 어감상 좋지 않다고 해서 한자어 소곡(小谷)으로 사용하였다. 1996년 5월에는 인덕원에 있던 신성중·고등학교가 이 마을로 이전해왔다.

학교는 신성중·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가 있다. 관공서로는 중앙로 개설 후 시흥군청(현 만안여성회관), 안양시청(현 만안구청), 상공회의소, 보건소, 안양세무서가 있다.

농경지였던 안양7동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에서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1941년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되었다. 1949년 안양읍 안양리라 했다가 안양읍 안양7리로 되었다가 1973년 안양6동으로 되었다. 1979년 안양6동을 분동해 덕천마을 지역을 안양7동이라 했고 1989년 동안출장소로 편제되었다가 1992년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조선 시대는 대부분 농경지로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일제 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에 살던 원정상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였고 허허벌판이란 마을로 벌터(坪村)이라 했다. 1977년 안양천의 범람으로 피해를 입어 수재민촌으로 불리었다. 1978년 마을 유지들에 의해 덕천마을로 개칭되었고 1979년 안양6동이 분동해 안양7동으로 되었다.

벌터는 충훈부 북쪽에 위치했던 마을, 서쪽으로는 광명시 일직동 자경리와 북쪽으로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마을과 동쪽으로는 꽃챙이 마을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허허벌판 모래땅 위에 자리 잡은 마을이름으로 벌터라 불렸는데, 일명 벌말(坪村)이라 칭하기도 하고, 또 일제 강점기에는 밤의 명사지라 하여 밤골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진주 하씨로 알려졌다. 석수1동 삼막골에 살던 진주 하씨 문효공(文孝公河演) 후손들이 이곳으로 분가하면서부터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5호 남짓했던 이 마을은 임(林)씨가 1호, 이(李)씨가 1호이고 그 외는 모두 진주 하씨였다. 벌터읍은 풍수로 부아배형국(舟形局)이므로 우물을 파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 마을 내에는 우물을 파지 않고 식수는 안양천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다고 한다. 그 후 일제 강점기 말엽에 죽어도 함께 죽자는 일념으로 마을 중앙에 우물을 파기 시작하자 집집이 우물을 팠다고 한다.

1960년대 초에 럭키아파트 일대에 있던 경기도립종축장이 이곳으로 이전하자 마을이 폐동되었는데, 마을 주민은 마을 안에 우물을 파지 말아야 하는데 지신(地神)이 노해서 마을이 망했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립종축장은 이곳에 10여 년간 있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6-1로 이전하였고, 그 후 모 재

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개인에게 매각하여 현재는 황량한 벌판으로 있다. 폐동전만 해도 벌터 주민은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마을 중앙에 있던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정과 무해 및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堂祭)를 지냈다.

덕천마을은 주점동 동북쪽에 있으며, 예전에는 주점동과 한 마을이었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부터이다. 시흥 정왕동에서 누대로 세가 해왔던 원주 원씨 출신의 원정상이 분가를 하면서부터였고, 이어 전주 이씨, 창녕 성씨 등이 마을을 형성하였다. 초기 이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벌터였고 이후 77년 홍수로 수재민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실제로 1977년 9월에 안양의 시내버스(삼영운수)가 이쪽에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버스 안내판에 수재민촌으로 명기하자, 당시 새마을 지도자였던 최돈세가 중심이 되어 수재민촌이란 이름이 어감이 좋지 않고 장차 2세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 이름을 짓자는 의견을 마을회의에서 제기하여 이름을 바꾸게 된다. 즉, 큰 하천인 안양천 변에 있다고 하여 큰 덕(德)자에 내 천(川)자를 취해 덕천마을(덕천동德川洞)로 명명했다. 그 후 1978년에 안양천의 오염문제가 거론되면서 천(川)자 대신에 ‘이곳 어린 이들이 샘물 솟듯이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에 큰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천(泉)자를 사용하여 덕천마을(德泉洞)로 개칭하고 마을 입구에 덕천마을이라는 표석을 설치했다. 이것은 하천이 잠잠하여 더는 수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처럼 덕천마을은 자연마을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름이다. 이곳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넓은 농경지였고, 이곳을 지나는 경부선 철로 변은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다고 한다. 이 마을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원정상의 증손인 원종만이 허허벌판에 ‘덕천슈퍼’ 건물을 신축하면서부터이며, 그 후 7동 새마을금고와 덕천초, 우체국의 전신인 우편취급소 등 공공건물이 속속 세워지고, 기업체가 다수 건립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평산 신씨·함평 이씨의 정착, 안양8동

안양8동은 조선 시대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에서 1914년 주령 제111호에 딸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 1941년 부령 제253호에 의해 안양면 안양리로 개칭, 1964년 안양7리로 된 후 1973년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이 되었다. 1985년 시조례 제739호에 의해 안양6동을 분동해 명학동, 곡내동, 상록마을을 안양8동이라 했으며 1992년 만안구로 편제되었다. 지명의 유래는 인조 때의 명신 심기원이 부친의 묘를 쓰기 위해 광동을 파던 중 암반 위에 앉아 있던 학이 명학초교 아래 바위에 앉아 슬피 울었다가 하여 명학동(鳴鶴洞)이라 불리었다. 명학동(鳴鶴洞)은 주점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평산 신씨 함평

이씨 등이 처음으로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는 명학초등학교 아래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가 1974년 서울-수원 간 전철개통과 도이에 명학역의 건설, 1976년의 명학초등학교(안양8동 349-1), 중앙병원(안양8동 산160)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조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1644)이 부친 심간(沈謙)의 묘에 묘를 쓰려고 땅을 팠는데, 돌 밑에 학(學)이 두 마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한 마리는 안양2동 소재 양명고등학교 옆에 있는 바위에 날아와 앉더니 슬피운 후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학이 울던 바위라 하여 ‘명학바위’라 칭했고, 마을 이름도 바위 이름을 취해 ‘명학동(鳴鶴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학교는 성문중고, 성결대학이 있다.

마을이야기가 풍부한 안양9동

안양9동은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이었다가 1914년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고 1941년 안양면 안양리로 1949년 안양읍 안양리로 되었다가 1964년 안양읍 안양3리로 되었다가 1973년 안양3동이 되었다. 1994년 시 조례 제1306호에 따라 안양3동이 분동해 안양9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 능골(陵谷), 담배촌, 병목안(後頭尾洞), 새마을, 안골(安谷)이 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마을 이름이 반영된 예는 먼저 능곡의 예라 할 수 있다. 능곡은 박능곡이라고도 한다. 수리산 아래 안양9동 현 안양서중학교 위쪽에 있으며, 현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다. 병목안을 ‘웃능골’, 아 마을을 밧(박)능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능골이라는 명칭은 ‘능 아래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능골’이라는 설이 있다. 또 하나는 이곳이 ‘사도세자 능의 후보지’였다는 연유로 능골이 되었다는 설이다. 사도세자가 일찍이 내가 죽으면 연을 띄어 보고, 연이 떨어지는 그곳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연이 떨어진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이다. 그 후 능골에는 원주 변씨가 정착한 이래로 채씨, 김씨 등이 들어와 오랫동안 15호 남짓한 작은 촌락을 이루며 살았는데, 주변에는 공장이 들어서자 안양서여자중학교, 신안초등학교, 신안중학교 등 여러 학교가 들어섰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335). 한편, 수리산 자락 안양9동 담배촌 북서쪽에 있는 마을의 자연부락 안골(安谷)이 있다. 이곳은 조선 시대에는 도자기를 굽던 곳이며, 최근까지 개인 소유의 요지(窯址) 터가 남아 있다. 안골의 명칭 유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한자 그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을’이라는 의미 즉, 지세가 아늑하고 물맛이 좋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여, 편안할 안(安)자를 넣어 유래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설은 ‘수리산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안골(內谷)이라는 설이 있다. 이 경우 安谷이라는 한자 표기는 애초에 순수한 우리

말로 ‘안골’이라고 하다가, 음차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마을 이름이 정해진 또 다른 곳은 병목안이다. 이 마을은 안양 9동 새마을교에서 옛 채석장에 이르는 지역이며 병목안시민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을의 순우리말 이름은 뒤편미, 뒤편미 등이며, 새롭게 채록된 이름은 병모관(兵模關)이다. ‘마을의 지세가 병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여된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말을 초입인 새마을교 부근은 좁지만 마을에 들어서면 골이 깊다고 하여 병목안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설은 ‘수리산 뒤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편미, 뒤편미라 칭했고, 따라서 한자로 표기한 행정 명칭은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이라는 설이다. 2006년 새롭게 채록된 설로 군사를 모집하는 기관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병목안’이라는 이름은 ‘수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옛날 안양 읍내 사진과 함께 그 내역이 올라와 있다. 병목안에 사람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소재한 묘소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조선 숙종 때 진주 류씨가 처음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진류문헌총집』에 의하면 안산 군수 등을 지낸 류명재(柳命才)의 묘를 이곳에 쓴 후 부터라고 한다. 진주 류씨 이후 원주 원씨, 순장 조씨, 달성 서씨 등이 살았으며, 병목안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은 ‘새마을’, 서남쪽 지역은 ‘창박골’, 남쪽 지역은 ‘담배촌’이다. 창박골은 수리산 골짜기, 안양 9동 병목안 서남쪽에 있다. 이 마을의 유래는 첫째, 산골짜기여서 바위가 많은데, 바위 색깔이 짙푸른 심청색(深靑色)이라 하여 ‘창바위골’, 즉, 창암동(蒼岩洞)이고, 골짜기는 ‘창암곡(蒼岩谷)’이라는 설이다. 또 하나는 예비군교육장 서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흡사 창과 같다 하여 창바위(窓岩)라 불렀고, 이 바위 안쪽(예비군교육장 소재)을 창암골, 바깥(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창박골(蒼外谷)이라고 불렀는데, 민가가 생기면서 마을 이름도 창박골이 되었다는 설이다.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면 창박골 앞산 약수터 입구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병목안·담배촌 일대가 시민의 휴양지로 되면서 번창하기 시작했고, 이어 1985년 석산연립과 안양서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산 아래는 작은 사찰들과 예비군교육장을 둘러싸고 있고, 2006년에는 테니스장 및 운동시설을 갖춘 정수장이 건설되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담배골은 수리산 깊은 골짜기에 있으며 담배촌이라도 한다. 이곳은 최경환(프란치스코: 1805~1839)의 성지로 알려진 유적지이기도 하다. 담배골은 1837년 7월에 최경환과 천주교인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고, 담배를 경작해서 생계를 이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담배골은 지형적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데, 담배는 주로 경사가 완만한 저지대에 심었다. 한강 이남에서는 담배골에서 재배한 담배를 일등품으로 칠 만큼 품질이 우수했다고 전해진다. 담배 외에 땔나무와 토종꿀을 채취해서 안산장(안산시 수암동), 군포장(호계3동 구 군포), 안양장(안양1동 시대동)등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자연마을로 하동 정

씨를 비롯하여 김녕 김씨, 원주 변씨, 청주 한씨 등이 살았다. 이곳이 워낙 두메산골이어서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 본부가 주둔하기도 했다. 현재 이곳에는 천주교회가 있는데, 성지 입구 못 미친 곳에 자리를 잡은 복지강당은 대홍수 직후에 중건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안양9동은 예전에 밤나무가 많았다. 이를 상징하듯이 울목동(밤골)이 있다. 이곳은 노적봉의 산세에 따라 동서로 길게 생겼으며, 수암천이 마을을 따라 있다. 1933년과 1934년에 동아일보와 자매지 신가정 주최로 전국 부인 밤줍기 대회가 열릴 만큼 밤의 명산지로 유명했던 마을이다. 밤나무 숲이었던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당시 시흥군 양양읍에 강원도 평강 등지의 난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이 마을을 일명 피난민촌이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 안양리(安養里), 석수1동

조선 시대에는 금천현 현내면 안양리였다가 정조 19년 시흥면 현내리 안양리로 고종 32년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로 개칭되었다. 1914년에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였다가 1963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 1964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1리로 1973년 안양시 승격(석수동)이 되고 1979년 석수1동(석수동에서 분동)으로 1989년 만안출장소 개소(석수1동) 1992년 만안구 승격(석수1동)으로 되었다. 석수동(石水洞)의 명칭은 석공(石工)이 많아石手洞이라 하였으나, 1932년 개설된 수영장을 石水水泳場이라고 하면서 石手が石수로 바뀌게 되었다. 자연마을로 삼막골, 구룡마을이 있고 안양예술공원과 문화재로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삼막사, 안양사 등이 있다.

구룡마을(九龍洞)은 관악역 동쪽에 자리 잡은 마을로 한국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동국실업(석수동 165, 1968년 설립) 주변에 10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 그 밖의 지역은 밤나무, 참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9·28 수복 후 당시 시흥에서 난민들을 이주시킨 후부터 마을이 형성됐다. 그 후 동국실업 등의 공장과 관악역(석수2동 241)이 생기면서 번창하기 시작했다. 구룡마을이란 지명은 석수1동 3통 노인회관 자리가 풍수로 보아 좌청룡이 완전한 명당지라 하여 구룡목이라 부른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이곳이 명당 터라 조선 시대 어느 왕비의 묘를 쓰러다가 조산이 약하다 하여 동구능에 썼다고 한다. 삼막골(三幕洞)과 하씨촌은 구룡마을과 안양소년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삼막골이란 명칭은 사찰 삼막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삼막골은 삼막천을 경계로 해서 동쪽 지역을 ‘웃말’, 서쪽 마을을 ‘성재이’라고 한다. 삼막사의 유래는 삼성산의 유래와 같은 맥락으로, 삼성(三聖)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따라 그 유래설이 다르다. 통일신라 고승 원효, 의상, 윤희 세 성인이 삼성

산에서 수도하며 삼막을 지었다는 설과 고려 시대 고승 지공, 나옹화상과 무학대사가 삼성산에서 수도하며 삼막을 지었다는 설이 있다. 어느 쪽이든 세 명의 성인이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1막을 짓고, 석수1동(241-41) 부근에 2막을 짓고, 석수 1동 산10-1에 3막을 지어 삼막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아래의 민가가 들어서면서 사찰이름을 따왔다는 것이다. 이곳을 하씨촌(河氏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진주 하씨의 집성촌이기 때문이다. 문효공파 후손인 하우청의 묘를 뒷산 학무봉에 쓰고 그 후손들이 들어와 살았다. 마을 어귀에는 시인 이성환의 묘가 있다.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성재이’에 있는 서낭할아버지라고 받드는 느티나무와 웃말서낭할머니 향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낸다. 삼막골은 진주 하씨 외에도 밀양 박씨, 청송 심씨 등의 누대 세거지였다. 사실, 삼막골에는 하우청의 처가였던 밀양 박씨들이 먼저 정착해 있었다고 한다. 하우청은 삼막골에 세거해 있던 밀양 박씨 박희명의 사위였다. 한편 석수동에 창녕 조씨들도 정착했는데 시기는 1600년 무렵 선조 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녕 조씨 안양 입향조로 알려진 조난서(1568~1634)는 합천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다. 그의 손자 조하경 역시 문과를 거쳐 외직을 거쳤다. 최초로 거주했던 곳은 정확하지 않으나 번창할 때는 10여 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에도 비산유원지 공영 주차장 뒤편에 있는 창녕 조씨 묘역은 규모가 100평이 넘는다. 조하경(통정대부 순천 도호부사) 묘, 조윤창(조하경의 손자), 조난서(통정대부 합천군수) 묘 등이 있다. 석수동 산신제는 매년 10월 3일에 지내는 데, 창녕 조씨, 전주 류씨, 청송 심씨 등 인근의 토박이 부락민이 참여한다.

서울 가는 길목, 석수2동

석수2동의 변천사는 석수1동과 궤를 같이하다가 1964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2로 1987년 광명시 소하1동 일부 지역이 편입되고 1990년 충훈부 지역이 석수3동으로 분동되었고 1992년 만안구 석수2동으로 되었다.

지금의 안양육교 일대가 예전에는 산세가 높고 후미진 곳이어서 서울로 가는 과객이나 보부상 등이 이곳을 지나치자면 산적이나 강도들에게 수난을 겪을 만큼 험준한 곳이었으나 구한말에 경부선의 철도부설로 고개가 낮추어졌고, 이어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교통의 편리로 점차 마을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꼬챙이(花倉洞, 串昌洞), 연현(鵝峴), 벌터(坪村), 신촌(新村)이 있다.

꼬챙이라는 지명유래는 ‘예전에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꼬챙이’가 되었다는 설이다. 이곳에는 조선 말기까지 쌀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봄이 오면 철쭉이 많이 피었고, 또한 일제 강점기에 본격적으로 벚나무 등 ‘각종 꽃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마을이 ‘꼬챙이’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안양천 변에 위치한 곳(바다나 강에 뽕족하게 내민 땅)’이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사료적으로 보면 조선 지리지(朝鮮地誌資料) 경기도 시흥군 편에 꽃창(串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꽃창이라고 불리던 지명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꼬챙이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마침 꽃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까지 변화된 경우라는 설이다. 이전의 구술채록(화장 노인 정 회장 이봉식 등)을 보면 현재 폐수·정수사업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조선시대 쌀창고였다고 전한다.

석수 2동에는 원색적인(?) 지명도 있다. 일명 똥골이라는 곳인데, 이 마을은 충훈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아래 있었다. 이곳은 수리골에 해당하며, 분노를 버린 곳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순우리말로 ‘똥골’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마을이라기보다 특정 구역을 뜻하지만, 분노와 하수종말처리장(환경사업소)이 설치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이곳에 인분을 내다 버렸고, 그 후에도 그냥 구덩이를 파고 묻곤 해서 사람이 빠져 죽은 적도 있다. 신촌(新村)은 연세대 주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악전철역 서쪽, 만안로 변에 있는 마을 지명을 일컫는다. 신촌은 새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마을은 조선 말기까지 대부분 농경지였다가 8.15해방 후부터 사람들이 점차 들어와 살면서 ‘신촌’이 되었다. 특히 1956년 7월에 수도영화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약 2만 2,000평의 대규모 촬영소를 건설하여 한국영화의 메카가 되었다. 그 후 안양예고가 건립되고, 1974년 관악전철역이 건설되자 공용 주택들이 들어섰으며, 1980년에는 안양문화의 상징이자 경기유형문화재 제38호인 만안교가 이곳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안양문화의 상징인 만안교가 있으며 만안교는 본래 나무다리였는데 1975년 정조가 능행을 위해 예석교로 가설한 후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다니라’는 뜻으로 만안교(萬安橋)라 하였다. 1956년에는 수도영화사에 의해 안양촬영소가 설치되었었다.

광주 이씨의 정착, 석수3동

1964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3리에서 1990년 석수2동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충훈부 지역이 분동해 석수3동이 되었다. 조선시대 시흥군 유일 기관인 충훈부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는 밤의 명산지였다. 1983년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충훈부는 꼬챙이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관아 충훈부(忠勳府)의 명칭을 따서 마을 이름을 충훈부라고 했다. 충훈부는 안양천 주변으로 밤나무가 많았으며, 광주 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여 전체 60여 호 중에서 33호를 차지하였다. 1906년 당시 시흥군수인 남기선에 의해 보고된 <시흥군전충훈부전친군영양둔내장사추수기>에 의하면 친군영의 둔토(屯土)

는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 유등리(현 광명시 가학동 공세동 마을), 가리봉(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신림리(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철산리(현 광명시 철산동)였는데, 연간 도지(賭地)가 10석(石) 5두(斗) 5승(升)이며, 충훈부 둔토는 사성리를 비롯하여 우두리(牛頭理)(현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청 인근 마을), 광화대리(廣火大理)(현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해 있었는데, 연간 도지가 3석 2두였다. 이들 지역에 있던 친군영과 충훈부의 둔토를 일반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고 추수 때 도지를 받아 그것으로 충훈부를 관리 운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충훈부는 1950년대에 꽃과 밭 고등채소 육성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1981년에 석수초등학교가 개교하였고, 198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이곳 농경지와 자연마을은 대단지 주공 아파트가 되고, 다양한 현대적 시설물을 갖춘 도시형 마을로 변모되었다.

민가로 시작된 박달1동

금천현 현내면이었다가 시흥군 군내면에서 1963년 시흥군 안양군 박달리에서 1964년 호현동 일대를 박달1리로 개편되었다. 1973년 안양시 박달동으로 1994년 안양시 박달1동으로 1994년 안양시 박달1동으로 되었다. 지역의 유래는 ‘먹해이들’이라 했고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박토였는데 1937년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건설되어 마을이 폐동되었고 지금의 박달1동 부근에 농사를 짓기 위해 민가가 형성되었다. 전통시장으로 박달시장이 있다.

자연마을이 풍성한 박달2동

1914년 시흥군 서면 박달리에서 1963년 안양읍 박달리로 1992년 만안구에 편제 1994년 박달동에서 분통하여 박달2동이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능골(陵谷), 동수암(東秀岩), 막상골, 미름물, 범고개(虎峴), 붓골(筆洞), 삼봉마을(三峯洞), 셋터말(新基村), 선녀골(仙女谷), 양회다리, 웃말, 웃박달리(上博達里) 햇골이 있었다. 동수암, 막상골, 미름물, 선녀골, 양회다리, 웃말, 웃박달리, 햇골 등은 군용지 건설로 폐동되었다. 면적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이며 초등학교 2개(삼봉초, 박달초), 안양고가 있고 공장 75개가 있다. 박달동의 여러 가지 유래는 ‘밝다’에서 유래한 밝은 땅, 박치기처럼 박이 머리에서 파생된 말로 머리 산 높은 산의 뜻, 달풀이 있는 바깥 마을, 달동네였던 곳이 안양을 중심으로 밖에 있다 하여 밖 달동네라 하다 그후 박달동이 되었다고 한다. 자연취락이 많은 박달동의 마을 이름

은 대체로 순우리말로 마을명칭은 인접해 있는 산, 고개, 골짜기, 바위 등 자연물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용된 예가 많다. 선녀골(仙女谷)도 이런 예 중 하나로서, 박달2동 곤두래미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골짜기는 수리산 자락으로, 주변의 산세가 매우 아름답다. 골이 깊은 골짜기에 항상 자욱한 안개가 맴돌아, 마치 선녀가 사는 고을처럼 신비로운 마을이라고 하여 선녀골이 되었다. 조선 태종 11남 후령군(厚寧君)의 묘를 쓰고,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전주 이씨 후령군파 20여 호가 집성을 이루었다. 일제에 의해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후령군의 묘는 수원시로 이장되었다. 양희다리는 곤두래미고개 초입에 있다. 예전에 놓여 있던 양희다리에서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는데, 다리 이름이 그대로 마을 이름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엄밀히 말하면 다리 이름이 아니라 다리의 재질에서 기인한 준명칭이 이름으로 정착된 현상이다. 일제 강점기에 가설된 다리가 있었고, 민가 5호와 주막이 있었는데, 1930년대 군용지로 흡수되었다.

햇골은 박달동 수리산 선녀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전에 의하면 조선 시대 어느 선비가 군수가 되어 안산으로 부임해 가던중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 일대가 한낮에도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산림이 우거진 점에 착안하여 해골이라 했다고 한다. 이는 길제 성질과는 반대로 이름이 지어진 특이한 현상이다. 지리적 환경에 대응하는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해가 들기를 바라는 주민의 소망이 지명에 개입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후 마을이름도 해골이라고 했다가 햇골로 불렸다고 한다. 김해 김씨와 창원 황씨 등이 10여 호의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았고, 웅기동네라고 할 만큼 웅기가 유명했다고 한다. 이 일대는 일제 강점기 군용지로 흡수되었다.

셋터말(新基村)은 붓골 사이에 있다. 셋터말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다는 뜻이다. 사이의 준말, ‘새’와 ‘터’가 합쳐져서 ‘셋터’가 되었다. 조선 중기에 영월 엄씨가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달성 서씨, 김해 김씨 등이 세거했다. 이곳도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로 흡수되었다. 한편, 인접지명에서 파생된 마을(명)로는 동수암이 있다. 이 동수암의 유래는 고려 때 창건한 사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시흥군 수암면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동수암으로 불리었다는 설이 있다. 이 마을에는 파주 엄씨, 광주 이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 있는데, 이 일대가 군용지로 편입되자, 살던 주민 대부분이 인근 지역인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신촌)과 박달2동 능골로 분산 이주했다.

미름말은 셋터말 남쪽에 있었다. 마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 우물을 미름물이라 했는데, 마을 명도 우물명을 취해 ‘미름물’이라 칭했다. 이 마을에 세거한 성씨는 최씨, 김해 김씨 등으로 알려졌다. 5호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평양 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들어서자 폐동되었다. 이곳에는 엄성(嚴惺)(1575-1628, 응교), 엄황(嚴惶)(1580-1653, 영흥부사), 엄정구(嚴鼎九)(1605-1670, 한설좌윤) 등 영월 엄씨 선대의 묘가 많았다.

막상골은 붓골 남쪽에 있다. 안동 권씨, 밀양박씨, 김해 김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었는 데,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가 건설 폐동되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전해지지 않는다. 친목마을(親睦洞)은 범고개 마을 북쪽에 위치해 있다. 마을 명칭은 관악로 변과 안양역 주변의 철거민들이 서로 친하고 화목하게 잘 살자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고 범고개(虎峴洞)는 친목마을 남쪽으로 박달로 변에 있다. 범고개(虎峴)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고개이름을 취해 ‘범고개(虎峴洞)’라 칭한다. 예전에는 이곳 남쪽(현재 군용지에 편입됨)에 웃말(上村)이란 마을이었다가 어느 부자가 화재로 가산을 탕진하자 마을을 떠난 데 이어, 마을 주민이 범에게 잡혀 죽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하여 모두 지금의 위치로 이주 정착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나주 임씨와 안동 권씨로 알려졌다. 마을이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의 건설로 안양-안산 간 도로가 개설된 후 1972년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박달동 620-5) 등을 시발로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마을에서는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2일에 요골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그리고 박달2동 구릉지는 인동 장씨의 집성촌이다. 현 안양고등학교 안쪽 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동 장씨 옥산태상공파 증시조 장만(1566-1629)의 후손이 안양에 살기 시작한 것은 1700년경이었다고 추측된다. 조선 인조 때 병조 판서를 역임한 장만의 후손들은 원래 경기도 파주 내면 연풍리에 세거해 왔는데, 여러 차례 등과에 실패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포 부곡동 쪽에 터를 잡아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동 장씨들이 인근에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 인동 장씨 일부가 1900년경 박달 2동 구릉지에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월 엄씨 역시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 · 노동운동 :

한무리 교회를 중심으로

안양(만안)의 근대화 개괄

한국의 공업화와 산업화가 처음으로 본격화된 것은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조선에 진출한 일본자본은 국내에서 독점에 밀려난 군소자본이었다. 일본 독점자본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게 된다. 그 이유는 조선이 근대공업, 건설지로서 몇 가지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로는 풍부한 공업자원이고, 둘째로는 황민화 교육과 파쇼적 통치를 통해 이룩된 훈련된 저임금의 노동인구, 셋째로는 치안의 확보였다. 일본 독점자본의 조선진출과 대규모 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가 아니더라도 내재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후에 정조 대왕이 만든 이 국도가 시작이 됐어. 그전에는 과천 길이라 이거야. 만안 쪽에는 주 도로에는 사도세자 저기 정조 대왕부터 만안로 1번 국도가 있어. 국도가 된 후에 1902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1902년에 이 안양철도 부설을 시작했다”라고... 1930년대 20년대에서부터 30년도 사이에 이 사람들이 1902년도에 이 부설을 하면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구획정리 할 적에 자기네들이 도시를 이야기했을 거야(안양학연구소2006. 변원신 구술).

안양은 1870년 서울-부산 간 국도가 안양을 통과하였고,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역이 생기게 됨으로써 근대적 도시로 점차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근대화의 싹은 조선 후기에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길’과 관련이 있다. 길은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통로, 방향, 순환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형이상학적 개념인 이성, 도덕 등을 의미하며 행정 구역을 뜻하기도 한다. 어떤 길은 단순한 통로와 방향으로 남지만 어떤 길은 근대화의 기반으로 산업의 순환, 대규모 이동이나 차량통행을 전제로 계획적·대규모적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안양 중심부의 안양 1동은 200년 전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천장하고 능행을 위해 유래정 뒤에 안양행궁을 짓고 능행할 때 쉬어가곤 했던 곳이다. 그 후 1870년 서울-부산 간 국도로 이어지고 안양을 통과하게 되고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안양시·안양문화원·안양대학교, 1998: 42). 이러한 여파로 안양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이 생겼고, 안양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이 형성되었다. 안양의 성장도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전취락(驛前聚落)의 마을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안구에 새롭게 형성된 마을로는 꼬챙

이(석수2동), 덕천동(안양7동)을 들 수 있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2008: 113-4). 덕촌동 역시 안양천변의 별판에 있어 ‘벌터’라고 불리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마을들은 하천변 충적지에 터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 들어 본격적인 제방의 축조 등의 수해방지책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근대화를 경험하는 안양역 주변의 풍경은 다음과 같다.

안양역 옆에는 주재소가 있었다. 주재소에는 일본인 순사 두 명, 조선인 순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이 안양의 치안을 담당했다. 옆 바로 옆쪽에는 운송점인 마르시보, 지금으로 치면 대한통운이 있었다. 마르시보 옆에는 우편소가 있어서 주재소와 우편소가 마주 보고 있었으며, 금융조합은 지금의 안양농협 자리 쪽에 있었다. 금융조합 뒤쪽으로는 서이면 사무소(안양은 1941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에서 시흥군 안양면으로 행정명 개칭, 서이면 사무소는 안양리가 커지면서 1917년 이곳으로 옮김)가 있었다. 안양역을 마주 보는 앞 쪽으로 300m쯤 떨어진 곳에는 신사가 있었다. 그리고 만안로는 따라 군포 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는 신사가 있었다. 그리고 만안로를 따라 군포 쪽으로 1km쯤 떨어진 곳에 안양보통학교(1929년 개교)가 있었는데, 지금의 안양초등학교 자리다. 일제 강점기 안양의 경제는 화신상회, 삼광정미소, 양조장 등 이렇게 세 집이 주도했는데 화신상회는 당시 안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잡화상회였다. 1926년 안양역 뒤쪽 안양천 근방에 오일장인 구 시장이 개설되었다. 1년 전 을축년 대홍수로 구 군포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2008: 5-13 재구성).

안양은 경인공업지역의 일부로서 일제가 식민지 강탈을 목적으로 1930년대 본격적으로 공장을 설립한다. 1930년대 초기에 일제는 한국에 방직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에 걸친 수질 검사를 하였는데, 그 중 안양 박달동의 수질 검사결과 가장 우수해서 안양1동 구 대농 터에 조선직물주식회사가 1932년 설립되었다. 안양지역 최초의 근대적 산업시설인 조선직물주식회사는 당시 안양의 대지주였던 일본인 다카세 세타로가 1만 평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회사하여 자본금 100만 원으로 창립되었다(안양시사 1992: 1256). 뒤이어 석수동에 조선견직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일제가 북선개발이란 이름으로 북한지역에 대규모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남한 지역에는 주로 방직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을 배치했다는 점에 비추어 안양지역에 방직공장이 들어선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안양지역은 경부선이 통과하고 서울, 특히 영등포 지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자리 잡기에는 좋은 지리적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공업은 오히려 발전하고 있었다. 1949년 안양지역에는 총 14개의 공장이 있었다. 그 중 3개의 공장만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해방 이후에 건설된 것이라는 점을 통해 안양지역의 공업이 해방 직후에도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공장은 대부분 안양읍에 있었으며 공장규모는 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되는 공장이 8개였고, 조선직물주식회사(298명), 조선견직주식회사(165명), 금성방직주식회사안양공장(138명), 제일방직안양공장(117명), 삼덕제지주식회사 안양공장(103)명 등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은 5개에 이르고 있었다⁰².

그러나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은 안양 공업에도 커다란 타격이었다. 전쟁 이후 안양지역의 공업시설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한국전쟁의 피해가 컸다는 것이며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안양시사 7. 296-297).

196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는 전쟁 후 복구와 물가안정 및 수입대체 공업화의 초기 단계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안양지역 공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1년 6개에 불과하던 기업체 수가 1966년에는 32개로 늘어났고, 1971년에는 64개가 되어 10년 만에 무려 10배가 증가했다(안양시사 7. 2008: 298). 석유파동 충격 속에서도 안양의 공업은 확대일로를 걷게 되었다. 1971년 64개였던 기업체 수가 1975년에는 169개로 증가했고 1979년에는 369개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2차 석유파동에 이은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침체기였음에도 안양지역의 기업체 수는 1981년에 409개를 기록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가히 기업과 공장설립이 폭발적이라 할 만했다. 이렇게 1970년대 들어 안양지역에 공장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서울지역 공장입주 억제 정책으로 서울에 인접한 안양으로 공장이 몰렸기 때문이기도 했다⁰³. 1920년대에 태어나 1930년에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학창시절에 영등포를 공업도시로 배웠지만, 1950~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안양을 공업도시로 배우게 되었다.

⁰² 시흥군(금천지衿川誌 1950)의 1949년 통계.

⁰³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가 급속한 수출증대를 통해 고성장을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안양지역도 197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연평균 성장률은 11.9%에 달했다. 1973년 29개였던 수출업체는 1977년 34개, 1983년에 53개, 1990년에는 73개로 증가했다. 수출실적은 1975년과 1982년, 1990년에만 감소 추세를 보였고 나머지 연도에는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1976년과 1978년에는 50%의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금액별로 보면 1973년에 8,984만 6,000달러로 시작해 1978년에는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81년에는 3억 달러를 돌파했다. 1989년에는 노사분규 등으로 다시 6억 달러대로 후퇴하기도 하였다. 수출상품의 구성도 1970년대에는 주로 경공업 제품인 섬유제품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중화학 공업 제품이 증가하기 시작해 화학, 기계, 금속, 전기, 전자제품의 비율이 증가하는 대신 섬유류 제품의 비율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섬유류는 1973년에 전체 수출액에서 72.4%를 차지했으나 1985년에 52.3%, 90년대에는 45.9%로 감소했지만, 화학제품류는 1973년 6.8%에서 1979년에는 20.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다가 1990년대 들어 12.3%를 유지했다. 기계·금속제품류도 1979년 18.8%까지 증가하였다가 1990년에는 6.8%로 하락하였다. 전기·전자제품은 1980년 들어 급속하게 증가해 1985년 21.6%, 1990년도에 27.8%를 기록하였다.

금성방직은 여공이 3,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안양의 경제는 금성방직이 되었다. 1960~70년대 초 금성방직은 여자 종업원이 3,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다 보니 안양 경제는 금성방직에 의해 좌우되었다. 금성방직 여공들을 중심으로 계가 활발하게 조성되었고, 외상을 한 금성방직 직원들이 월급날에 맞추어 외상값을 갚곤 했으므로, 월급이 늦어지면 경제가 멈추는 지경에 이르렀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17).



1969년 3월 금성방직 작업 모습

지금은 국민은행이 들어선 주변 일대 만안구 안양3동 695번지 금성방직이 있던 자리다. 생산이 한창이던 1968년에 만안구 안양1동, 지금의 태평방직과 합병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변신한 금성방직(후에 (주)대농이 됨)은 면직생산의 중심이었다. 회사가 한참 호황이던 70년대에는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마다 체육대회, 응변대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이날은 공장 주변은 축제분위기였다고 한다. 금성방직 노동자들은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양1동과 지금의 프란체 아파트가 있는 자리, 구 시장 주변에서 자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안양천 변의 가옥구조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방 하나에 부엌 하나씩 세를 놓았고, 그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여서 환경이 무척 열악했다고 한다. 70년대 안양, 만안구 하면 떠오르는 근대적 공장은 동화약품 안양 공장(만안구 안양7동 189번지)이다. 활명수로 유명한 이 공장은 72년 덕천마을에 세워지면서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빠르게 상가가 건설되었다. 덕천시장 안의 순대북

음 골목과 옷집은 여성노동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1980년 만안구 석수동에 최신시설을 갖춘 GMP공장이 설립되어 천안으로 이전하는 1998년까지 13년간 박카스가 생산되었다. 석수동(1동)에는 종합비타민 ‘비나폴로(정식명칭 비나폴로 엑스트라)’로 유명한 유유산업이 1959년 5월에 입성해 있었다. 안양역 부근에는 한국특수제지와 금성방직, 골판지를 만드는 삼덕제지, 국내 최초의 나일론 공장인 한일나일론과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있었다. 현대양행(이후 만도기계)은 박달동에, 동화약품은 덕천마을에, 동아제약과 유유산업은 석수동에 있었을 정도로 만안구는 공업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안양지역의 공업화 도시화에 있어서 1977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새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로가 완전히 형성되었고 중앙로 쪽으로 지하상가가 생겼다. 1983년에는 대규모 백화점인 본백화점이 1985년에는 벽산쇼핑이 생기면서 중앙로 일대는 변화가로 변신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즈음 중앙로 일대를 둘러싸고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가 풍부해지면서 ‘안양 1번가’라는 별칭이 생겨난다(안양시사편찬위원회 2권, 2008: 22).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10·26 사태와 그 이후의 정치적 격동, 투기, 인플레이션, 임금인상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급기야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쌀 흉작이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으로 불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안양지역도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업화가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학 공업화의 영향으로 안양지역에도 중화학 공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⁰⁴. 1980년대 안양지역의 산업구조는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그것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의 빠른 성장이었다. 1981년 안양지역의 전 산업 사업체 수는 9,717개로 전국의 1%를 차지하였다. 이것이 1986년에는 각각 1%, 1.2%, 1.6%로 증가하였다. 즉, 안양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잠시, 안양지역의 산업화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안양지역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섬유, 식품업은 물론이고 화학,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으로까지 급속하게 공업화가 진전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그 성장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양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바탕으로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환경 관련 법제 추진으로 공업

⁰⁴ 1981년 409개이던 기업체 수가 1985년에는 602개로, 다시 1990년에는 1,118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업의 평균 증가율이 27%로 가장 높았고, 기계·금속업도 연평균 13%를 기록했다. 섬유업은 이보다 약간 낮아 11.5% 증가했고, 화학업은 7.9%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업원 수를 보면, 1985년에는 4만 729명으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5만 5,048명으로 증가했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1990년 말 대기업이 31개, 중소기업이 1,087개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97.2%로 1981년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도 1961년 614명이었으나 1966년에는 219명, 1971년에는 19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역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입주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입지 개발에 영향을 미쳐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 결과 도시 과밀화로 인한지가 상승을 부추겨 제조업체들은 보다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전통적 제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증가에 따른 경제 기반의 약화, 도시의 과밀화, 환경의 악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1990년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 확산 및 정부의 정책전환과 수도권 입지의 각종 제한 조치로 안양지역의 제조업은 하강세를 면치 못한 시기였다. 기존의 제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입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 공해유발업체는 안양 밖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말 IMF 외환 위기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종업원의 대량감원이 있어 지역 노동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⁰⁵. 사업체 수가 소폭 감소한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종업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안양지역의 기업 및 공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물론 생산자동화 등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공장 규모의 축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의 급속한 도시화로 대규모 공장들이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993년~1998년 지방으로 이전한 만안구의 주요 업체는 만도기계(박달 2동), 한국제지(안양1동), 동아제약(석수 2동) 등이 있다. 이렇게 제조업에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것은 부동산, 금융, 보험 등 각종 서비스업이었다. 여기에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안양지역이 주거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공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양지역 공업발전의 방향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첨단산업, 벤처산업으로의 전환이 특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기도 했다. 안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2년 10월 만안구 안양 7동 쌍용제지(주) 부지에 유천 팩토피아가 처음이었다. 그 후 동일 테크노타운이 1995~1997까지 4개 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공장형태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산업 구조의 전환이었다. 그래서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의 산업발전 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의 고도화, 첨단화, 소프트화, 수도권

⁰⁵ 이러한 상황은 각종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안양시 각 연도 안양통계연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1990년 광공업 사업체 수는 1,050개로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으며 1993년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1,394개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7년 1,376개였던 사업체 수가 IMF를 겪고 난 후인 1998년에는 1,113개로 대폭 줄어 IMF의 충격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현재 안양시의 광공업 사업체 수는 1,300여 개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정체 현상을 보인다. 사업체 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업원 수다. 1989년 5만 3,167명에 달했던 월평균 종업원 수가 1991년부터 4만 명 선으로 떨어진 다음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1996년에는 드디어 3만 명 선으로 하락한 다음, IMF 외환위기인 1998년에는 2만 9,089명까지 떨어져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1999년부터 다시 3만 명대로 증가했지만 2003년부터 다시 2만 명 선으로 하락해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첨단정보 및 업무정보의 공간적 분담, 환경친화적 산업유지와 계획적 공업입지의 유도, 도시 상업 및 교육도시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안양의 근대화와 노동자 · 노동운동

일제 강점기 노동자의 삶

일제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자는 철저히 소외되었다. 방직공장이 많이 집결되어 있던 안양의 조선직물의 임금과 작업환경을 대단히 열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아는 지역 사람은 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두메산골의 형편이 어려운 처녀들이 입사하였다고 한다. 공장은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으며 외출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식민지 노동자들의 삶은 가혹하였다. 몇 군데 공장을 제외하면 거의 나무판자나 양철을 누더기처럼 잇대 만든 창고 같은 공장으로, 변소가 설치된 곳조차 드물었다. 직공의 대다 수는 거지 움막 같은 곳에 기거했는데 방안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했다. 하루 다섯 시간 노동에 오십 전에서 일원이 안 되는 임금을 받아 일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성노동자들은 작업복이 한 벌밖에 없어 냄새 때문에 곁에 갈 수 없을 정도였다. 여공들의 처지는 더욱 암담했다.

농촌에서 올라온 여공들은 대개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모집되어 온 여공들은 대개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로 하루 이십 전 정도 되는 임금을 받으며 공장생활을 시작해 몇 년 지나야 겨우 사십 전을 받는 정식공이 되었다. 기숙사는 한 방에 열 명이 넘게 수용되어 발과 머리를 잇갈리게 누어 칼잠을 자야 했으며 도망치지 못하도록 수위들이 교대로 감시했다. 기숙사 밥은 감옥의 그것과 다름없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안남미와 통을 절반씩 썩은 콩밥이었고, 반찬이라고는 시커먼 단무지가 전부이다시피 했다. 일본인 감독들은 여공들을 아무 제한 없이 욕하거나 때렸으며 조퇴나 외출은 일절 허가되지 않았다. 어떤 공장은 여공이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아놓고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노동하게 했는데 계약기간 전에 퇴사를 하거나 달아나면 몇 배의 위약금을 물게 하고 그동안 강제로 저축한 돈을 하나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럼에도 여공들의 유일한 저항수단은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대공장에서는 기숙사 담을 넘어 달아나는 여공들이 속출했다(안재성, 2004: 91-93).

일제 강점기 안양노동자들은 민족적·계급적·성별적 억압이라는 삼중적 억압으로부

터 고통을 받았고 저항하였다. 이 사실은 동아일보의 보도(1935년 4월과 7월 조선직물 노동자의 투쟁, 36년 같은 공장 노동자들의 동맹파업)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방 후~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안양지역 노동운동

해방 후 노동자들은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반공주의를 강화시켰다. 노동자들의 일체의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조직을 가질 수 없었다. 잠시 4.19를 통해 열린 공간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노동자들은 또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이후에 노조는 한국노총으로 전환되고 각 산별노조들이 집중적으로 조직작업에 나서면서, 안양에서도 1961년 고려석면 분회(9월 1일, 48명), 삼덕제지 지부(9월 3일 115명), 한국특수제지 지부가 결성되었고 다음 해 4월 21일에는 삼영하드보드지부(47명)가 결성되었다. 1960년대 안양지역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저항으로는 1969년 태평방직과 금성방직의 파업이 있었다. 이는 전국 섬유노조의 총파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그해 9월 17일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이시정, 2007; 안양시사편찬위원회 3권 2008: 583에서 재인용).

빼앗긴 메이데이

1957년 5월 22일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 도당들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만치 반공하는 우리 대한의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되도록 제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노총은 1958년 11차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보사부의 인준을 받았다. 1959년 3월 10일 제1회 노동절 기념대회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껍데기만 남은 노동절도 그 이름이 마땅치 않아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만들었다. 1987년 7.8.9투쟁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1989년 메이데이 100회를 앞두고,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의 연대와 해방의 날만큼 일천만 노동 형제들의 강력한 연대와 전투적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것”임을 선언하고, 전국에서 동맹파업, 총회투쟁,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1993년 5월 1일 탄압 받지 않고 노동절 집회를 열었으며, 1994년 정부는 3월 10일이 아닌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개정하여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공식적인 이름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다.

1960년대 말에는 ‘차관기업의 부실화’ 등 자본축적의 위기와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졌지만, 박정희 정권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1970년)’)를 추진하고, 사채동결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지원하는 ‘8.3조치(1972년)’를 취한다. 1970년대 중반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추진, 이들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어 독점자본에게 경제력이 집중됐다.

70년대 노동현실

“섭씨 4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면 얼굴과 손까지도 땀띠가 번지고 뿌연 숨을 뿜어쓴 동료들의 모습… 숨이 턱 당도록 탁하고 더운 공기는 우리에게 폐결핵을 선물하기 일쑤며, 무좀은 1~2년만 근무하면 당연히 되어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 시멘트 바닥에 미친 듯이 문지르고서 피가 흐르는 발을 보고 울음… 밤잠 못 자며 배를 졸이며 번 돈은 병원에 갖다 바치고, 폐가 썩어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약값을 위해 또 숨덩이와 싸워야 하는 근로자들이 수출실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불필요할 땐 여지없이 잘라 버리는 회사… 저희가 아무리 가난한 설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몰인정한 사회가 공장이란 말입니까?”

(김옥섭, “노동자가 본 예수(2)-동일방직”, 『씨알의 소리』, 1977.10, 64-5쪽)

70년대 안양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에 힘입어 72년 64개 업체가 70년대는 350여 개로, 1971년에 1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79년에는 20만 명으로 늘어났다. 73년 안양이 시로 승격되었는데, 1973년 안양상공회의소의 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5개사에 조합원 수가 5천 291명, 1974년에는 같은 5개사에 10만 94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이후 청계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되지만, 안양의 섬유나 금속 등 대기업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만, 노조운동은 미비했다(이시정, 2007: 48). 그 이유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노동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국가와 국가기구에 의한 직접적 개입’과 관련이 있다. 당시, 정부는 노동운동을 ‘국가안보에 의한 사회질서와 치안유지의 차원’으로 다루면서 ‘노사간의 대립갈등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설파하였다. “종업원을 가족처럼, 공장 일을 내 일처럼”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건 공장 새마을 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일상과 의식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노동관계법을 개악하여 단체교섭을 축소, 단체행동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쟁의 자체를 소규모로 제한하는 한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노조활동을 축소했다. 노동자 통제의 중심에는 한국노총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90년대 전까지 ‘군사정권 승인과 지지’ 및 노조정치활동을 배제하는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했다. 일례로 72년 10월 유신 지지 성명발



1970년대 방직공장 내부

표, 74년 한국반공연맹가입, 76년 이후 새마을 교육 강화시행을 비롯해서 87년에는 호헌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영향 아래에 있던 안양지역 노조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금성전선 지부는 10월 23일 유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계몽활동에 들어간다. 금성전선 노조 지부장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가 각종 반공 강연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양나일론, 삼풍섬유, 유유산업 등에서 노조결성 투쟁이 전개되었고, 한편으로는 동일방직 등 대표적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의 싹이 곳곳에서 움트기 시작하였다. 움트기 시작하였다(이시정, 2007).

70년대 안양지역 노동자와 기독교 - 안양 근로자 회관을 중심으로

도시산업선교회는 와우아파트 붕괴, 광주대단지 사건 등으로 인해 도시빈민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거리로 부각되기에 이르자 지금까지 훈련의 단계에 머물고 있던 빈민 선교를 더 적극적인 빈민선교 활동의 전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예장, 기감, 기장 등 중요 교단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1971년 9월 1일 초교파적 선교기구인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창립 이후 위원회는 활동지역을 선정, 책임을 배분하였다. 선정된 활동 대상 지역은 서울의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권호경 전 도사), 영등포 구로동(김동완 전도사), 한양대 뒷산 사근동(김진홍), 성동지역(윤순녀), 인천의 만석동(전용환 전도사), 안양지역(한성인) 등이었다⁰⁶. 안양근로자회관도 1969년 설립되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1971년 9월 28일 크리스찬 사회행동협의체(KACO-UIM)에 참여하였다⁰⁷.

70년대 안양지역 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안양근로자회관은 국제 카톨릭 형제회(A.F.I)의 도움으로 노동자 사목을 시작하였다. A.F.I는 평신도 사조직 단체로서 세상 속

⁰⁶ 이 위원회는 도시빈민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는 현실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개인적 회개와 각성을 설교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도시빈민 지대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이를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게 하는”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종래의 시여(施與)하는 식의 구제활동을 근간으로 한 선교활동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목표설정이었다. 초창기 실무자들의 생활비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지원받고, 활동비는 크리스찬 사회행동협의체(후에 예큐메디칼 현대선교협의체로 개칭)로부터 지원받을 것을 원칙적으로 하였다.

⁰⁷ 여기에는 도시산업선교에 관심을 둔 가톨릭 4개 단체 - 대한가톨릭학생총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안양근로자회관, 가톨릭노동장년회 - 와 개신교의 7개 단체 - 크리스찬아카데미,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 한국기독교학생총연합회, 대한YMCA연맹, 대한YWCA연합회,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 -가 참여하여 사회선교를 향한 신·구교의 연합을 이루었다.

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형제애를 무기로 삼아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가톨릭 조직으로 근로자회관의 1대 관장은 오스트리아 사람인 서정림 말가리다가 임명되었다. 근로자회관은 1969년 9월 10일 기숙사를 완비한 안양 근로자회관의 낙성식을 거행하고 10월 1일, 대농에서 일하던 5명의 JOC 회원이 입사하면서 기숙사업을 시작하였다. 근로자회관은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가난한 노동자로 연명해야 했던 10대, 20대 청년들은 당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근로자회관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나이 어린 근로자들은 사회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기 쉽고 직장에서 혹사당하기 때문인지 직장 이동이 상당히 잦은 편이다. 근로자회관은 이런 실정을 참작하여 숙소생활을 오랫동안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장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여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정향잡지, 1980 한성인 관장).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처음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장내동성당(현 중앙성당) 정원진 루가 주임신부였다. 실제적 설립과 운영은 서정림 말가리다 선생님과 한성인 벨타 등을 위시한 AFI들의 하느님의 사랑을 현세에서 실천하려는 헌신적 희생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처음에는 여자 기숙사만 있었는데 입사조건은 “안양에서 백 리 이상 떨어진 곳에 집이 있는 19세에서 23세 사이의 취업여성”으로 ‘최소 6개월, 최장 2년 이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근로 청소년이었다. 기숙사비는 기숙사생들의 임금수준에 따라 다른데 기숙사비 책정의 원칙은 기숙생이 받는 기본임금의 열흘 치였다(71년 평균 기숙사비는 3천 원).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나머지 1/3은 문화비와 교육비, 마지막 1/3은 장래나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 후 근로자회관은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해 자습실, 도서관을 갖추었다. 기숙사는 남녀 기숙사가 함께하는 것이 특색이다(80년 현재, 남자 36명, 여자 78명의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 나이 어린 영세 노동자로서 안양지역 출퇴근이 가능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기숙사에 입사할 자격을 주었다. 회관에는 4명의 지도자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의 생활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오락지도, 요들송, 고전무용 강습 등 일반 정서교양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법 강의 등의 노동교육을 했다. 특별히 교회기관인 만큼 산업선교를 위해 주 1회의 기도회, 월 1회의 미사, 예비자 교리 등의 종교교육도 실시하

였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은 월례회, 자치회, 기타 작은 모임을 열어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소비조합과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경험과 협동정신, 자신감을 키워갔다. 그밖에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해 자신들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이웃사랑을 나누었다. 근로자회관 시설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기숙사 외에 자습실과 도서관이 있다. 80석을 갖춘 자습실은 기숙생과 수험생, 취직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지역 주민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었다(경향잡지, 1980). 당시 기숙사생이었던 이금

연(전 전진상 복지관 관장)은 근로자회관이 당대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공간이었다고 회고한다.



1970년대 근로자회관 준공 모습



근로자회관 기숙생들



근로자회관 기숙생들 나들이

AFI(아피)라는 회원들을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로자회관(기숙사)에서 그때 우리 독일에서 오셨었던 서정림(말가리다) 선생님하고 한성인 선생님하고 또 여러 스텝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안양근로자회관에서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때가 79년이었으니까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뭐 상당히 활발하게 짹짹 찻었을 때죠,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면 그것은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깥세상은 오직 일터밖에 몰랐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근로자회관) 안에 들어오면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래든 언니든 동생 또래든 같은 여성들이 어 뭔가 그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성 들인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그런 생활훈련 같은 것, 생활교육 이런 것들이 재미도 있었고, 가끔 성당에 따라다니는 것,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작은 모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존에 제가 그때까지 10대에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학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청결하죠, 그 정원 있었

죠, 탁구도 칠 수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죠, 또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노래도 부를 수가 있었고, 집단놀이들이 있었죠.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연극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이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 이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저한테 굉장히 어~ 새로운 것을 주는 곳이었죠(이금연 구술).

외형적으로는 기숙사의 형태를 띠었지만 근로자회관은 공장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와 소통공간이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지면서 7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교우근로자 모임은 교회 안의 젊은 근로자들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비 복음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1972년)이었다. 일부는 노동절연구회를 만들어 노동절행사(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기획, 근로자 노래자랑을 지역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하였다. 75년부터는 경기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농상담도 시작했다. 75년만 상담 건수가 400여 건이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탈춤반이 만들어져 활동하기도 했다. 79년에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탈춤 강습을 시작하였고 곧이어 노동법 강좌도 설치하였다. 근로자회관이 생기고 나서 회관 프로그램의 성격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당시 한성인 근로자회관 관장과 신정숙이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이시정, 2007: 54-56). 1980년대에도 근로자회관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주요 공간이 되었다. 87년을 전후해 안양에서 이루어졌던 미술학교, 민요연구회, 독서회 등 문화운동이 근로자회관을 발판으로 지역사회로 퍼져 나갔다.

87년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활동하던 때였는데, 시대상황이 힘들었던 때라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이곳만이 유일했죠(안양시민신문, 2007년 12월, 김인봉 안양포럼 총무).

안양근로자회관은 1990년대 안양지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근로 청소년들의 생활방식이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되게 된다. 1998년 3월에는 전·진·상 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소외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의료사업을 행하며 영세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선포,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전진상 복지관은 다양한 교육문화운동을 통해서 노동자 문제, 지역 빈민문제 등 당시 사회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시작된 전진상복지관(전신 안양근로자회관)의 어머니 교실, 시민대학의 문해학습(文解學習) 공동체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한글, 영어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지역공동체에 대해

의식교육을 시켰으며 여기서 배운 학생이 가르치는 곳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전진상 복지관에서 이주여성 한글교실을 신설했다. 1990년대 이전부터 산업사회의 이주여성 노동자 문제,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 문제가 심각해져 일찍부터 이에 대한 상담 및 후속 지원활동 등을 진행해 왔는데 이주여성 한글교실도 그 활동 중 하나였다. 2003년에는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로 고통받는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인 WeHome이 여성부의 위탁으로 전진상 복지관에 개설됨으로써 이주여성을 위한 인권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전진상복지관은 특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섰다.

근로 청소년들이랑 90년대 초 이렇게 살면서 기숙사는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해왔죠. 92년 ~ 93년, 근로자회관 주변에 시장 보러 오는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이런 노동자들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로자 회관 안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쓰러 들어오면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말가리다 선생님과 당시 코리아헤럴드를 보는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300인 이상 업체의 10% 정도는 현지에서 데려온 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었나 봐요. 전화를 거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말가리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독일의 이주노동자 사례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영어로 한 두 마디를 한다는 핑계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자회관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93년부터는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사감을 하면서 이주노동자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1990년대 이후에도 60~70년대의 노동자와 양태는 다르지만, 그 고통의 본질을 같이하는 비정규직노동자와 이주근로자가 나날이 그 수를 더해가고 있고,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대변되고 있는 인간소외가 나날이 그 극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은 어린 근로자들과 복음적 삶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전진상’ 설립 당시의 이 땅의 현실과 오늘의 현실이 결코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양 근로자 회관(전진상복지관)은 2007년 폐관된다. 그러나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근 40여 년 동안 근로자회관은 땅의 열악한 노동자와 여러 이유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약자에게 역사한 하느님의 축복과 증거였다. 그리고 한국천주교가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적 형제애가 어떠한 것인가를 실전으로 가장 잘 현시하여준 기념비적 장소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 이후 안양지역 노동자와 한무리 교회⁰⁸

한무리 교회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일의 규모에 비해 대단히 작은 교회이다. 주일예배 인원이 40명 남짓이다. 그러나 지역에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는 교회이다. 한무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을 섬기며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한 때는 1985년. 한무리 교회는 그때부터 종일 탁아소, 노동자 야학, 무료 진료소, 노동 상담소 등을 통해 지역의 노동자, 빈민과 함께 해왔다. 그동안 상가 전셋집을 14년 동안 전전하며 6번의 이사 끝에 2000년 11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했다. 군포 시유지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지만 사용료만 내고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⁰⁹.

다른 교회와 뭔가 다르게 보이는 한무리 교회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먼저 민중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중교회의 시작은 정확하게 어느 한 시기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이준모, 1996). 1970년대 사회 인권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있던 기독교운동은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기독교 내의 명망가 중심으로 펼쳐졌던 과거의 기독교운동을 반성하며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교회갱신운동을 목표로 하여 빈민지역, 공단지역에서 기층 민중과 연대하는 교회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60년~70년대로 이어지는 개발독재시대, 지속적으로 배제된 민중의 고난, 이에 항거하는 민중과 학생들을 접한 일단의 그리스도교 지식인들의 신학적, 신앙적 반성에서 출발하였다(김진호, 1994). 실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민중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은 민중선교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부르짖으며 교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마치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켰던 순교자와 같은 길이었다. 안양 한무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지게 된다. 사실 안양지역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인천, 성남, 이리 등에 비해 많이 늦었으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소수의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지역의 사업장에 들어와 활동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민중교회는 노동운동 지원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한무리 교회는 ‘일하는 예수회’와 밀접한 관련이 깊다. 일하는 예수회는 1983년 성수삼일(유재무·정태효), 안양 한무리(박진석·최주상·우예현), 대전 빈들(김규복), 대구 달구벌(안기성·현제식·안미현), 영등포산선(이근복·손은하·진방주·박진석·신승원·손은정), 울산(김영락·박중호·김용식), 복지회(윤창현)가 초기 멤버였다. 이때는 인명진 목사가 회원자격으

⁰⁸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안양지역(만안)의 여러 종교계의 노동운동 지원활동,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을 다 다루지는 않고 한무리 교회를 중심으로 안양지역 노동, 지역운동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⁰⁹ 최소란, "군포공단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 품는 - 한무리 교회", 뉴스엔조이(2003-08-14).



한무리 교회 · 나눔의 집

로 모임을 항상 같이했다고 한다.

처음 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처음에는 노동교회라고 했어요. 목사님들도 그랬고 이 교회는 장신대 장로회 통합 측이예요. 장신대 내에 ‘현대신학연구회’라는 그런 서클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서클이죠. 말하자면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민중신학, 이런 거 공부했던 분들이죠. 박진석 목사님도 기수가 있더라고요. 몇 분이 같이, 같은 학년이겠죠. 그분들이 기수를 만들어 현장에 들어가서 일 년이면 일 년 현장활동을 하고 나서 교회를 만드는데...(구본철 구술).

초기 멤버들은 이미 신학교에서부터 만났기에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결합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학교를 졸업 후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반노동자 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재생산 구조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고생스럽지만, 개척교회를 해서라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기층민중과의 연대를 통한 기독교운동을 도모하였다. 아래 회고담을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한 젊은 목회자들의 생각과 활동을 살펴보자.

당시의 민중교회 운동이 진보적이고 젊은 목회자들의 개척교회 운동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예상만은 훈련구조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산업선교’를 하기 위해서 것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는 후배들을 학내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거나 소개받아 권장하는 방식으로 뜻있는 사람을 모았다. 아무래도 ‘현대

신학연구회'에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춘 회원들이 있으니 그곳이 우리 회원들의 활동의 장이고 시작이었다. 현신은 76기부터 시작되었는데 77기, 78기의 핵심인자는 이미 기독교 청년학생운동 쪽에서 만났는데 이들이 다시 신학교에서 만났다. 당시 운동을 평생 하려면 생활을 해결하는 토대 속에서 해야 하는데, 교회의 갱신과 사회 변혁을 위하여 목회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막상 입학하였지만 보수적인 학풍과 열악한 상황 때문에 졸업 후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중략) 76기부터 83기 정도까지는 조직력과 단결력이 높았다. 이미 학내외에서부터 서로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사이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가 만든 '현대신학연구회'도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객관적인 상황도 내적인 요인도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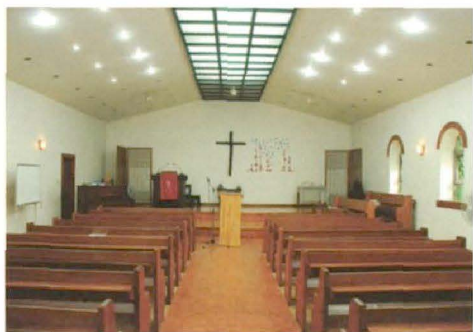
박진석 목사에 이어 한무리 교회에서 사목활동을 한 고 최주상 목사가 한무리 교회에서 민중사역을 꿈꾸게 된 계기는 1979년 장신대 3학년 시절 친구의 권유로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다니면서부터였다. 그곳에서 최 목사는 같은 또래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에 시달리며, 단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저 편하게 대학에 다니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 ‘일하는 예수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안양에서 10개월간 공장생활을 하며 안양공단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가정을 이룬 박광혜 사모는 나눔의 집 부대표로 나눔 사역을 도맡아 하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민중신학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산업노동자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공장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접근은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과 공장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그리하여 1960년대 말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도시산업선교회의 지도자들은 노조건설을 돕는 데 관심을 두었다(구해근, 2002: 118). 일하는 예수회 소속 목회자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후일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하는 예수회 소속 목회자들의 훈련과정은 교회개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산업선교실무에 관한 훈련과정을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과정은 공장노동을 1년 혹은 6개월을 하였고 노동문제의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교육받고 유관기관들을 탐방하는 방식이었다(일하는 예수회).

그들은 노동법과 노조조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업노동자들의 사회



한무리 교회 위치



한무리 교회 예배 강강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기본 목적은 현장의 자주노조운동을 이끌 수 있는 소규모의 핵심적인 노동운동을 길러 내는 일이었다(조화순, 1988; 오글 199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구해근 2002, 118에서 재인용).

한무리 교회와 노동운동

한무리 교회는 버린 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 하도다(마태복음 21:42).”라는 성경 구절에서 연유한 교회명은 나중에 바뀌게 된다. 한무리 교회의 ‘한’이라는 말은 크다, 하나이다, 함께 라는 뜻을 가진 교회이다. 버린 돌 교회라는 이름으로 1985년에 출발한 한무리 교회는 박진석 목사님으로 출발하여 1988년 이후 최 주상 목사님께게서 꽃을 피운 교회이다. 때로는 교인들 이름조차 가명으로 사용하던 서슬 퍼런 전 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한참 일 때 개척된 교회이다. 그 당시에는 지역의 운동권이 마땅한 활동 공간을 찾지 못할 때 교회공간으로 찾아와 변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구 군포다리 개천가 빨간 벽돌 건물. 이것이 한무리 교회의 또 다른 주소다. 구 군포다리는 안양과 군포를 나누는 경계로 다리를 지나면 안양이고 교회 쪽은 군포다.

박진석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열었습니다. 85년 4월 달 그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우리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4월 1일 창립한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지 처음에 와서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아마 그 뭐 그렇게 허름한 건물 하나 얻어서 교회도 지금 한무리 교회가 아니었고 버린 돌 교회가 처음 이름이었어요. 성경에 이제 뭐 그 버린 돌이 건축재 모퉁이 돌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따와서 ‘버린 돌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85년 여름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저는 이야기 들었고... 처음엔 이런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가 ‘버린 돌 교회’가 뭐랄까요? 냄새가 나는 그런 말이었기에 때문에 노회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버린 돌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래가지고 박진석 목사님이 이름 바꾼 게... 이게 한무리 교회로 바꾼 거지요(구본철, 문경식).

한무리 교회 예배강단은 전통양식을 담아내려고 문 창살로 강단을 둘러쳤고, 강단의 십자가는 정의의 푸름을 상징하는 소나무로 만들었고, 강대상은 밥을 의미하는 쌀뒤주로 되어있었다. 강단 한편의 성찬대에는 전통 다기로 된 성찬기들이 놓여져 있었다. 강대 의자 역시 나무로 손수 제작하여 투박하지만 정감이 가는 의자로 하였다(한무리 교회 카페 <http://cafe.daum.net/hanmoori.org>).



한무리 교회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십자가

한무리 교회는 초기부터 노동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을 위한 탁아소와 진료소, 노동자 교육을 담당하는 야간학교(야학)를 꾸준히 운영하였다. 이어 안양노회 소속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에서의 노조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였다(이시정, 2007).

탁아소를 교회 안에서 만들었고 교회 안에서 애들 탁아를 하면서 사랑방학교라고 이제 노동자 야학을 시작을 했지요. 그게 교회 시작하는 시점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이 지역의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공장에 다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야학을 했는데 기타반, 상식반, 풍물반, 이런 식으로 반을 꾸려서 진행을 했습니다(구본철).

노동자들의 연대와 계급의식 고취를 위해 교회가 후원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소그룹 활동이었다. 기타반, 상식반, 풍물반 등의 취미 소모임은 목사 혹은 교사들(초기에는 대학생 출신이 대부분)의 지도아래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때는 박진석 목사님 후배들, 다시 말해 전도사님들이 옆에 있으셨거든요. 전도사님 몇 분이 교사였고 그다음에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가 한 명 있었어요. 몇 분이 교사를 하면서 야학을 꾸려서 했어요. 초창기에 일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기수가 6개월이었거든요, 제가 87년 4월에 왔을 때 4기가 시작이 되었고 4기 때부터 저는 교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그 운동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구본철).

탁아소와 야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노동자들 일부는 친구집단이나 레크레이션 집단을 넘어 더 노동자 계급의식과 노조의 중요성을 눈뜨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교회는 파라처치(Para Church)라는 평가도 있었다. 교회의 간판을 달았지만, 교인의 자격을 한정했고 교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획득한 다음 노동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야학이나 교양반 한문반 같은 프로그램으로 노동자 의식화를 하였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하여 선발된 인사들을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연계시키고 교회공간도 지역의 운동거점으로 연대의 장이 되었다.

초창기의 조직화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운동 지원이에요, 무슨 예배고 나발이고 없어요. 노동운동이 중요한 거지. 교회는 말하자면 외피 비슷한... 그 양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랬어요. 야학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교회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몇 명, 그다음에 활동가들, 야학 교사들,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요

렇게 10명, 요렇게 해서 요런 탁자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기관에서) 빨갱이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도 “특별히 교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많지가 않았고요. 노동 상담소 만들 때도 탁아서 만들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구본철 구술).

이처럼 노동자 교육과 조직화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한무리 교회는 정보기관의 요시찰 단체였다. 많은 노동자가 이 공간을 거쳐 나갔다. 특히, 한무리 교회에는 안양으로 내려온 운동권(?) 대학생 그룹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80년대 초, 학생운동가들은 자신의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것과 노동자의 조직을 돕고 그들의 노동투쟁을 더 큰 정치적 목표로 이끄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공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다. 그들 중 일부는 대학을 중퇴했고, 일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공장에 들어갔다. 조지 오글은 1980년대 중반 3천여 명 혹은 그 이상의 대학생들이 공장으로 들어갔다고 추정했다. 그들 대부분은 인천·부평·안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했고 극히 일부가 울산·마산·창원 같은 해안의 중화학공업지역으로 들어갔다(구해근, 2002: 161).

당시에 이 지역에 그 운동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많이 현장 활동들 했었어요. 서울대 친구들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학교별로 이대그룹이 큰 그룹이 하나 있었고.... 88년 3월이었는데 그 상담소를 만들면서 그럼 이 상담소 활동가들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 현장에 있는 현장 그룹들이 몇 개 있었어요. 성대그룹 이대그룹 뭐 어디 그룹 어디그룹 있었는데 어- 이야기하면서 그 그룹에서 대표자라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같이 합해서 상담소를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되가지고, 그러니까 상담원이죠. 상담 활동가가 지역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 대여섯 명이 상담소로 대거 들어왔죠(구본철 구술).

특히, 84년은 총선을 앞둔 시기로 전두환 군사정권은 대내외적 압력과 내적 필요성에 의해 기만적 유화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유화국면 속에서 노동운동권은 조직적 공간을 확대하면서 자발적인 요구투쟁과 더불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도 유화국면에서 84년 초 복학생 대책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생운동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병역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에 따라 각자 진로를 논의하는데 크게 3개의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복학하거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재야단체를 선택하거나 현장(노동, 도시빈민 등)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안양지역에도 다수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진입하게 된다(이시정, 2007: 62).

안양지역은 85년까지는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신원조회 과정이 덜 까다로웠다고 한다. 취업 시 지문조회, 주민등록증 확인도 일상화되지 않아 전과가 있는 사람도 중소기업에는 본명으로 입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85년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구로동맹파업 등을 거치면서 안양에서도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86년경부터 안양에서도 취업 시 주민등록증 내용 및 가족사항 암기 여부, 전 직장 근무여부, 손가락 마디 확인(학생출신인지 현장 출신인지 확인), 지문조회, 출신 고등학교에 대학진학 여부 확인 등이 일상화되었다.

이처럼 안양은 84년 말~ 85년 이후 현장 중심의 노동활동가들에 의해 단위 사업장에서 소그룹 활동 단계에서 85년부터 안양노동상담소와 한무리 교회 등 민중교회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무리 상담소는 정부기관의 감시와 재정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합법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무리 교회는 예정 안양노회 소속의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내 노조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는 공개 합법성과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7년 말 겨울부터 시작해서 88년 겨울, 이렇게 해서 노동상담소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노조 만들려고 해도 현장 노동자는 일해야 하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두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노동상담소를 만들어서 법적 측면을 지원을 해주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따라서 박진석 목사님이 노회에서 사회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을 지원받아 노회 노동상담소를 개소한 거예요(구본철 구술).

이처럼 노동자 교육과 조직화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였던 한무리 교회는 정보기관의 요시찰 단체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이 공간을 거쳐 나갔다.

탁아소 만들어서도 이제 그 탁아소 만들면 자모, 자부라고 했거든요. 애들 엄마 아빠 있잖아요. 애들 엄마 아빠 있는데 자모회·자부회, 이런 걸 조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모회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또 탁아소 선생님이 자모회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뭐 의식화교육이죠 뭐. 그런 자모 중에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이 교회를 거친 분은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일례로 사랑방 학교와 노동 상담을 했었던 TND 노조 위원장 백다래 TND라는 회사는 일본회사예요. 위장 폐업하고.... 이 친구 제가 진짜 존경했던 친구거든요. 교회 나오고 있고 지금, YMCA에서 전례놀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배출된 지도자들이 꽤 많은 이영희(다우전자)씨, 그 이영희 소장도 다우전자 위장취업같이 의논하면서 했죠.

민중교회의 정체성과 한무리 교회의 변화

80년 중후반 이후 노동운동의 지형도 변화된다. 초기 운동이 현장중심의 노동자 소그룹 활동에서 86년 이후 단위사업장 중심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공개적인 연대활동으로 전환된다. 특히 7.8.9 노동자 대투쟁의 경험으로 지역의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역량이 강화되었다. 89년 12월에 들어서는 TND 노조에 대한 연대와 승리의 여세를 몰아 12월 28일 안양역 앞 안양예식장에서 경기노련(전노협 지역조직)이 결성된다. 그리고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중교회나 상담소도 역할도 변화된다.

89년 88년 말부터 89년 90년 이때가 계속 그랬는데 계속 동구가 무너진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서 활동가들도 많이 떠났죠 현장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사회가 무너진 거니까 활동가들도 대거 막 많이 빠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시민운동이 이때 태동을 했잖아요. 88년 말 그때 시민운동이 조금씩 태동하고 그러면서 고 한무리 교회와 같은 노동교회들도 성격을 이제 조금씩(바뀌 나가야 한다) 이제 다는 아니었거든요. 노동운동 지원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또 뭐 활동가들도 다 떠나고 세상도 좀 바뀌고 노동운동같이 시민운동이 생기면서 그러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논의를 많이 했어요. (중략) 89년도에 그 최주상 목사님이 88년 말에 오셨거든요. 전도사로 오셨어요, 사랑방 학교에 교사로 합류를 했지요. 박진석 목사님이 서서히 손을 떼면서 90년대인가 이쯤 최주상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이 되셨죠. 박진석 목사님이 떠나시고 저도 남아 있었고 교회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일을 할 것이냐? 노동운동지원이 사명은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만든 게 이런 거죠.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85년 말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지요. 89년 11월에 (본격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되면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고 96년 생협을 만들었어요. 신용협동조합도 사실은 처음에는 공동체 이런 부분보다는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함부로 쓰고 그러니까 그냥 맡아 놓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중략)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공동체로 가야 한다, 생활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어요. (중략) 신협, 3,000만 원 넘게 모였어요(구본철, 문경식 구술).

한무리 교회는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민주화의 진전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신협, 생협 등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사실, 군사정권 시기에는 지역 주민도 한무리 교회에 대해 오해를 했고 은근히 꺼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집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함

게 나누며, 지역을 위한 선교활동을 계속하자 차츰 주민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오전 10시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는 ‘신나는 밥집’ 문이 열린다. 부지런히 60여 명분의 쌀을 씻어 군포그린재활용센터에서 얻은 70인분 가스 솥에 올려놓고 반찬과 국을 만들다 보면 두 시간 반이 훌쩍 지나간다. 오후 1시가 되면 신나는 밥집은 밥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신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찬다.

밥집은 원래 결식아동을 위해 시작됐지만, 지금은 어린이집과 공부방에 있던 아이들도 같이 모여 밥을 먹는다. 정부에서 준 식권으로 식당에 찾아가 우울한 어깨를 늘어뜨리고 밥을 먹던 아이들도 신나는 밥집에서는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의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가슴을 채워주고 싶다는 게 한무리 나눔의 집 식구들의 바람이다.

한무리에서 운영하는 ‘노인참여 나눔터’는 공동체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참여자가 비누도 만들고, 힘든 분이 다른 힘든 노인을 돕는 두레라든가, 이런 걸 모태로 탄생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한국헬프에이지’도 이런 과정에서 탄생했다.

화장실 옆에 공간이 또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얻어서 이주가정 사업도 했어요. 갈 곳 없는 가족을 무료로 들어와 살게 하고 필리핀 가정도 모아서 살게 했어요. 이 동네에 이주민 많거든요. 그렇게 쪽 사업하고 또 노숙자들 여기 와서 밥 나눔도 하고.... 교회하고 나눔의 집은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지만 일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한무리 사랑나눔회’로 민간단체 등록을 2003년에 한 겁니다.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랬고 2004년에는 노인참여라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복지관처럼 밥 나눠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모두가 끈질기게 함께(주체가 되는)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겁니다. 회장도 스스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교회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문경식 구술).

한무리 교회는 2007년 4월 30일 상을 하나 받았다. 출석교인 100여 명 안팎의 작은 교회지만, 지역의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조직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상의 이름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이다. 이 상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가 시상했으며, 전국 11개 교회가 받았다. 상을 받아 온 한무리 교회 부설 ‘한무리 나눔의 집’ 문경식 대표는 100만 원의 적은 상금이지만 “숙원사업인 교회간판 만드는 데 보탬 쓸 것”이라고 말했단다. 그리고 보니 진짜 교회간판 조차 없는 교회, 한무리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한무리 교회 부설 나눔의 집 문은 8시에 열린다.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시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미취학 아이들은 ‘열린 학교’의 어린이집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를 보낸다. 단, 이곳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살이, 맞벌이 부모나 한 부모 또는 친척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권이 있고 환영을 받는다. 나눔의 집은 그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공단 마을 초등학생들은 열린 학교 공부방에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소박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공부방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느끼는 절망감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에게 일하는 엄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 ‘엄마가 다니는 공장 탐방하기’, 환경오염이 심각한 안양지역의 환경실태를 배우는 ‘우리 동네 공해지도 그리기’ 등 여러 대안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방학 동안에는 목공·분해조립·십자수·연극 동아리 등 동아리별로 모임을 하고, 방학이 끝날 무렵 방학과제를 가지고 ‘동아리 축제의 날’을 열어 지역 어른들에게 발표할 기회도 얻는다. 중·고등부 공부방에서는 입시학원에 다닐 형편이 되지 않거나 학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보다 뒤쳐지지 않을 만큼 교과과정을 가르친다.

하지만 한무리 교회는 안양(만안구)과 군포시의 접경지역인 관계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담당 지자체는 군포인데 빈곤가정 아동 공부방과 결식아동급식소의 아이들은 안양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 때문이다.

군포 쪽에도 공부방 하나가 나가 있어요. 우리 한무리 팀들이 ‘기쁜 공부방’이라고.... 이쪽에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이주민이 많이 생겨서 이주노동자센터를 여기 안양에서 한 겁니다. 공부방 아이들이 무허가고 이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시스템이 여기에 있으니까 안양 아이들인데 군포에 소재지가 있으니까. 군포에서 계속 지원금 좀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로 거의 6개월 이상 싸운 것 같아요(문경식).

이런 문제 말고도 한무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또 있다. 공장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 군포다리는 소위 ‘농심다리’로 불릴 정도로 이 근방 전체가 공단지역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공장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지, 개발비용을 받아 이동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진 것이다.

이 근방에 유한킴벌리도 있었는데, 이런 공장들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노동자들의 주거지도 자연스레 이동했죠. 90년대 들어 민중교회가 다들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노동자들 중심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

고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노동사무소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꼭 여기서 감당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그 자녀의 문제, 즉 가정의 문제를 짚어보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문경식).”

한 때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무리를 아는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한무리 교회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무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여기 한무리를 거쳐 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난치병 센터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건물주들이 반대했어요. 어떤 분(약사)은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한무리가 이 지역에서 한 게 얼마인데 당신들이 뭐라고 반대하냐! 한무리가 하는 일이면 뭐든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발언을 하셔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구본술, 문경식 구술)

지역주민의 벗 한무리 교회

한무리 교회는 민중교회의 정체성의 혼란상을 나뉠 슬기롭게 이겨낸 것 같다. 이러한 바탕에는 88년 5월 부임한 최주상 목사, 2007년 1월 취임한 박선진 협동목사,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활동 중인 우예현 목사의 노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고하신 고 최주상 목사는 교회를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도시빈민과 결손가정의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된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앞장서서 전개했다. 그와 한무리 교회는 결식아동 밥집 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난치병어린이 돕기,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공장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와 노동상담소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왔다. 군포와 안양지역에서 사회복지와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온 최주상목사는 지난 2004년 간암 판정을 받고 강화도에서 요양하던 중 2008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상이 형은 주체의 형이다. 한 사람은 나에게 신학대 선배이고, 한 사람은 나에게 후배이며 운동권의 핵심후배였다. 주상이 형은 나에게 그렇게 인상 저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이사한 그해 99년 교회 송년회에서 보여진 주상이 형은 목사입네 하는 근엄함이나 뻗뻗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기에 이래저래 조금

은 먼 발치에서 보는 입장이었다. 노동상담소, 쉼터, 공부방, 어린이집, 난치병, 쌀 나누기 그리고 너무도 많은 사람, 사업들.... 그래서 그는 아팠나 보다(강현만, 카페 최주상 목사 추모집 <http://cafe.daum.net/20090815>).

현재, 한무리 교회는 한무리 나눔의 집에서 다양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한무리사랑나눔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별도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2월, 난치병 케어센터 ‘희망세움터’도 개소하였다. 한무리 교회는 공부방 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손꼽히기도 한다.

지역의 노동 환경상 일요일도 특근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해봤자 교인도 거의 없는 한무리 교회, 목사님도 관계자들도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단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다는 한무리 교회. 한무리 교회와 함께해온 세 분의 관계자는 한무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

노동교회건 주민교회건 노숙자건 뭐 결식아동이건 그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한무리의 신앙이 그렇게 표출되었던 거로 생각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8-90년대와는 달라진 상황이고 한무리에 나오는 교인들도 그때하고 많이 다른 분들이거든요. (중략) 지금 한무리는 참 인간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올바른 신앙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로 앞으로 한무리의 미래를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구본철 구술).

사각지대라든가, 보이지 않는, 남들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소수자들, 그런 운동, 저희는 많이 찾아내서 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게 결국은 지역사회를 밝게 하고 또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게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중략) 갈수록 젊은 활동가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로 후배도 실무자도 잘 배양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문경식 구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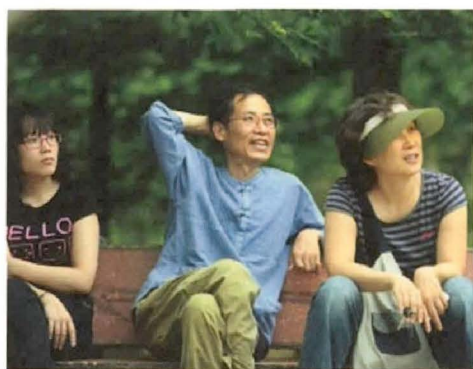
한무리 교회 우예현 현(現) 담임목사는 “한무리 교회에 같은 식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한무리 교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특히,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인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일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무리 교회 관계자들은 모두 과거 민중교회의 활동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교회

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언제라도 함께하는 곳”이라는 데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다. 그것이 고 최주상 목사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내 몸이 살아있어, 다른 이에게 줄 것(장기)이 있다면 서운해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냥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오. 가난한 사람들이면 더 좋을 것 같소. 그리고 나머지 내 살과 뼈는, 뜨거운 불에 태워 곱게 빻은 가루만 내가 오르내리던 모락산 골짜기에 뿌려주오. 아니면 내가 사랑한 공단 독방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내에 뿌려주오.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내가 사랑한 사람들과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요.

평생 가난한 노동자와 빈민과 함께 주의 뜻을 행했던 최주상 목사의 유언은 우리 시대 참된 삶에 대한 좌표와 같다.

마치며



고 최주상 목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노협(경기노련 안양지구협의회)과 민주노총이 발족하기 전까지 즉, 80년대~90년대 초중반, 안양지역 근로자회관을 비롯한 종교기관은 민중교육, 노동문화교육의 산실이었다. 1974년 긴급조치 이후, 그리고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탄압받았던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숨죽이며 피신하며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준비하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종교 단체였다. 지금까지 이들의 역사적 의미는

정치조직에 비해 낮은 수준의 부차적 의미로 평가 절하되어 왔다. 하지만 교회 내 노동야학, 산업선교회, 노동사목, 청년모임, 각종 소모임과 같은 조직들은 사회운동의 물리적 공간만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인문사회과학적 지식과 경험, 고민과 모색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창조와 변혁의 공간이었음이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안양 옛보기

시간과 젊음이 교차하는 곳, 안양 1번가

산업구조의 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10여 년 넘게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안양의 대표적인 상점들을 살펴보자. 체육사, 다방, 양복점 등의 단어를 접할 때 우리는 생경함과 동시에 아직도 이러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오래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오래된 것은 세월의 흔적을 남긴다. 세월의 모진 풍파가 고목의 나이테를 형성하듯이 말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진부함과 동시에 세월의 경험과 지혜의 축적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다.

안양 1번가 상권은 안양 중앙로 벽산 사거리 - 중앙 사거리의 우측(서울 방면) 지역을 포괄한다. 조선조 제22대 정조는 1795년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지점에 사도세자인 부왕의 묘에 능행을 위해 만안교를 지은 후 화산능행의 노정을 과천-인덕원-수원에서 시흥-안양-수원의 노정으로 바꾸면서 유래정 뒤 (안양1동 674-67)에 안양 행궁을 짓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 되자 주변에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곳이 바로 안양 1번가 주변이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고 안양역이 건설되고 1924년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연초조합, 우체국들이 들어섰다. 결정적으로 1926년 안양시장(현 중상시장)이 생기면서 상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1980년대에는 먹거리, 옷가게, 유흥주점이 주류를 이루었던 곳이 1990년대 들어 젊은 취향의 캐주얼 스타일의 의류와 내셔널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하였다. 2000년 이후 컴퓨터, 통신, 시네마 등 쇼핑과 문화가 잘 융화된 거리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상권을 형성하여 안양 최대의 변화가로 부상하였다. 안양의 금융, 교통, 상권을 태동시킨 안양 1번가는 지역 발전을 일으킨 상징적 의미에서 “안양 1번가”로 부르게 되었고 시에서는 1998년 상가 주변 길을 “안양 1번가 길”로 명칭을 부여했다. 1996년부터 매년 10월에 젊음의 도시, 패션의 거리 안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번가 거리 대축제가 열려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자유와 멋, 낭만을 느끼고 체험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 1번가 상권은 유동인구 중 10-20대의 비율이 80%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며 패션 업종과 음식점과 각종 오락시설 및 유흥업종의 비율이 높다. 이런 곳에 오래된 상가들이 보물처럼 곳곳에 존재한다.

어떤 명품 스포츠 브랜드도 부럽지 않은 강릉체육사

체육사, 체육사는 체육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만물상이었다. 동네의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면 단체 운동복을 맞추기도 하고 각종 운동기구도 팔기도 하던 곳이다. 동네잔치를 스스로 축하하는 명패와 기념품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쯤 하면 체육사는 동네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거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체육용품 판매 전문업체.

(변천) 강릉체육사는 체육용품에 관심이 많던 설립자 김상학(1954년생)이 개업 한 체육용품 판매점이다. 고향이 강릉이지만 안양에서 터를 잡아 1978년 설립 당시, 안양 2동에 체육사를 운영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취급품목은 축구공, 축구화 등의 축구용품과 기타 체육 용품이며 교복 및 사원복에 명찰과 마크를 다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체육관련 기타 제품이 필요할 경우 주문을 하면 구입할 수 있다.

(활동사항) 체육사를 운영하며 축구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다. 매주 마다 축구를 한다.

(현황) 1978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창업자와 아내가 함께 운영을 맡고 있다.

요즘 젊은이에게 ‘체육사’라는 용어는 낯설다. 그나마 체육사 상가 앞에 진열해 놓은 스포츠 용품이 있기에 이곳이 체육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라 알 수 있다. ‘체육사’보다는 ‘스포츠용품 매장’이 더 친숙하다. 그런데 상가 설립자는 간판 명으로 ‘체육사’를 고수한다.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강릉체육사 간판

‘체육사’라는 용어는 단지 단어가 아니다. ‘체육사’라는 용어에는 설립자의 인생이 함께 묻어있기 때문에 간판 명칭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강원체육사’ 설립자인 김상학 씨는 군대를 제대한 1978년 5월 16일 고향인 강릉을 등지고 안양에서 터를 잡았다. 처음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건축 건설업을 하다가 자금이 마련되어 같은 해 10월 경 안양 2동에 체육사를 개업했다. 2년 뒤인 1980년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딸과 아들을 낳았다.

김상학 씨는 안양에서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지역의 조기축구회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가 자랑하는 안양 초등학교 남부 축구회는 회원이 70명 이상으로 꽤 실력이 있는 팀이고 우승도 하는 팀이다. 안양에 초중고 인맥이 없었던 그에게 축구회는 동네 주민과의 교류의 장이자 인맥을 맺어가는 공간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선단체 및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

지도자와 자율방범대에서도 활동하여 많은 공로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양 등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강릉고등학교 동문회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주소록에는 18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각 분기별로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문들과 교류를 한다. 무엇보다 그가 다른 모임보다 애정을 쏟는다는 30~40명 정도가 모인 안양의 강원도민회는 강원도 도민의 자매결연 맺어서 봉사활동을 한다.

고향이 강릉인 김상학씨는 안양과 강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강릉 같은 경우는 교육 관광 도시 관광이니까 관광 그거하고 그쪽 계통으로 많이 하고 교육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은 자꾸만 처음에는 동안구 이쪽에는 논밭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고 만안구 쪽에만 상권이 많았잖아요. 제가 있을 때 동안구 아파트 들어서면서 상권이 분할 됐는데 안양은 상권들이 장사할 수 있는 상권들이 이루어져 있었으니까 강릉하고 차이가 있었죠.... 옛날에는요 공을 차는 공간으로 럭키아파트가 공설운동장이었어. 석수동 1동이죠. 원래가 공설운동장이어서 거기서 운동하고 지금은 아파트 다 들어서서 옮겼지.”

김상학 씨에게 안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강릉체육사 매장

“안양하면서 제2고향이나 마찬가지로잖아요. 강릉에서 강릉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서울 쪽에서 생활하고 군대 갔지만 강릉에서 생활한 것보다 안양이 더 많잖아요. 제2고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뭐야 살다 보면 고향 같은 느낌이 느껴지고 정이 가는 도시죠.”



1980년 부인 결혼식 사진

김상학 씨는 체육사를 오랫동안 운영한 노후를 겸손하게 표현했다. 현재 상권에서 체육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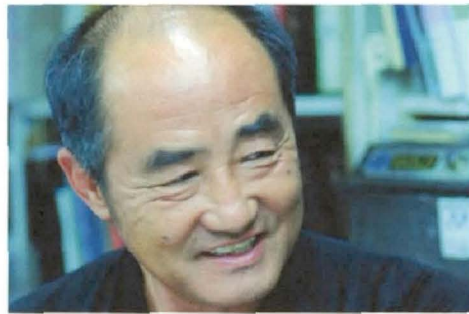
“애로사항이야 사업하는 사람들 다 똑같죠 뭐.

다들 잘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생활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해왔던 거죠... 제 취향대로 취미 스포츠 같은 걸 좋아하고 운동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체육사가 나한테 잘 어울리니까.”



강릉체육사 간판

처음부터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대문 평화시장 나염공장에서 실크인쇄 기술을 배웠다. 체육사 운영이 잘 되었을 때는 몇몇 규모가 큰 기업에 운동 관련한 기자재를 납품했지만 현재 주요 고객은 학교로 운동용품과 운동복, 운동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또한, 학교 마크 및 각종 마크를 인쇄하는 업으로 사업의 확장을 모색했다.



강릉체육사 김상학

앞으로도 체육사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을 묻자, 환한 미소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렇죠 저는 뭐 어차피 지금이야 얼마 안 있으면 60이다 되겠지만 70대 넘어서도 그냥 놀면 뭐해요 운동하고 몸 건강하니까... 건강이 닿으면 계속하는거죠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영업하면 늙은 사람이 하나 하겠지마는 기술적인 하청일을 하면 되니까 하는 데까지 할거예요 정년퇴직 없잖아요.”

구술자 : 김상학(54년생, 남), 구술일자 : 2011년 8월 2일

역사와 전통을 입는다. 수제양복점, 에이원라사

라사, 지금 젊은 층에는 낯선 단어지만 중년 층에는 양복 한 벌의 추억이 어린 곳이다. 대기업의 기성복이 등장하기 이전 동네양복점에 가는 일은 큰 기쁨 중의 하나였다. 양복 맞추러 가는 날, 몸 치수를 재고 나온 후 가봉하던 날을 기다리던 아련한 추억이 있다.



원단 샘플

“어! 양복점이 아직도 있네.”

1970년대는 양복이 오늘날처럼 기성복이 아니었다. 그래서 양복을 만들어 주는 양복점은 고급용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양복점을 차려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일류 양복기술자는 요즘 잘나가는 직장 못지않았다.

양복기술자들은 도시의 상가 지역에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했다. “oo라사” 서울라사, 반도라사, 동양라사, 장미라사….

라사는 1) 실과 옷감을 취급하는 곳이다. 바느질/재봉하는 곳=옷 짓는 곳=양복점 2) 라사는 유럽 양복지를 뜻하는 말이다. 3) 라사는 포르투갈어 *raxa*에서 유래한 말로 두꺼운 모직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말이다. 4) 난초 등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잎의 질감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로 쓰는 데 잎의 표현이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것을 라사라 한다.

(정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맞춤 양복점.

(변천) 에이원라사는 양복 기술 장인인 백승규(1949년생)가 개업한 양복점이다. 고향이자 삶의 터전인 안양에서 1970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수제양복점을 운영하였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로 남성용 수제 맞춤양복을 만든다.

(현황) 197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넘게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1970-80년대는 맞춤 양복의 호황기다. 그때만 해도 동네에 100여 개 정도의 양복점이 있었다. 하지만 수제 양복은 1980년대 후반 브랜드를 앞세운 기성복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특히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기성복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에이원라사’는 33㎡(10평)의 작고 평범한 동네양복점이다.

1949년 안양에서 태어난 백승규 씨는 그의 삶 대부분을 안양에서 살아온 그야말로 알짜배기 안양 토박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중퇴한 후 안양에 있던 미도사 양복점에서 양복 기술을 배웠다. 몸이 허약했던 터라 이발기술과 철공기술은 힘이 들었기에 다른 것을 찾던 중 양복 기술을 선택하게 되었다. 바느질 관련 기술은 안양에서 했지만 재단과 관련

된 업무는 서울 명동 에이원라사에서 배웠다. 그 후 기술을 배워서 용산 역점 앞에 있는 유일라사라고 철도청 지정 양복점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다. 17살 때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1970년 6월 5일 지금의 에이원라사를 개업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1동 상가 주변에서 오랫동안 운영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것도 운이에요. 건물 주인이 자주 바뀌게 되면 이렇게 오래 있지 못하죠. 이 건물 주인은 내가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사십 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임대를 상당히 싸게 해줬어. 그래서 여태까지 있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운영을 못 해요.”

백승규 씨는 양복 기술을 처음 배웠을 당시를 회상했다.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 연탄불 피우고…. 옛날에는 다리미가 전기다리미가 아니고 연탄불 난로 위에 쇠 난로 쇠 다리미를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다림질을 하고 그랬어요. 사고도 많이 났지. 태워 먹기도 많이 태워 먹고 그거부터 시작했지. 그 다음에 바지 기술자하고 일하게 되고 바지기술을 다 배우고 나서 우아기(상의)를 배워서 남의 집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이걸 차리게 됐어요.”

개업하던 당시 상황과 이후 운영하던 일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주 그냥 이거 차릴 돈은 없었는데…. 전세 살고 있는 집 빼가지고 사글세로 가가지고 내렸지. 그때 당시 보증금이 20만원에 월세 8천원이었어. 7만원 가지고 양복값 열 개 가져다 걸어놓고 재봉틀 하나 사고 다이도 짜고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일이 많아지니까 직원들



에이원라사 간판



에이원라사 백승규

도 쓰고 그러다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는 명동 에이원 라사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자신의 양복점 상호명도 에이원 라사라고 붙였다. 그 당시 에이원 라사하면 꽤 유명했다. 서울에 있는 양장 만드시는 분들하고 교류가 있었지만 사양사업이 된 후에 다 헤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복점은 1980년도에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심지어 10명 정도를 채용하고 중앙시장 등 양복점 인근에 공장을 몇 군데 운영할 정도였다. 하지만 2003년도 혼자 가게를 운영했다. 양복을 해 입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맞춤복은 기성복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안양에 양복점들이 한 60군데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안양 일번가에 나 혼자밖에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어... 다들 다 잘하니까 안양 일번가에서 장사했으면, 특별하게 잘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는 거니까... 옛날에 바쁠 때는 밤새 가면서 일하고 제날짜에 납품도 제날짜에 못 시키고 일감을 삼십 벌 사십 벌 쌓아놓고 일했는데... 안양에서 양복점이 서로 경쟁하고 그랬지 기술자도 서로 빼 가고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의학 기술 빼고는 양복기술을 제일 알아줬어요. 옛날에 어려울 때 벅타이 매고 일하는 직업은 양복집 밖에 없었으니까... 좋은 직업이지.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해서 골동품 장사야 이게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양복점이 기성복 때문에 안된다는 거를 아니까는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정확한 사이즈와 완벽한 신체 보완을 위한 가봉

백승규 씨가 양복점 운영을 고집하시는 데에는 양복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백승규 씨 자신의 옷도 직접 만들어 입고 두 아들의 양복도 만든다. 양장은 못하기에 아내분에게는 여자 바지를 가끔 만들어 준다.

“내가 이제 뭐 별이 안 돼서 벌써 안 했으면 됐는데... 막상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치우고 딴 사업을 해봤댔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난 장사가 안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테까지 장인정신을 갖고 계속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양복점을 운영할 계획에 대

해 백승규 씨는 머뭇거렸다.

“그저는 앞으로는 계속 못 하죠. 앞으로 길어야 2년이나 정도... 내 나이가 65세가 되니까... 그 정도 하고 우리도 손 떼려고 이거 사양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밥을 못 먹어요. 지금은요.”

양복 기술 전수에 대해서 조금은 비관적이었다.

“지금 이거는 배우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양복 일을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 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손 떼고 나면 양복은 일을 못해요. 자연히 앞으로 양복점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해요. 맞춤 양복은...”

최소한 수제 양복 한 벌이 55-60만원대니 가격대에서 20만원 대인 기성 양복에 밀린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양복값이 만만치 않다. 대량생산에서 가격이 낮아졌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일까?

장인의 오래된 기술이 낮은 가격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래된 재단 기구만큼이나 그의 기술 역시 빛이 바랄 날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30년 된 가위, 재봉틀, V자, 연적, 어깨 다리미 받침, 모형판, 줄자, 40년 된 통장, 69년 병적증 40년 된 통장

“이거는 진짜 내가 가보로 가지고 있는 건데. 무진장 오래 된 거야. 천원 이천원씩 저금하고 그랬던 거예요. 조흥은행 72년도부터 저금을 하기 시작 했을 거야. 아마 만기 되가지고 이게 얼마야... 1,103원. 이것으로 우리 동생 장가보냈어... 이거는 죽어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저금을 못했다가 개업하고 나서 이년 정도 있다가 그때서부터 천원도 큰



돈이야. 양복한 벌에 칠천원 바지 하나에 천오백원 막 했을 때니까. 지금 바지하나가 십오만원 썩이니까. 천원 이천원 오백원 막 저금한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월세가 팔천원이야. 이십만원에 월세 팔천원 보증금 이십만원에 월세 팔천원 큰돈이지.”

구술자: 백승규(49년생, 남), 구술일자: 2011년 8월 3일

커피 문화의 공간 - 대성다방

한 때 다방은 도시 문화의 중심이었다. 건물마다 다방이 하나씩 들어 설정도로 많았다. 사업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비즈니스 장소였으며, 문화예술인에게는 삶의 불태우는 문화의 장이었다. 그리고 사랑이 피어나는 젊은이에게는 꿈과 낭만의 장소였다. 그리고 LP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창고였다. 아침의 수고에 감사라고 하듯이 계란을 둥둥 띄우던 모닝커피가 그 당시 다방의 향수였다.

(정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찻집.

(변천) 대성다방은 1995년 다방을 인수받은 박순덕(1956년생)이 커피 등 다양한 차를 파는 곳이다. 구 배터리 거리인 안양 2동에 다방을 운영한다.

(주요사업과 업무) 취급 품목은 커피와 쌍화차, 인삼차 등 옛날 다방에서 파는 음료수와 차를 주로 판다.

(현황) 기존에 있는 다방을 1995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카페와 커피숍이 더 친숙한 시대에 ‘다방’ 간판이 반갑다. 다방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쉴 수 있도록 꾸며 놓고, 차(茶)나 음료 따위를 판매하는 곳이다. ‘찻집’으로 순화되어 부르기도 했다.

커피전문점도 문화적 흐름에 따라 시대에 맞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커피전문점의 역사는 다방문화에서부터 시작된다. 70~80년대의 다방문화는 젊은 세대의 문화의 중심지며 음악 DJ가 신청곡을 틀어주며 청바지 세대와 통기타 세대를 대표할 수 있다. 이후 다방에서는 커피나 쌍화차 칩차 등을 판매함으로써 성인들이 찾는 다방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지금은 서울이나 변화가 지역에서는 다방이라는 문구를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안양(구) 배터리거리에만 10개가 넘는 다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2/3가 사라진 상태이다. 그중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대성다방을 찾았다. 지하에 위치한 대성다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은 이렇게 후진 곳을 왜 주목하느냐며 의아해했다. 방문했을 때에도 장맛비로 지하 다방 바닥에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었다.

“아무 것도 차례놓을 만한것도 없고 여기 습해서 닦았는데 파랗게 곰팡이 피고 한참 있으면 고이잖아요. 금세 이렇게..., 오래돼서 물이 조금씩 올라와 차요. 다 낡아가는 이런 이것도 뭐 이렇게 후진거래..., 가게가 물만 안 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주인도 이거를 새로 시설하려면 다 버려야 해. 맨 처음에 탁자가 이제 있잖아요. 85년도에 맨 이제 건물 해가지고 탁자를 저기한 거예요. 맞춰서 그때, 지금도 그냥 후지고 낡았지만 지금 쓰는 거예요..., 습해서 자꾸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떼어버려야 하는데...”

전북 전주가 고향인 박순덕 씨는 1980년대 초반에 안양으로 이사 왔다. 이사 온 후 처음에는 대성 다방에서 주방업무를 맡다가 1995년 다방을 인수 인계받았다. 2006년까지만 해도 한두 명의 아가씨를 고용했는데 그 후로는 홀로 운영하신다.

다방은 카페와 커피숍에 밀려서 경기가 좋지 않다. 2004년 이후로 다방 운영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지금은 근근이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 그 배달하는 아가씨들 뭐 한 세 명 정도 있었고요. 배달을 위주로 다방을 유지했죠. 지금은 뭐 다들 가게들이 IMF 이후로 힘들고 그러니까 배달도 안 하고 길거리 커피가..., 그런 게 생기니까 배달도 안 시키고 가까스로 힘들다 보니까 배달도 안 시키고 그래서 아가씨들도 없게 되고 그렇게 점점 죽게 됐죠...,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다 힘들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딱 때려 칠 수도 없고 그나마라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뭐 그냥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거죠..., 다방 운영만으로는 생계 못하죠. 이거 해가지고는 못하고 다른 거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것 투잡으로 하고 있는 것 있고..., 사실은 누추해서 때려 치려고 했는데 때려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요.”



대성다방 실내

단골 손님은 이전에 관계를 맺었던 노인분들이다. 예전에 단골로 다니던 이들은 나이가 많아서 사망하고 살아 계신 이들도 연로하시니 다방에 옛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간간히 오곤 한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여러 물품들만이 이곳이 한때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곳이라는



대성다방 간판



대성다방 공중전화

가 격			
안양시조립 ☎43-9081 군			
커피	3000	울무차	
히	치 2500	호박죽	
츄	즙 5000	생강차	
녹	차 3000	영지차	
홍	차 3000	영지즙	
인삼	차 3000	대추차	

메뉴판 가격표

것을 알려줄 뿐이다.

박순덕 씨에게 다방은 어떤 의미일까?

“예전에는 커피를 내렸잖아요. 가루로 근데 지금은 분말커피가 나와서 타서 드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바빠들 살았으니까. 예전에는 정수기가 없었잖아요. 또 가게마다 TV가 없었잖아요. 없는 거를 커피를 끓여서 가게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손님을 대접하고 지금은 일회용 커피가 나왔잖아요. 타 먹는 커피도 있고 조그마한 미니 정수기들이 그니깐 그런 것들이 우리 아가씨들의 몫을 하는 거지. 경기도 어려워진데다가..., 커피를 좋아한다기보다 지금은 향시 먹고 살다 보니까 식품처럼 기호식품으로 생각하는데. 좋아하기보다 먹고 살기 위한 그냥 직업이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개선해서 그야말로 옛날 다방답게 꾸며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되지도 않고..., 해도 이런 지하라 오래되다 보니까 물 나오고 이렇게 너무 누추하니까. 지상 가서 저런데 번두리 쪽에 산기슭 이런 데 초가집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1980년만 해도 커피 값이 130원 혹은 150원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2,500원, 심지어 5,000원을 하는 곳도 있다.

다방의 메뉴의 변천사에 대해 말을 이었다. 쌍화차, 하이보리..., 요즘 카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메뉴이다.

“예전에는 두양차니 쌍화차니 많이 드셨죠. 하이보리라고 있었거든요..., 사이다 넣고 계란 넣고 우유 넣고 이렇게 거품 내서 먹던 그야말로 티 옛날의 약한 술이예요. 티라고 팔았어요. 약간 티라고 우리가 가게에서 술이 약한 술이 있었어요. 그런 거 예전에 팔았고..., 약간 알코올이 들어간 요즘은 그런거 안 팔고..., 즙, 칙즙, 마즙, 생즙해서 몸에 좋다니까 다방에서

많이 팔잖아요.”

손님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을 것이다.

“큰 백자기를 큰 쌀항아리 있었거든요. 그냥 그렇고 깨부수고 그런 손님들이 있고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은 못된 손님들이 많지 좋은 손님들은 거의 없고 좋은 손님들은 차 잡수고 조용히 가시는 손님들이 좋은 손님이지. 장 부수고 또 공중전화도 때려 부순 사람들도 있고 경찰들 불러가지고…. 근데 주변의 다 아는 분들이 술 한잔 잡수고 오셔서 그러는 거니까 나중에는 사과하면 지역사회에 어찌됐어요. 순간인데 자기 정신이 아닌데요.”

안양 발전을 위해 박순덕 씨는 한 마디 덧붙였다.

“여기서부터 2동이에요. 97-98년도 짓다가 정지 상태가 된 옛날에 대영장(카바레) 저 앞에 보면 답답하고 2동 쪽으로는 다 후졌잖아요. 여기를 뉴타운 지역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될줄 알 주민이 개구리처럼 가려고만 하지 장사하시는 분들도 식당도 작년에 그만두시고 거의 이제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 그대로 저하고 똑같이 나이 먹은 세 군데 카센타가 지금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가게가 별로 없고…. 젊은이들은 안양 1번가로 가고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뭐 예전처럼 예전에는 화단극장도 있었잖아요. 저기한 시설이 없으니까…. 안양도 평촌 이쪽에만 치우쳐…. 평촌은 신도시 생긴 곳은 깨끗하고 한테 이곳은 큰 건물도 없고 좋아진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좋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나 가게나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데. 이곳처럼 낙후된 곳에 누가 오겠어요.”

만안구에서도 상가들이 울상을 짓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배터리 공장이 밀집해 있고 사람들이 북적이던 곳은 경기침체와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이 떠나기 시작했다. 네온사인이 비추는 화려한 안양 1번가와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떠나지도 그렇다고 정착하지도 못하는 옛 화려했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방 주인과 그 다방의 단골손님이 남아 있다.

구술자 : 박순덕(56년생, 여), 구술일자 : 2011년 8월 2일



대성다방 박순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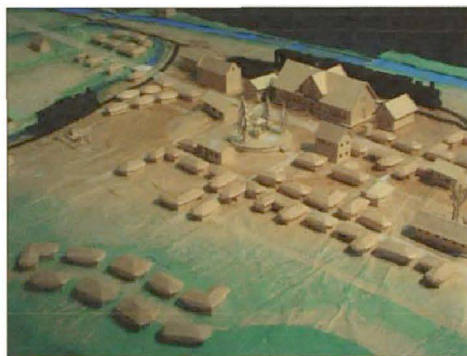
세월을 맛보다

안양지역에 음식점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아마도 한양 가는 길목인 인덕원 사거리 일대 자리했던 주막에서 당시 오가던 길손에게 팔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기록은 없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시민축제 당시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양의 대표음식으로 설령탕을 선정해 과거 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다.

자료를 조사한 안양문화원 최태술 위원은 “지금 동안구 평촌에 귀인동이 있다.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宮中에서 宮人으로 생활하다 퇴역하신 귀인(貴人)들이 살든 곳이어서 귀인동이다. 또 수촌마을에는 내시촌이 있어 두 곳 다 퇴역한 궁인들이 궁중에서 하던 선농제 행사에서 끓이던 설령탕 기술을 알았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설령탕이 일반에게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설령탕보다 안양 설령탕이 진짜 중 진짜가 아닐까.

1926년생으로 안양3동에서 태어난 이용구 용은 어린 시절의 풍경을 눈썰미 있게 기록한 [양지마을의 까치소리]에서 1930년 당시 안양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곳에만 겨우 전깃불이 있을 뿐, 그 외에는 밤이면 희미한 석유 등잔불만이 가물거리는 고장으로 하루에 기차가 수회 지나며(단선) 서울-수원간 경수(京水)버스가 몇 대 지나던 촌락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안양역 건물은 까만 기와지붕에 몇 평 안 되는 성냥갑만 한 역사(驛舍)에 대합실과 개찰구와 집찰구뿐이었으며, 역 앞 국도 건너에는 미륵당(彌勒堂)이 있고, 그 주위에 수백 년 된 노향목(老香木) 두 그루가 안양의 내력(來歷)을 다 아는 듯 우뚝 서 있었다. 바로 그 밑에 두 개의 목로주점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이 용이 말하는 목로주점은 한 장 사진 기록을 통해 시간을 넘어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1943년 2월 20



1930년대 안양역 일대 모형



기억으로 재현된 안양역 모형



1943년 안양역 앞 음식점

일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가 안양역을 지나가다 촬영했던 사진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가 촬영하고자 했던 안양역 광장이 존재했던 미륵당이였다. 그가 남긴 3장의 흑백사진 중 1장의 사진에는 한자로 적힌 안양음식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 기억으로는 안양역 주변과 구 시장, 새 상권이 형성된 새 시장(중앙시장) 일대에 본격적으로 다방, 양화점, 병원, 양복점들과 함께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일제 강점기부터 피서지로 유명했던 안양유원지에도 음식점들이 성업했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안양유원지, 봉암식당

안양유원지(안양예술공원)는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일본인들이 계곡을 막아 천연폴장을 만들며 시작된 여름철 피서지로 50~60년에 한강 이남에서는 유일한 물놀이 시설이었다.

안양유원지가 유명했던 것은 이곳만큼 숲이 울창하면서 계곡의 수량이 풍부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락철에는 유원지 입구에 ‘안양 폴장’ 간이역이 생겨 경부선을 달리던 기차가 섰고, 역에서 폴장까지 임시 버스가 운행되는 등 60년대 여름철엔 하루 이용객 2만여 명을 헤아리던 곳이다.

안양예술공원상가연합회 부회장 남창림(71)씨는 “계곡 주변으로 자연스레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섰어요”라고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다. 안양유원지에는 영남여관, 백운여관 등 숙박시설도 있었다. 특히 안양 최초의 카바레도 이곳에 있었는데 왕궁 카바레였다. 지금의 카페 ‘데이지아’ 건물이 이전 카바레 건물인데 지금도 악사들이 연주하던 반원형의 무대가 지금도 남아있다.

안양토박이인 안양시의회 김성수 사무국장은 안양유원지 안에 유명했던 식당으로 1969년 문을 연 봉암식당과 고바우식당, 우정식당 등을 기억한다. 두 식당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 아마 안양에서 현존하는 식당으로 가장 오래된 식당이 아닐까 싶다. 봉암식당은 1968년에 문을 연 대형식으로 엽불암 올라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좋아 예전부터 친목모임이, 회식장소로 유명했다. 필자가 근로자회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독일수녀님 서말가리다 선생님은 이 집에서 60년대부터 불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양역과 구 시장 일대에 있던 식당들

1920년대 개장한 안양 구 시장은 197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안양역 인근 일번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양 최고의 변화가이다. 안양역 좌우 구도로 변과 길 건너 현재 일번가 골목길에는 많은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추억으로 기억될 만큼 대표적 음식점은 어느 집이 있을까.

1950-60년대에는 안양역 구도로 변에는 가마솥에 설렁탕을 끓이던 경민식당이 있었으며, 안양역 앞에는 고향식당이 유명했었다.

중국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찾았던 음식점이다. 화교 학교에 다니던 주인공 딸이 너무나 예뻐 당시 남학생들이 얼굴 한번 보기 위해 짜장면을 먹으러 자주 다녔던 순흥루와 동춘관 등은 1950-70년대 안양 시내 중국집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다.

안양역 건너편에는 아이스끼끼와 하드를 만들어 팔던 태극당 제과점이 있었고, 미송당, 풍미당 빵집이 있었다. 제과점은 1990년대 안양 중앙시장 입구 옆에 학생들의 데이트장소였던 폼비제과점으로 이어지다가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

일번가 골목에는 동그랑땡이 맛있던 느티나무집이 있었고, 안양우체국 앞에는 술꾼들로 붐볐던 양일해장국이 있었다. 또 안양역에서 대동서점 골목을 지나 안양9동 채석장까지 연결됐던 철길 옆에는 구름다리가 유명했다.

안양 일번가 골목길에는 화진정, 유래정, 진고개 식당 등 불고기와 갈비, 냉면, 육개장, 설렁탕 등을 팔던 한식당이 쭉 늘어서 있었다. 안양아구탕 원조 남촌아구탕, 학생들 데이트장소였던 폼비제과점도 추억 명소였다.

11월 15일 안양토박이로 현재 안양4동에서 흑산도 홍어집을 경영하는 정효진(59)씨를 만나 그가 기억하는 6-70년대 음식점과 먹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씨는 젊었을 때 안양지역을 주름 잡던 주먹(?)이었기에 그가 기억하는 식



1967년 안양역 앞 태극장제과 앞



1967년 안양역 광장



1967년 안양역 앞 중국집(좌측간판)

당과 술집들의 얘기는 추억이자 역사였다.

안양역 앞에는 1960년 제일 유명했던 식당은 고향식당이다. 역전파출소 옆에 있었는데 해장국 한 그릇에 1,200원이었다. 진짜 좋았다. 70년대 중반에 없어졌다.

술집으로는 구 시장에 변무일씨가 하던 빠(bar)가 있었다. 안양에 빠로서는 처음 생겼는데 맥주병에 먹거리를 넣어서 팔았었다. 구 시장 입구 오른쪽 2층에는 다방이 있었고, 비산동 진흥아파트 앞에 술집으로는 개성집, 안양에게 제일 나가던 음식점은 장춘옥이 최고였다.

남부시장에는 금천옥과 경남옥이 있었고, 동춘관은 47년인가 50년인가 생겼다. 안양역 앞에 복어집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했다. 현재의 일번가 청사초롱 앞에 있었다.

동춘관과 쌍벽을 이루었던 순흥루의 딸 이름이 후에미나 였는데 현재 대만에 살고 있다. 아직도 안양시민연대 최병열 대표와는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다.

경민식당은 성결대 앞으로 이전했다가 90년대 초인가 폐업했으며 주인은 미국 LA에서 살고 있다. 경민식당은 절대 다테기를 주지 않았다. 국물 맛이 변하면 안 된다고 철칙으로 고수했다.

60년대 말 구 시장 넘어가는 철길에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고, 안양 삼원극장 옆 철길의 구름다리는 70년대 중반에 생겼다. 구름다리의 닭 내장탕과 닭 곱창은 정말 끝내주었다.

60년대에 근로자회관에서 운영하던 급식소에서 미군부대에서 지원받은 밀가루로 국수를 3원인가 5원인가 팔았는데 배고팠던 시절이었기에 줄지어 서 먹었다.

안양 일번가 동서연결 지하차도 옆에 있던 남촌식당 자리에는 64-65년도인가 기름에 튀기는 빵을 팔던 집이 있었는데 당시 김두한 씨가 안양 왔다가 맛을 보기도 했다. 건너편에는 계란을 넣어서 하는 이태리빵집이 우와 먹고 싶었지 마음대로 사먹지 못했지, 죽었다.

구 시장 넘어가는 땡땡 철길 옆에는 광창라사가 있었고 중국집 강성각의 호떡도 유명했다.

안양에서 70년대 후반 80년대 해장국집으로 유명했던 양일식당은 안양우체국 아래 큰길에가 있다가 안양병원 옆 골목으로 옮겨졌으나 장사가 안돼 끝내 작년에 없어졌다.

쫄깃하고 매콤 고소한 맛 ‘순대곱창’ 볶음, 안양중앙시장, 광주대명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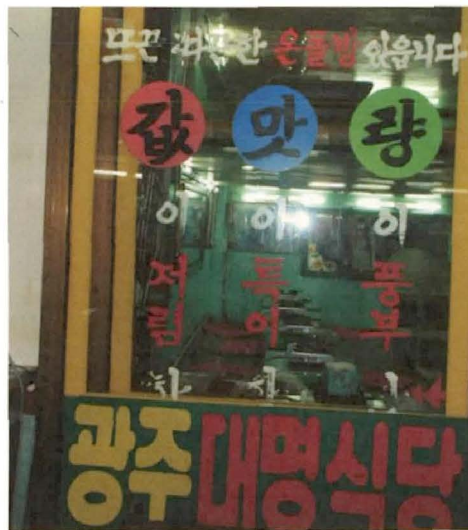
안양 중앙시장에는 유명한 순대곱창 볶음 거리가 있다. 안양중앙성당 맞은편 골목에 마주 보고 죽 늘어선 같은 업종의 식당들이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코너가 ‘광주대명식당’이다. 약 30년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이어오고 있는 장

종길, 김선옥 사장은 사진 찍히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다.

두 부부는 전라도 화순에서 상경해 중앙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였다. 건어물과 곱창을 같이 팔다가 건어물을 접고 두 번째로 순대곱창 장사를 시작한 곳이 되었다. 그때가 1980년 초반이다. 첫 번째로 장사를 시작한 가게는 주인이 바뀐 상황이라 광주대명집이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다. 그 세월의 깊이라도 느끼듯이 들어서는 입구는 당시 페인트로 쓴 ‘광주대명식당’이라는 글귀가 그대로 있어 옛 맛의 정취를 더한다. 순대곱창은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노란 단무지가 전부다. 그런데 대명식당에 오는 단골은 식당이 생길 때부터 오고 가던 손님이 지금도 오고 한다. 오래된 손님은 안산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골목을 들어서면 이곳저곳에서 자기네 식당으로 들어오라고 적극적인 호객을 하지만, 광주대명식당은 조용하기만 하다.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겠다는 그들의 여유로운 자신감이기도 하겠지만, 외모로 보서는 세상의 때가 묻었을 것 같지 않은 이들이다. 특히 김선옥 여사는 오랜 경력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동안인데다 제 발로 찾아온 손님들의 음식에만 정성을 쏟는 본새가 지나치게 순수하지 않나 싶다.

이 순대곱창 골목이 대부분 그렇지만, 하루 이틀 장사할 게 아니므로 모든 재료는 가장 좋은 국산으로 사용한다. 순대는 껍질을 벗겨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하여야 썰고, 곱창은 초벌 삶은 것을 공급받아서 다시 물로 여러 번 씻어서 모든 냄새를 제거한다. 양배추, 숙갓, 깻잎과 갓은 양념, 들깨가루로 맛을 내는데, 각 식당마다 자신들만의 양념을 개발하므로 같은 순대곱창 볶음이라도 맛은 제각각이다. 또 이 식당의 단무지는 다른 집보다도 아삭아삭하고 시원한데, 같은 단무



그 옛날 페인트로 쓴 글씨들



대명식당 순대곱창



대명식당 김선옥

지라도 보관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라 한다. 살얼음이 얼 정도의 온도에 신선하게 보관하여 손님들에게 내는데, 단무지가 다른 곳보다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볶음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당면도 찰당면만을 사용하여 그 맛을 더한다. “매당면을 써 봤는데, 재료비는 절약되지만 맛이 찰당면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꼭 찰당면만 고집하고 있어요.”

순대곱창 골목은 연중 전체 휴일이 딱 3일이다. 추석과 설, 봄철 야유회 가는 날이라 한다. 개인별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 수요일에 반씩 식당 문을 닫는다. 2주에 한 번씩 규칙을 정해서 쉬는 이곳 사람들은 단합이 참 잘 된다. 자신이 한가한 시간에 다른 가게에서 손길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 식당의 도우미가 된다.

서로 돕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넉넉함 그 자체이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매콤하고 고소한 순대곱창 볶음은 참신한 맛이기도 하다. 해피투게더 팀이 바쁜 시간을 피해서 갔음에도, 마침 수능 시험이 끝나 일찍 하교한 고3 학생들이 1층 여섯 개의 테이블 중 두 개를 차지하고 볶음 요리를 먹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들 중 한 학생이 이곳 단골손님이란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왔는데, 이마에 땀까지 맺히며 맛있게 볶음 요리를 먹고, 팬에 볶아주는 볶음밥까지 싹싹 쓸어먹고는 만족한 얼굴로 감사를 표했다.

1인분 6,000원, 주변에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많아서 저녁 시간에는 2층은 주로 젊은 이들이 값싼 회식을 하는 자리가 된다. 맛도 좋고 볶음밥(2인에 1인분이면 충분)까지 먹어도 7,000원이면 해결된다.

안양사람들이 기억하는 설렁탕집, 경민식당

안양사람들의 기억으로 안양에서 아주 오래된 설렁탕집은 경민식당이다. 지금 70-80세 정도의 어르신들과 좀 더 내려온다면 60대 중반의 안양토박이들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경민식당자리(안양역 인근)

안양역에서 비산동 넘어가는 육교 쪽으로 가는 구 도로 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구 시장에 살았을 적 안양역 쪽으로 가다 보면 식당 입구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있고 그 속에서 팔팔 끓던 아주 뽀얀 하얀 국물과 식사를 하러 아주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모습이 기억난다.

당시 경민식당은 관공서들이 자리했던 안양 일번가와 안양시장(구 시장)이 있었던 시 대동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자주 찾던 음식점이었다.

안양시는 2006년 안양시민축제 당시 음식문화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양의 대표음식으로 설렁탕을 선정해 과거 자료를 수집했다.

안양문화원 최태술 위원이 조사한 기록에 보면 경민식당 설렁탕이 한창 이름을 날릴 때 안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공무원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경민식당 설렁탕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대접으로 경민식당 설렁탕이 옛 선농제 후에 끓여 먹든 그 설렁탕의 맥이란 것이다.

설렁탕은 우리들의 대중음식 중의 하나다. 옛날 고기가 귀했던 시절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에 바친 쇠고기를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쇠고기국에 밥을 말아 많은 사람이 먹도록 한 것이 후에 설렁탕이라는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설렁탕은 사골, 도가니, 쇠머리, 우족 등의 뼈와 양지머리, 사태 등의 정육, 우설, 지라, 허파 등 내장을 넣고 하루 정도 푹 고아 끓인 것으로 곰탕보다 국물이 뽀얗고 맛이 담백하다.

경민식당 설렁탕은 우선 소뼈를 24시간 곤 뒤 딱 200명분만 한정하였다고 한다.

김종수 씨의 말에 어린 생각에 끓인 국물에 물 좀 더 부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진실과 음식 맛의 진리를 터득한 달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경민식당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며느리가 전수받아 했으나 할머니 때 맛이 나지 않자 차차 손님이 줄어들었다. 또한, 안양8동 성결대학교 앞으로 이전하고부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히면서 나중에는 문을 닫고 말았다.

전국으로 유명세 안양해물탕의 원조, 정호식당

수원을 대표하는 음식이 갈비라면 안양은 해물탕으로 유명하다. 전국을 돌아 보면 간간이 안양해물탕이라는 상호를 건 음식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양해물탕의 원조가 되는 집이 정호식당으로 이 집의 해물모듬찌개가 바다도 없는 안양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만들었다.



정호식당(2011년)

정호식당은 1970년 안양시 남부시장 골목길에 개업해 38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1980년대에는 유명한 탤런트들이 이 집의 해물모듬찌개를 맛보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국부터 달려왔다가 자리를 잡지 못해 밖에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다반사일 정도로 명성을 날렸었다.

정호식당의 대표음식은 해물모듬찌개다. 왕새우, 키조개, 전복, 뼈오징어, 낙지, 바지락, 비단조개, 명란알, 한치알 등 계절에 따라 30여 가지의 싱싱한 해물과 12가지의 야채, 비법 양념장을 넣고 한우양지 육수로 끓여내면 국물이 개운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밑반찬은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마늘쫀, 김치, 깻잎과 젓갈이 전부지만 소박하고 정갈하다. 이 집 해물모듬찌개가 유명해진 것은 작고한 지청자씨가 재료구매에 있어 매우 간간하기 때문으로 살아생전에 새벽이면 노량진 시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들어왔다.

20대 중반부터 음식업에 투신했던 지청자 씨는 해물탕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 메뉴를 해물 한 가지로 일관했다. 처음엔 해물탕으로 불렸는데 남들이 해물탕이란 이름을 모방하자 메뉴 이름을 ‘해물모듬찌개’라고 바꾸어 차별화했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정호식당 해물모듬찌개는 지청자 씨가 작고한 후 아들이 남부시장 내 그 자리에서 대를 잇고 있고, 딸이 의왕 청계 쪽에서 분점을 내고 운영하다 지금은 평촌 먹자골목으로 이전했다.

최근에 오랜만에 맛을 볼 기회가 생겼다. 해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물이 좋다”는 말을 할 정도로 선도가 좋았고 맛도 웬만한 해물탕집보다 한 수 위다. 하지만 국물이 개운하면서 끓일수록 단맛이 나야 하는데 작고하신 어머니가 내놓던 예전의 그 맛이 나질 않아 아쉽다.

해물탕을 다 먹고 나면 도저히 들어가 곳이 없어도 볶음밥을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보아야 한다. 물론 타의 추종 비교 금물이다. 작고한 주인아주머니와 일해 왔던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이 깻잎에 볶음밥을 한 숟가락 올려 싸먹으라고 알려주면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이다.

하지만 가격은 다른 음식에 비해 다소 비싼 편에 속하는 반면 맛은 예전의 명성만큼 따라주질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질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안양역 일대에서 가장 오래된 부대찌개집, 석기정

안양역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은 부대찌개로 유명한 석기정이 아닐까 싶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48에 자리한 석기정에 들어서면 실내 벽면에 since 1981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1970년대 말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집은 1965년 안성인가 송탄인가에서 처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안양으로 이전해 현재의 자리에서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군포, 의왕, 수원 등에 체인점까지 내고 있지만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대를 이어 지켜온 비밀에 있지 않나 싶다.

돌솥 그릇에 담겨져 나와 강력한 가스 불 위에서 끓는 부대찌개 속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소시지, 햄, 통조림통, 고기, 김치, 당면 등과 더불어 냉이가 들어가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이 감칠맛까지 더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밑반찬도 몇 가지 안 되지만 대체로 깔끔하다. 예전에 할머니가 운영할 때는 사시사철 냉이를 내놓았지만 요즘엔 봄·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썩잖이 나오기도 해 아쉬움을 주고 있어 대를 잇는 명성을 다소 흠이 되고 있다.



부대찌개집 석기정

안양 일번가 터줏대감, 안양감자탕

음식점들이 즐비했던 안양 일번가에 그 자리를 지키며 수십 여년 세월을 맛으로 승부하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몇몇 집들이 있는데 1983년 문을 열고 감자탕을 만들어 내는 안양감자탕(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51번지)이 그중 하나이다.

서이면사무소 옆에 자리한 이 집은 특이하게 콩비지와 감자, 살코기가 붙은 뼈가 수북이 나온다. 아마도 감자탕에 콩비지가 들어가는 집은 안양에서 이 집이 유일하지 않을까? 최근 가격이 좀 세져서 아쉽지만 국내산 고기를 사용하고 그 만큼 맛도 인정하기에 그럭저럭. 안양 일번가가



안양감자탕

젊은이의 거리로 바뀌어 중장년들이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지만 이 집만큼은 20대부터 60대 장년층까지 함께 감자탕과 술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곳이다. 이 집 감자탕은 국물이 리필된다. 감자탕 속의 뼈에서 고기를 다 발라먹고 국물까지 어느덧 동날 무렵이면 새로운 주문을 하게 된다. “이모님 밥 한 공기만 볶아 주세요.” 콩비지의 구수함이 묻어나는 볶음밥은 소주 한 병을 추가로 주문할 정도로 또 다른 맛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집의 또 다른 맛은 해물 파전이다, 출입구 옆 커다란 철판 위에서 이모님이 맛있게 부쳐주는 파전은 꾸역꾸역 비라도 오는 날이면 더욱 맛있다. 비밀 한 가지. 메뉴에는 없지만 가끔 계란말이를 주문하면 이모님이 해주시는데 퓨전이 아닌 옛날식 계란말이를 맛볼 수 있다.

안양감자탕은 주인 내외분이 하는데 파전을 부치시는 이모님은 기억으로는 15년 이상을 함께 하였는데 인상도 좋고 마음씨도 좋다. 오랜만에 들리면 꼭 기억해준다.

넓고 허름해 다 쓰러질 것 같은 안양감자탕 앞에는 깔끔한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단장한 안양감자탕2가 생겼다. 여기는 결혼한 따님(?)이 독립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들과 오는 분들은 깔끔한 이곳으로 가지만 대부분은 허름한 옛날부터 있던 원조 집을 많이 찾고 있다.

안양시민의 회갑 장소였던 갈비집, 화진정



화진정 자리(안양일번가)

안양의 유명한 갈비집중 하나가 화진정이다. 화진정은 약 40년 전 안양역 앞 일번가 골목에 문을 열었다. 당시 그 골목에는 유래정 등 많은 음식점들이 마주 보고 성업을 했다.

화진정의 주메뉴는 왕갈비다. 다진 마늘, 통깨 후추 등을 넣어 만든 갖은 양념과 정성스럽게 손질한 갈비를 왕갈비 조리실에서 참숯불에 구워 달구어진 철판에 담아 내오는 것으로 육질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일품으로 1980년대까지

회갑잔치의 단골장소이기도 했다.

화진정이 생긴 유래는 수원 화춘옥 갈비가 전국적으로 유명할 당시에 화진정 주인인故 윤금분 할머니가 화춘옥 주방장 집을 수십 번 찾아가 빌고 빌어 스카웃에 성공해 화진정 갈비가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 1번가에 있던 화진정은 1990년대 중반 전국에 불어 닥친 노조 열풍이 이 집에도

밀어닥쳤는데 마침 병으로 입원해 있던 주인의 충격과 상권의 변화로 자진 폐업하였다.

이후 화진정 자리는 임대를 주어 품목을 바뀌었으며, 화진정의 갈비맛은 아들이 석수동 안양대교를 지나 오른쪽에 화진가든을 열고 석수동시대의 명맥을 잇고 있으나 예전의 명성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한편 화진정 설립자인 윤금분 할머니는 생전에 운영하던 50억 원 규모의 화진가든을 기초로 ‘화진윤금분장학회’의 재단을 설립해 매년 40여 명의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1년 학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금분 할머니는 1923년 서울에서 출생해 학교를 졸업하고는 정부기관, 서울 답십리 소학교 교사, 방림방직 초대사감 등에서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안양에 자리 잡아 화진정과 그 이후 개업한 화진가든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1995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윤 할머니는 본인 사후 재단의 발전을 염려해 화진가든을 재단에 기증했으며 화진장학회는 1996년 설립 직후부터 5천만 원 이상을 매년 장학금으로 내왔다. 올해 지급한 장학금 총액만 7천만 원에 이른다. 장학금 규모로는 안양지역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힌다.

화진가든은 설립자의 사후 재단이 선임한 김창배, 오정숙 이사 부부가 맡아 운영하고, 화진장학회는 윤금분 할머니 타계 이후 동생인 윤옥분 씨가 이사장을 맡았다가 2009년 교육관료 출신의 전문가인 이현상 씨가 3대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덕제지 공장 노동자 허기 달래주던 순대국밥집, 삼덕집

안양4동 중앙시장 안에는 순대국밥집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죽 늘어서 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40여 년이 넘는 삼덕집이다.

삼덕집은 1960년대 초 정명순 할머니가 인근 삼덕제지 앞에서 포장마차를 열고 공장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내장, 머리고기, 오소리감투가 푸짐한 국밥을 팔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중앙시장 안에 점포를 마련했으며 지금은 따님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안양 중앙시장 안에는 순대국밥집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죽 늘어서 있다. 삼덕집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소머리국밥, 고사머리, 막창구이 전문이라 적혀 있고, 팔호 안에 ‘원조할머니



삼덕집 순대국(안양중앙시장)

집'이라고 써어 있다.

삼덕집은 순대국과 막창구이가 전문이다. 특히 밥이 말아 나오는 순대국밥에는 순대가 보이지 않는다. 아예 순대는 넣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 할머니가 “제대로 된 순대국에는 순대가 안 들어가” 라고 말했단다. 그럼 그게 고깃국이지 순대국일까 싶은데, 삼덕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왜 순대가 도태됐는지 이해된다.

또 다른 이유는 삼덕집은 삼덕제지 공장이 들어서면서 먼지 많은 종이공장 노동자들의 허기를 채워줬다. 제지공장 노동자들에게엔 당면이 들어간 순대보다 고기 한 점이 더 아쉬웠을 것이다. 따라서 삼덕집 순대국에는 내장, 머리고기, 토실한 오소리감투가 잔뜩 들어 있다.

이 집 순댓국밥을 한 수저 뜨면 밥알이 잘 안 걸린다. 밥보다 고기가 훨씬 더 많다. 하루 종일 우려낸 국물은 잡내 없이 부드럽다. 반찬으로 풋고추, 마늘, 된장, 깍두기, 배추김치, 고추를 썰어 넣은 새우젓이 나온다.

주방 아주머니들의 말투는 투박하지만, 인심은 순대국 속에 가득 들어 있다. 그릇이 넘칠 만큼 푸짐하다.

한국 최대 규모 몸보신 회관, 대교보신탕

안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을 꼽으라면 어디를 지목할까. 안양사람뿐 아니라 타지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곳이 바로 안양 대교보신탕이 아닐까. 1969년에 문을 열었으니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우스개로 안양에서 대교보신탕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다.

대부분의 보신탕집들은 허름하거나 산골, 골짜기, 유원지의 주막 분위기인 것과 달리 대교보신탕은 우선 규모부터가 다르다. 위치야 예전 안양천변 그 자리에 있지만 15평 규모였던 식당은 수도권 주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대 규모의 초대형 보신 전용회관으로 변모했다.

자고로 동사나 명사는 말할 것도 형용사 문장에도 ‘개’라는 한 글자면 갖다 붙이면 요상하게 바뀐다. 개소리, 개지랄, 개꿈, 개털, 개판, 개놈, 개년, 개새끼, 개밥, 개망신에, 개똥이다, 개발로 쓴 글씨, 개 같은 생각, 개 같은 잠버릇, 개 같은 술버릇, 개 같은 인생 등 끝이 없다.

하지만 개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전통적으로 몸보신에 최고로 여겨져 사시사철 즐겨 찾는 음식으로 보신탕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교식당에 들어서면 벽면에 부모님의 뒤를 이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장수민, 장수

명 형제 CEO의 인사말과 함께 40여 년간의 연혁을 적은 글 게시판이 걸려 있다.

그중에는 어두운 역사도 있다. 1981년 7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시설상을 받은 다음 달인 1981년 8월 13일 프로판가스 폭발 사고도 발생해 당시 밤 10시 반에 터져서 10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사람 많은 낮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이 사고로 대교보신탕은 쏘박 망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1981년 가스업자가 신탕을 받고, 1982년 4월 다시 개업을 했지만 1987년에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보신탕이 혐오식품으로 철퇴를 맞으면서 식당을 안산으로 넘어가는 수암면으로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하지만 대교보신탕의 맛을 인정한 맛객들은 안산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치 않으며 발길이 줄을 이으며 성황을 이루었다. 이후 대교보신탕은 1990년 다시 현재의 장소로 복귀했으며 1992년까지 보상금과 합의금 지급을 마무리할 정도로 보신탕은 부를 가져다주었다.

이 집의 메뉴도 세월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가 있다. 옛날에는 수육을 주문하면 주인장의 단골 여부에 따라 알아서 부위를 내주었지만 지금은 배부분, 갈빗살, 목살 수육전골, 수육무침 등 세분화돼 나오고 단품으로 전골과 장수탕과 장수왕탕이 있고 삼계탕도 있다.

1980년대 중반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일할 때 서말가리다 독일수녀님이 이 집을 즐겨 찾았다. 당시 주인장은 외국인이 그것도 여성이 보신탕을 먹는 것이 신기해 반갑게 맞아주었다.

1980년 중반 독일에서 근로자회관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은 보신탕을 맛보고 싶다고 해서 출국하기 전 보신탕을 맛보고는 맛있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당시 외국에서는 88올림픽을 앞두고 혐오식품을 먹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일어날 때라는 점에서 맛으로 판정한 격이다.

대교식당의 보신탕 맛은 일단 깔끔하다. 프랜차이즈라는 틀로 같은 맛을 내놓아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독창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단점도 될 수 있다. 탕을 잘하거나 맛있다는 음식점 대부분의 기본 찬이 무언가 남다른 것처럼 대교식당의 김치와 깍두기 맛도 상당하다.

장수명 대표이사는 “보신탕은 국제적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기호식품이고, 보양식으로의 효능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보신음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 사장은 “앞으로 3세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어 튼실하게 뿌리내리고 싶은 게 꿈이다”고 말해 안양에서도 1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식당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보신탕은 현재 마치 대형 공장 건물을 연상시키고 아마 전국 최대 매출의 식당일

것이다. 상호도 대교보신탕에서 장수명가로 바뀌었고, 2002년부터 프랜차이즈에 나서면서 군포(2003년)와 부천(2005년)에 분점을 내는 등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삼계탕의 대명사, 안양 백제삼계탕



백제삼계탕(안양일번가)

음식점을 오래 운영하려면 손님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손님이 끊이지 않으려면 당연히 맛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래된 집중에서 최소한 맛없는 집은 없다.

안양에서 삼계탕 하면 백제삼계탕이다. 1965년 개업했으니 35년을 넘는 역사로 연륜이 오래도 됐지만 맛도 평범한 수준을 넘어 지역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정도로 삼계탕 하나

로 부동의 명성과 부를 쌓은 집이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3 전 화 : 031-449-3279)

백제삼계탕은 처음에 안양역 앞 안양1번가 골목길에서 하다가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이후인 1980년 중반 평촌 자유공원 정문 길 건너편 갈산동 골목(덕현초교 정문 앞)에 직영점을 냈다. 또 최근에는 산본에 분점을 내 안양 1번가 본점, 평촌과 산본은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손님은 평촌 직영점이 일번가 본점보다도 더 많다. 특히 삼계탕은 인삼, 대추, 찹쌀 등 몸에 좋은 것들과 함께 요리하여 더욱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복날에는 번호표를 받고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주말과 평일 점심에도 밖에서 일 이십 분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다.

이 집 삼계탕의 특징은 육질도 부드럽고 담백하고 고소한 국물이 아주 맛있고 뒤끝도 깔끔하다. 유명한 탕 집에는 맛있는 깍두기가 있다는 말처럼 이 집의 깍두기는 큼지막한 것이 아삭아삭하게 씹히면서 맛있다. 삼계탕을 나오면 더불어 어울리는 인삼주도 한잔 나온다.

또 단골손님에게는 양념으로 볶은 닭모래집도 살짝 갖다 주기도 한다, 물론 메뉴에 있다.

최근에는 산본에도 또 하나 분점을 차려 지금은 안양 1번가는 본점, 평촌과 산본은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분은 그래도 일번가 본점이 더 낫다고 평가를 내리는데 지난주 일번가에서 오늘은 평촌에서 식사를 했지만 내 입맛으로는 큰 차이를 모르겠다.

다만 평촌점이 지하실까지 있어 면적도 넓고 자리도 많지만 손님이 많아 빨리 먹어

야 할 정도로 쫓기는 분위기인 반면 일반가점은 자그마하지만 맛을 즐길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상호가 상표등록소송 때문에 백년지기삼계탕으로 바뀌었지만 예전부터 이 집을 드나들던 이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백계삼계탕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이름의 기억은 참 중요하다.

남부시장의 투박한 사랑방, 남부정육점

1969년 개설한 남부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남부정육점. 통칭 남부고기집으로 불리는 이 식당은 안양 일변가 동서연결지하차도 옆 제일교회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남부정육점(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22) 간판이 보인다.

남부정육점은 고 이강순 할머니가 창업해 운영해 오다가 1998년 작고한 이후에는 아들인 이명래씨와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다. 꾸준히 손님이 늘자 1992년 맞은편에 공간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관양동 먹자골목에 분점을 냈는데 이곳 역시 손님들로 넘친다는 소식이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한다. 실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는 저녁시간이나 금요일에는 자리가 없었으며, 비닐봉지에 신발을 들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남부정육점은 시끌시끌한 것이 마치 장터 주막을 연상케 한다. 그만큼 많은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1인분씩이 아니라 600g 정량을 값싸게 팔기에 매니아도 생길 정도로 알려진 곳으로 안양에서 이토록 오랜 기간 사랑을 받는 곳을 찾기도 사실상 어렵지요.

남부고기집의 매력은 한우와 한 돈을 싸게 먹을 수 있고, 날이 더워도 맛있는 육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상추, 고추, 버섯, 마늘, 국물, 김치 등등 달라면 계속 주는 것도 편안하다.

처음 고기를 주문하면 투박한 철판 위에 비계를 올려놓고 기름을 낸다. 그리고 대충 찢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고기를 내준다. 조금 투박한 느낌이 나지만 얇게 자른 것보다 고



남부정육점

기 맛을 제대로 느끼기에 좋다. 무엇보다 고기를 다 먹고 난 후 남은 고기와 매콤한 김치와 마늘과 몽땅 함께 넣어 참기름으로 볶고 김가루를 얹은 볶음밥은 최고의 술안주가 아닐까 싶다.

밑반찬은 몇 가지 안돼 소박하고, 의자도 불편하다. 하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 무엇보다 20여 년 주방실장이 아직도 그 자리에서 고기를 찢어 주고, 40대 아주머니들이 이제 60~70대 할머니들이 되었지만 오랜만에 찾아간 단골손님을 기억하고 환한 미소로 ‘왜 이리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남부고기집을 찾아가면 꼭 맛을 보고자 하는 것이 육회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계란 노른자 한 알을 비벼 내놓는 그 맛을 잊지 못할까. 아마도 할머니들의 손맛 때문이 아닐까 싶다.

팝송과 DJ의 음악다방과 레스토랑

1970년대는 통기타, 장발, 나팔바지와 함께 LP음악을 들려주었던 DJ가 인기를 누리던 음악다방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다방의 추억이 유별났던 곳은 단지 차만 팔고 약속장소만이 아니라 그 시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뽕얀 담배 연기로 가득한 다방은 유리창 속에 앉아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DJ’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카펜터스와 아바, 스모키 등의 팝송과 때로는 신나는 디스코 장단에 흥겨워하는 모습은 지난 70년대를 거쳐 80년대 중반까지 자리했던 ‘음악다방’ 속의 한 풍경이다.

음악다방의 얼굴마담은 단연 DJ였다. 유리창 너머 뮤직박스 속의 DJ들은 왜 그리도 멋지고 경외롭던지 그 시절 젊은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화려해 보이는 DJ를 꿈꾸기도 했다.

당시 음악다방에는 정중앙 또는 한쪽 벽면에 유치 칸막이로 되어 있는 DJ석이 있었고, 두 개의 턴테이블이 연신 돌아가며 신청곡들을 들려주었다. 업주의 취향에 따라 음악 분위기가 달랐지만 당시 음악다방의 DJ는 연출가이며 진행자이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1976년도 다방 커피 값은 100원인가 120원인가 했다. 물론 쓰디쓴 원두커피만 있었던 것으로 아니다. 홍차에 계란반숙에 지금 같으면 먹지도 않을 싸구려 위스키도 판매했다. 단골손님이 아침에 들리면 노른자를 살짝 띄운 모닝커피가 나오고, 맥주도 팔았던 시절이다.

당시 인기 DJ 유치 경쟁도 치열했다. 수많은 LP판 속에서 신청곡이 들어있는 레코드

판을 찾아 달콤하고 때로는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멘트를 날리니 여성 고객들이 인기 DJ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당연지사 일 정도로 당시 DJ의 인기는 요즘 아이돌 부럽지 않았다.

신청곡을 꼭 듣고자 다방에서 내주는 종이 대신 집에서 가져간 고운 꽃종이에 신청곡과 들려줄 사연을 적어내기도 하고,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다방을 기웃거리다 슬그머니 DJ 신청곡 쪽지를 넘겨주는 창구 앞에 놓고 나가는 소녀팬들의 모습도 있던 기억이 나는 그때다.

DJ는 단골손님이 오거나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다방에 들어서면 자리에 앉고 차를 주문도 하기 전에 그 손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과 닭살 멘트를 날리기도 했던 여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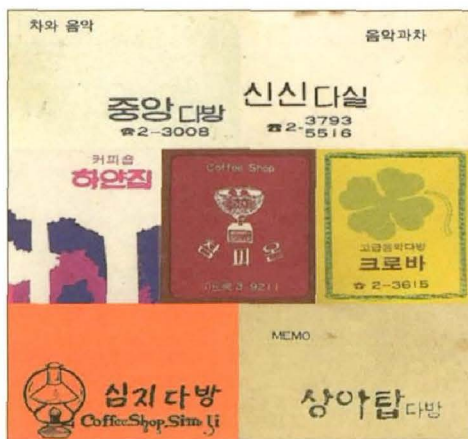
안양 토박이들이 기억하는 다방의 역사를 보면 가장 오래된 다방으로 1950년대쯤으로 기억한다. 안양1동 구도로에서 비산동 당시 구 시장으로 넘어가는 땡땡땡 건널목(현재 육교)을 건너기 전 우측에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적산가옥이었던 2층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는 구 시장(안양시장)과 새 시장(중앙시장)이 혼재하던 시기였는데 안양시장(구 시장)은 우시장에 대장간도 있었고, 엄청나게 규모가 컸던 쌀 창고에 버스가 지나가던 길목이라 지역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무렵이라 광창라사, 유화사, 이발관, 중국집 등 상점들이 즐비했다.

1960년대 초 필자도 구 시장 근처 시대동에 살았다. 부친께서 철길 건너에서 잡화상을 하셨고, 외갓집이 땡땡땡 건널목 옆에 있어 나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다방 누나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으며 당시로써는 매우 귀했던 우유와 계란반숙을 얻어먹곤 하던 기억이 생각난다.



1980년대 레스토랑 성냥들



1980년대 다방 성냥들



당시의 또 다른 다방으로는 정 다방이 있었는데 언제 문을 열었는지 시기는 정확지 않다.

다방은 1970년대 접어들어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여주인이 운영하며 어른들이 드나들었던 속칭 노땅 다방과 젊은이들이 드나드는 새로운 유형의 음악다방으로 나누어진다.

음악다방의 원조는 중앙다방과 신신다방이다. 신신다방은 안양4동 중앙시장 입구 오른쪽에 건물 지하에 중앙다방은 도로 쪽 건물 2층에 있었는데 이곳은 LP레코드판이 벽면을 꽉 채우고 인기 DJ로 경쟁이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 레코드판이 많은가도 관심거리였다.

삼원극장(현 CGV) 지하에 있던 삼원다방은 극장 데이트를 앞둔 연인들의 약속장소였고, 지하에 있던 동굴다방은 실내를 진짜 동굴같이 꾸며놓았다. 80년대 생겨난 상아탑 다방에서는 지금 MBC라디오 MC로 일하는 강석 씨가 DJ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다.

안양 시내에서 젊은이들이 갈 곳은 음악다방밖에는 마땅한 곳이 없던 시절이라 낮이고 저녁이고 근처를 빙빙 돌다 보면 마주친 친구를 한두 번 다시 만나기는 예사였다. 지금처럼 핸드폰은 커녕 집 전화조차 백색전화는 거금을 주고도 못 살 정도였으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안양 음악다방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이는 안양초등학교 41회 졸업생인 김종우(52) 씨다. 그는 다방의 이름이 새겨진 성냥갑들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그의 블로그에 올려놓을 정도다.

그가 기억하는 음악다방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070년 다방은 주로 중앙시장 입구 쪽과 길 건너편 안양 1번가 중앙통 골목길 양쪽에 밀집되어 있었다. 중앙시장 쪽에는 신신다방, 중앙다방, 약속다방, 삼원다방, 보리수다방이 있었다면 일번가 쪽에는 동굴다방, 신도다방, 금성다방, 동산다방, 전원다방, 원다방, 태양다방, 심지다방, 까치다방 등이 있었다. 또 공작, 코스모스, 청궁, 태양(SUN), 초원다방 등도 있다.

당시 다방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이자 맞선을 보던 곳이기도 했다. 비산동 운동장 앞 대관령 식당의 여주인은 “1970년 안양역 앞의 초원다방에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말한다.

1980년 이후 안양 시내 다방업계는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그 이름도 유명했던 상아탑 다방이 안양 1번가 입구 쪽 건물 2층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개업했기 때문이다. 상아탑 다방은 넓은 실내와 최신 실내 장식, 기존의 다방들과는 차별화된 깨끗한 분위기로 칙칙한 다방 분위기에 식상했던 젊은이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안양의 대표적인 다방의 대명사로 등극하게 된다.

개업 초기에는 음악실에서 강석 이라는 DJ가 최고의 인기 DJ로 많은 손님들을 몰고 다녔는데 지금은 MBC방송국의 유명한 MC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상아탑다방 건너편 건물 2층에도 다방이 개업을 하는데 현대다방이다. 지금 생각하면 개업을 한 상아탑다방이나 현대다방의 시설이나 분위기가 그다지 썩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새로운 것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의 욕구는 누가 뭐래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상아탑 다방과 현대다방이 개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분수다방, 참피온다방, 크로바다방이 개업을 하는데 다방 상권이 완전히 1번가 쪽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시장 쪽의 다방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게 된다. 이후에도 안양의 다방 전성기는 4~5년간 계속되는데 1985년 이후에는 그토록 번성했었던 다방사업도 서서히 사양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이름도 고상한 COFFEE SHOP이 하나 둘 씩 생기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는 손님들이 생겨나고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니 시내의 다방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COFFEE SHOP이라는 간판으로 상호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 다방에서 DJ를 채용하여 음악실을 관리했는데 당시 안양에도 유선 방송국이 생기면서 약간의 유선비를 지불하면 하루종일 음악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에 고 임금을 받던 DJ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도 음악다방이 사라진 계기라 할 수 있다.

김종우 씨가 기억하는 안양의 마지막 음악다방은 안양 1번가 중심가에 위치했던 클로버(CLOVER) 다방이다. 그는 1988년 폐업한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명 다방 등 시내중심가에 다방들이 계속 운영을 해왔지만 예전의 그런 다방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후에 COFFEE SHOP은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 HAMBERGER에 밀리고 PIZZA에 치이고 빵집에 꼬집히고, 수많은 FAST FOOD에 두들겨 맞더니 현재는 온갖 먹을거리를 다 파는 MULTI SHOP과 수입 BRAND COFFEE 별 다방, 콩 다방에 밀려나 신세다.

김종우 씨는 “30년 전의 아련한 다방의 기억과 추억은 여전히 설레게 한다”며 “한 시대 젊은이들의 해방구 역할과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도 되었을 만한 시기에 사라졌다”면서 음악다방의 사양길을 기억하며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

이렇듯 70~80년대 음악다방은 하나의 문화이자 ‘추억’이었다. 신청하던 노래와 사연에 당시의 암울했던 시대가 녹아있고 그 시절 연애, 청춘, 그리움 등 향수가 녹아있으니 말

이다. 최근 가요계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 속에 세시봉이 주가를 날리는 것처럼 DJ가 신청곡을 LP레코드판을 틀어주는 음악다방이 부활하고 있다.

경기 남부권에서의 원조는 안양예술공원에 자리한 ‘세월이 가면(석수1동 831, 2층)’이다. 지난 2006년 카페 주인이 소장한 LP판 2만여 장으로 시작했는데 80년대 안양 1번가 ‘동굴다방’, ‘상아탑다방’ 등에서 DJ를 했던 성시훈이 뮤직박스에 앉아 손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준다.

카펜터스와 아바, 스모키 등 올드 팝송이 자주 들리는 이곳에서는 영화 ‘여고시절’의 빛바랜 포스터, 줄이 끊긴 통기타, 낡은 교복 등을 보면서 옛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

끼 있는 이들의 사랑방, 곧망할

“우린 망한다는 확신 아래 여기 작은 꿈을 이름 하여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이론으로 출입구를 냅니다.”(곧망할 카페 전단지)

1978년 5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부림상호신용금고 앞 중앙시장 골목길 안쪽 건물 지하에 요상한 상호를 내건 카페가 문을 열었다. 이름은 ‘Gote manghale’(곧 망할)이다.

이 카페의 주인장은 하늘새 조각가로 잘 알려진 이강식 선생과 당시 안양에서 활동하던 연극인 윤고성 씨가 손을 맞잡았다.

곧망할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번째로 생긴 소극장이자 갤러리 겸 카페였다. 당시로선 이색적으로 실내를 2층으로 꾸미고 미술소품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공연과 연극이 열리는 등 꽤나 분위기 있는 카페로 입소문이 나면서 끼 있는 사람들의 아지트였다.

특히 유신의 몰락과 제엄령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곳을 해방구로 삼았다. 지금은 중견이 된 예술인, 연극인, 연출가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79년 당시로써는 보기가 쉽지 않았던 연극공연 ‘정복되지 않는 여자’는 연장공연까지 하는 히트작이 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곧망할’이라는 가게이름 때문에 체제전복을 노리는 불온분자의 아지트로 의혹을 사면서 간판을 내리고 고전음악감상실 대합실로 상호가 바뀌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강식 작가는 경찰서 보안과에 불려다니는 고초를 겪은 것은 물론이다.

또 대합실에 사람들이 북적여 돈이 될 듯 보이자 이곳에 눈독을 들인 집주인이 임대

비용을 엄청나게 인상해 결국 곧망할은 주인에게 자리를 내주고 안양 1번가에 위치한 3층 건물 지하(현 라이브 세시봉)로 옮겨와 고전음악감상실 ‘대합실’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한다.

카페 ‘곧망할’과 ‘대합실’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양지역을 기반으로 문화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다방이 음악다방으로 팝송을 주로 들려주던 시절 고전음악을 틀어대고, 은은한 조명이 켜지는 박공예 조각공방까지 대합실은 징역문화 운동의 거점이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지난 2000년 문을 닫고 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합실이 있던 자리에 커피집 ‘샤갈의 눈내리는 마을’이 들어섰다가 지금은 세시봉으로 바뀌며 문화의 맥을 잇고 있으니 위안이 아닐까 싶다. (이 집 주인장인 김청래 사장은 1970년대 안양1동사무소 옆 여관건물 2층에 ‘짜즈’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최초의 카페, 길모퉁이

1970년대 안양에서 카페란 명칭을 사용한 곳은 안양1동 CGV 옆 기차길 골목 2층에 있던 길모퉁이카페가 아닐까 싶다. K연구소에 다니는 남편을 둔 서른 살을 갓 넘은 예쁜 누나가 커피와 함께 진토닉 등 칵테일과 위스키 등을 팔던 가게였다.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친구들이 겨울에는 난롯불을 쬐며 노닥거리며 암울했던 현실을 고민하고 LP음반을 뒤적거리며 ‘까라마드르 조르쥬(길모퉁이 카페의 작가)’를 이야기했다.

당시 청년들의 주머니가 허전하던 때여서 주인 누나가 공짜로 주는 따끈한 커피와 술 한잔에 고마워하고 푹푹하고 넉넉한 쓰임새에 감동하며 간혹 안양9동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한 화물열차가 지나치기라도 하면 도로에 멈춰 지나간 차량들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였다.